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7
2012 July Vol.247



Swan Lake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창단 5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50th 1962-2012
ANNIVERSARY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2 중국순회연주회 성공기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린 김봄소리

지휘 리 신차오
Li Shincuo

2012. **7.31**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셔틀버스 운행 (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MAKSIM MRVICA KOREA TOUR

주최 PRODUCTION IN

제작지원 CM interactive
주식회사 씨엠 인터랙티브

JC Enterprise

“강하고 아름답다”

이 시대 최고의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

첫 부산 공연

2012. 7. 9 (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4, 2005, 2006, 2007, 2009 그리고...

2010, 2011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합창석까지 매진시키며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던 매진의 대명사

PROGRAM HABANERA / CARNIVAL / AQUARIUM / DUMKA / TRAMUNTANA / RHAPSODY OP. 79 NO.1
SCHERZO IN B FLAT MINOR / GYPSY MAID / VICTORY / BOHEMIAN RHAPSODY / CROATIAN RHAPSODY
EXODUS / CHILD IN PARADISE / REQUIEM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rvica

Maksim

Photo by Park Sang Yun

예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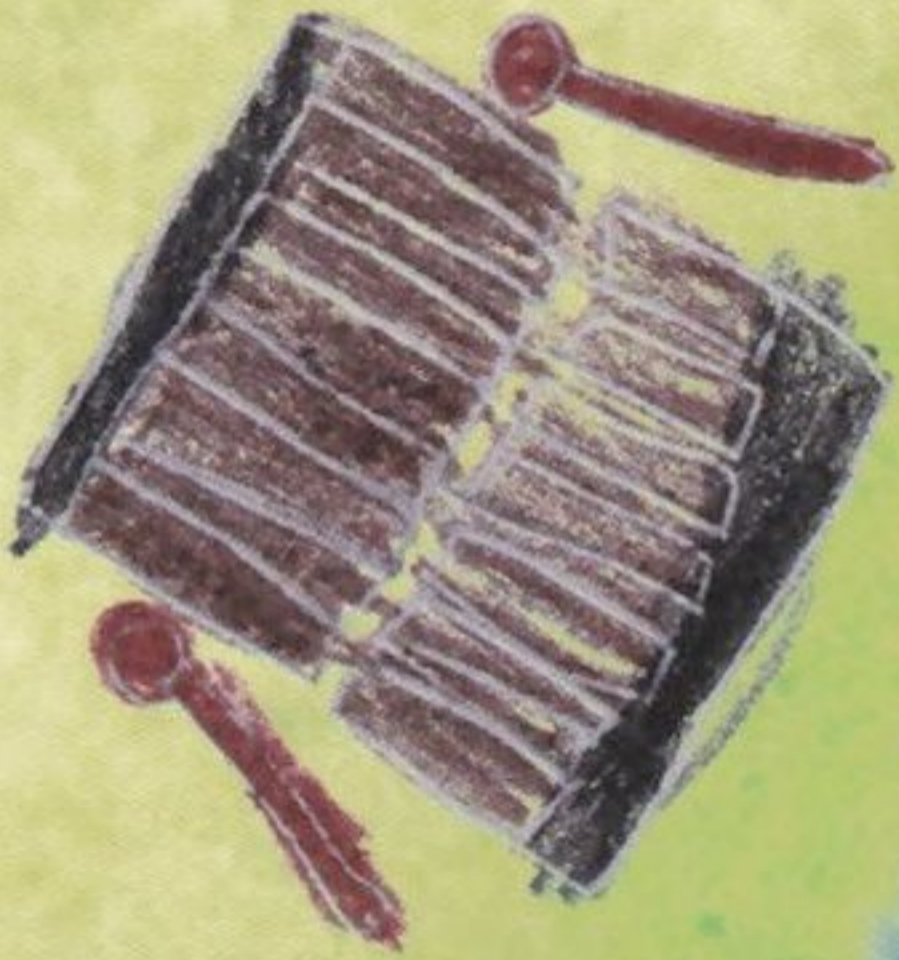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1566-1369

YES 24.COM
ticket.yes24.com
1544-6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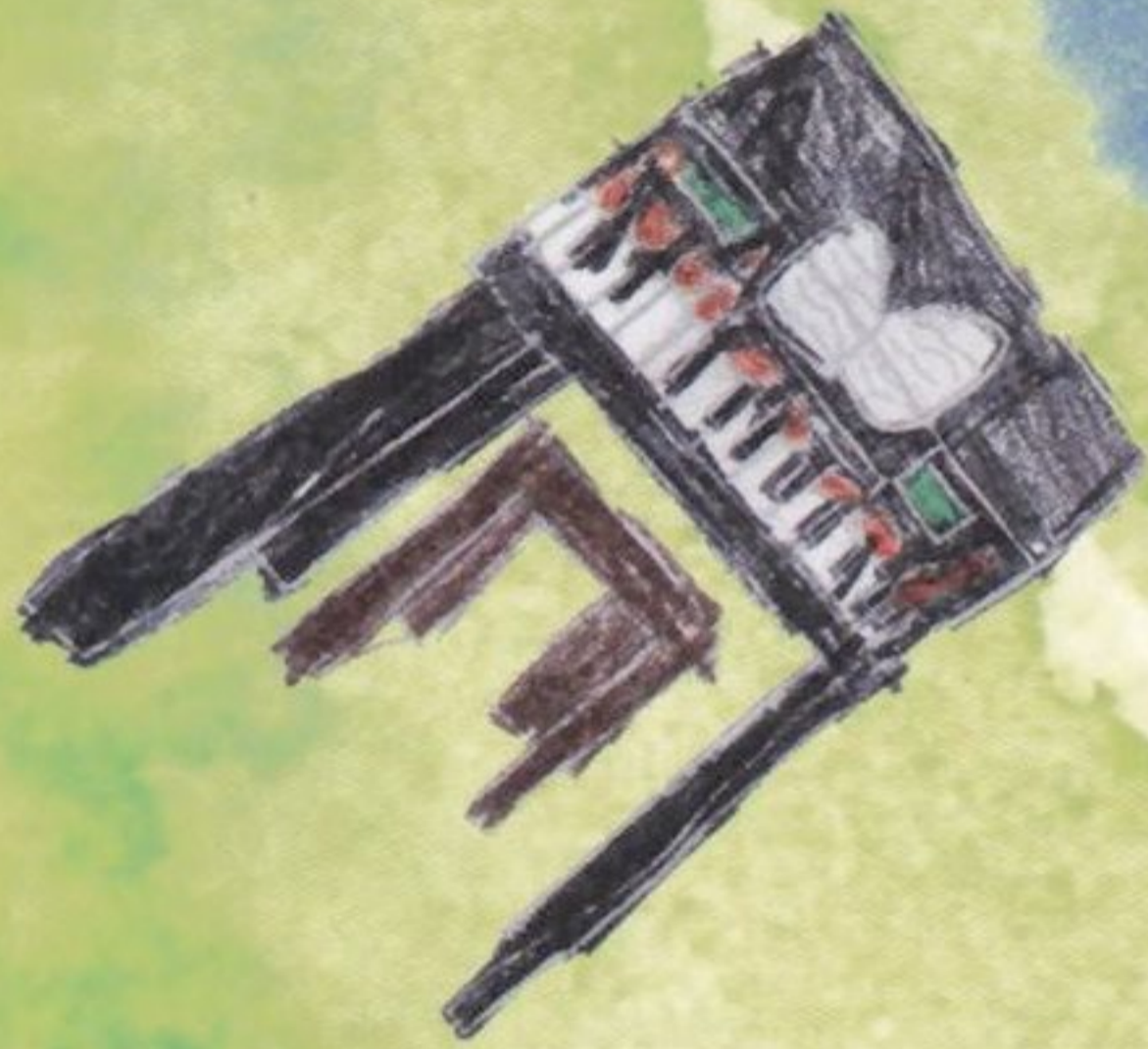
티켓 VIP석99,000원 R석88,000원 S석66,000원 A석55,000원

문의 02.6292.9370



2012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Program

- 바이올린마을
- 피리마을
- 나팔마을
- 타악기마을
- 지휘자와의 만남
- 한마음 음악회



지휘 이 동 신



연출 변 진 호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출연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2012. 7. 19 목 20 금 매일 오전 10:30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2,000원 / 단체(30명 이상) 1,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 06 커버스토리 | 국립발레단 초청 '백조의 호수'
- 08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국립발레단 수석 발레리나 김지영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독일 할레 헨델음악축제 _ 전진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⑦ |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오텔로 下>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로시니 ⑤ |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오페라 발표 _ 김종천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⑰ | 장에 가는 길 _ 변광석
- 26 공연화제 | 2012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세상 어때?'
- 28 그곳에 가면 | 세계 전시컨벤션 중심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벅스코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연극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도전 '시민극단 쌤'
- 32 리뷰 | 우리 곁에 다가온 거장, 정경화 _ 신설령
누군가의 시선으로 _ 김남석
10년을 위한 혁신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_ 이동우
- 35 나의 애청음반 | 꿈 속의 고향-드보르작 '신세계로 부터' _ 조영석
- 36 테마가 있는 여행 | 창녕
- 39 CULTURE LIFE
- 59 100자 토크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7월호 통권 247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6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발레〈백조의 호수〉는 수많은 안무자에 의해 다양한 버전으로 탄생되었고 영화와 뮤지컬 등 다른 장르에서 재해석 되어 왔다. 1969년 그리가로비치가 재안무한 〈백조의 호수〉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러시아 키로프발레단이나 영국 로열발레단 등의 〈백조의 호수〉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안무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악마 로트바르트에 대한 해석이다. 다른 버전에서는 지그프리트 왕자와는 별개의 인물인 악한 마법사로서 표현되지만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에서는 이 악마가 지그프리트 왕자의 또 다른 내면, 즉 '악의 근성'이라고 표현된다. 지그프리트 왕자와 백조 오테트는 우리들의 선한 면과 사랑을, 악마와 흑조 오딜은 악한 면과 운명을 상징하는데 이 상반된 성격들이 한 인간 속에 존재하여 상황에 따라 그 힘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백조의 호수〉를 보는 관객들은 누가 나쁘고 좋고를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 유리 그리가로비치 버전은 1막과 2막에 추가된 '악마와 왕자의 남성 2인무'와 '광대의 36회전', 궁정의 왈츠군무(어떤 관객은 이 부분 때문에 그리가로비치 버전을 택한다고 한다), 2막 각 나라 공주의 춤에 새로 삽입된 '러시안춤'과 기존 버전보다 솔리스트들의 기량이 더욱 보강된 민속춤의 모미로 주역의 춤이나 백조 군무 못지않게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김지영과 김리희가 오테트 공주로, 이동훈과 정영재가 왕자로 열연한다.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가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아름다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국립발레단의 뛰어난 연기, 화려한 무대가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최근 몇 년간 '신데렐라' '차이코프스키-삶과 죽음의 미스터리' '롤랑프티의 밤' 등 현대레퍼토리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스펙트럼을 과시했던 국립발레단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역량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김지영



이동훈



김리희



정영재

13일 무대에 오르는 김지영은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1997~2001년까지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로 활동하다 2002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으로 이적,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8년 USA 국제발레콩쿠르 여자 동상, 파리 국제무용콩쿠르 듀엣 1위(파트너 김용걸), 2007년 네덜란드 알렉산드라 라디우스상(Alexandra Radius Prize) 등을 수상한 김지영은 2009년 7월 국립발레단에 재입단하여 유럽과 한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동훈은 2008년 9월 특채로 국립발레단 입단. 2008년 <호두까기인형>으로 3개월 만에 전막 발레의 주역으로 데뷔한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별이다. 달콤한 마스크에 힘이 넘치는 도약과 회전 등으로 우아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아름다운 발레를 구사하는 이동훈은 2009년 장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신데렐라>에서도 왕자 역을 맡아 언론에 호평 받은 바 있다.

14일 오데트로 열연하는 김리희는 80:1의 경쟁을 뚫고 2006년 입단, 완벽한 신체조건과 깔끔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국립발레단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무용수로 사랑 받고 있는 김리희는 2004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국제심사위원 평론가상 3위, 2009년 모스크바국제무용콩쿠르 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정영재는 남성다운 표현력과 점프가 특기이며 동작이 정확하고 역동적이다. 영국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다 2009년 7월 국립발레단에 특채로 입단한 정영재는 2010 아라베스크 콩쿠르 그랑프리, 베스트 커플상, 2007 서울국제콩쿠르 그랑프리, 문화관광부 장관상, 뉴욕국제발레콩쿠르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 13일주역 | 김지영, 이동훈
| 14일주역 | 김리희, 정영재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Preview

MAKSIM MRVICA KOREA TOUR 2012

막심 므라비차 내한 공연

| 7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 ● 장르와 음악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피아노 연주와 화려한 외모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가 7월 9일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 정열적인 연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장르를 넘나들며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실력과 뮤지션 막심 므라비차는 크로아티아 전쟁 중 피아노 음악학교 지하실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다. 평화의 기운이 감돌던 1993년 처음으로 참가한 자그레브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를 놀라게한 막심은 이후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 최고의 피아노 교수인 블라디미르 크라판을 사사하고 부다페스트의 명문 리스트 음악원에서 수학하며 성장을 거듭, 1999년 연주자들의 선망의 무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피아노콩쿠르와 2001년 프랑스 파리 폰트와즈 피아노콩쿠르 우승을 차지했다.

2003년 데뷔 앨범 'The Piano Player'를 발매한 막심 므라비차는 'The Piano Player'로 홍콩에서 더블 플래티넘을, 대만과 한국, 싱가포르, 크로아티아에서는 플래티넘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에서는 골드를 기록하였고 이후 발매된 그의 앨범 또한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일렉트릭 피아노계의 황태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막심은 크로스오버 뮤지션 '바네사 메이(Vanessa Mae)'와 '본드(Bond)' 등을 키운 프로듀서 '멜 부시'에게 발굴되어 비트가 강한 테크노 분위기의 전자음과 현란한 피아노 속주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음악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대표곡 'The Flight of the Bumble-Bee(왕벌의 비행)'에서 선보여 주는 강렬한 연주는 '신이 내린 손가락'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곡은 우리에게 현대 모비스 광고 배경음악로 유명하다.

그동안 8회 내한 공연으로 국내 음악팬들과는 친숙한 스타 뮤지션이지만 부산 연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막심은 공연과 음반활동 이외에도



● 막심 므라비차

장기적인 한국 활동을 위해 (주)CM인터랙티브와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한국 팬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자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 1부에서는 비제의 하바네라, 생상스의 카니발, 차이코프스키의 둠카 등 클래식 명곡들을 편곡한 프로그램을, 2부에서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브람스의 랩소디 작품 79 중 1번과 쇼팽의 스케르초를, 3부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2막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을 편곡한 'The Gypsy Maid'를 비롯해 그룹 퀸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막심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엑소더스' 등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입장권 : VIP석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인프로덕션(02-6292-93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II

|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김철호

거문고 오상훈

해금 이은주

판소리 정선희

25현 가야금 윤경선

태평소 김경수

● ● ● 우수단원들의 기량 개발과 새로운 협주곡의 정착을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II'로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기존의 창작품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김철호 지휘로 관악기와 현악기의 독자적인 음색과 협연자들만의 음악적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무대이다.

첫 무대는 오상훈이 협연하는 정대석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로 연다. 수리재는 작곡자의 벗인 다정(茶丁)이 살고 있는 집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연과 벗하며 사는 친구 다정의 모습이 모두 3악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연주자 오상훈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와 동 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부산동보악회 동인으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

이어지는 해금협주곡 '공수받이'는 경기무속음악을 주제로 한 곡으로 해금의 가냘픈 선율과 관현악의 웅장함이 어우러지며 느리고 빠른 장단의 조화가 절묘한 곡이다. 연주자 이은주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 제례악 이수자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소리꾼 정선희는 '정정렬제' 판소리로 벗들과 호흡을 맞춘다. 부산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장원, 부산전국 국악대제전 명창부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선희는 전

북무형문화재 제2호 정정렬제 춘향가 이수자로 춘향가(2006년)와 심청가(2009년)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춘석 부수석의 편곡으로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정렬제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주자 윤경선은 박범훈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새산조'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새산조'는 중국의 '구친'이나 일본의 '고토' 연주자들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요즘은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피리 수석 김경수가 김만석 태평소 협주곡 '무녀도'로 장식한다. '무녀도'는 무녀도 속의 무녀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 음색을 가지고 있는 태평소의 느낌을 살린 곡이다. 연주자 김경수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대학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지휘)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 창원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입장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2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 ● 어린들에게 오케스트라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 눈높이 음악회 2012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가 7월 19일과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월과 2월, 앙상블 연주로 진행되었던 악기 그룹별 개별시리즈에 이은 종합편 무대는 현악, 관악, 타악기 등 오케스트라 가족들이 모두 합쳐진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선율과 웅장한 하모니를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구성으로 들려주는 무대이다.

지난해 종합편에서 '악기나라 올림픽'으로 재미를 선사한데 이어 올해는 어린이들이 악기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마을, 피리마을, 나팔마을, 타악기마을로 나누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지휘자와의 만남, 한마음 음악회 순서로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음악극 형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연희단 거리패 배우, 연습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변진호가 연출을 맡아 어린이들을 악기마을의 즐거운 음악회에 초대한다. 창작뮤지컬 '외로운 성' '진주대첩' '여의와 황세 그리고 유민공주'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박범진, 이형은, 안수빈, 고지용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맡아 음악극의 재미를 높여준다.

●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나라 올림픽' 모습



SCENE 1 | 바이올린마을

생일을 맞은 바이올린은 더블베이스로부터 활을 선물 받고 가족들과 다함께 연주를 시작한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악기마을 전체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고 어린 바이올린은 다른 악기가족들과 지휘자 선생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선다.

SCENE 2 | 피리마을

피리마을을 지나는 도중 바이올린은 키의 구멍이 막혀 울고 있는 플루트를 발견하고 플루트를 도와준다. 플루트는 피리가족들도 오케스트라 연주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SCENE 3 | 나팔마을

나팔마을로 향하던 바이올린은 어색한 금관앙상블의 소리를 듣게 되고 트럼펫이 마우스피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트럼펫은 바이올린의 도움으로 마우스피스를 찾게 되고, 나팔가족들도 오케스트라 연주에 함께 하겠다고 한다.

SCENE 4 | 타악기마을

타악기마을에 도착한 바이올린은 아이들을 잃어버려 울고 있는 마림바를 도와 탬버린, 캐스터네츠, 작은북을 찾아준다. 마림바는 오랜만에 열리는 연주회 소식에 기뻐하며 타악기가족들도 음악회에 함께하기로 한다.

SCENE 5 | 지휘자와의 만남

바이올린은 마침내 지휘자 선생님을 만난다. 지휘자 선생님은 흔쾌히 내일 오후 7시, 숲속광장에서 열리는 연주를 도와주기로 한다.

SCENE 6 | 한마음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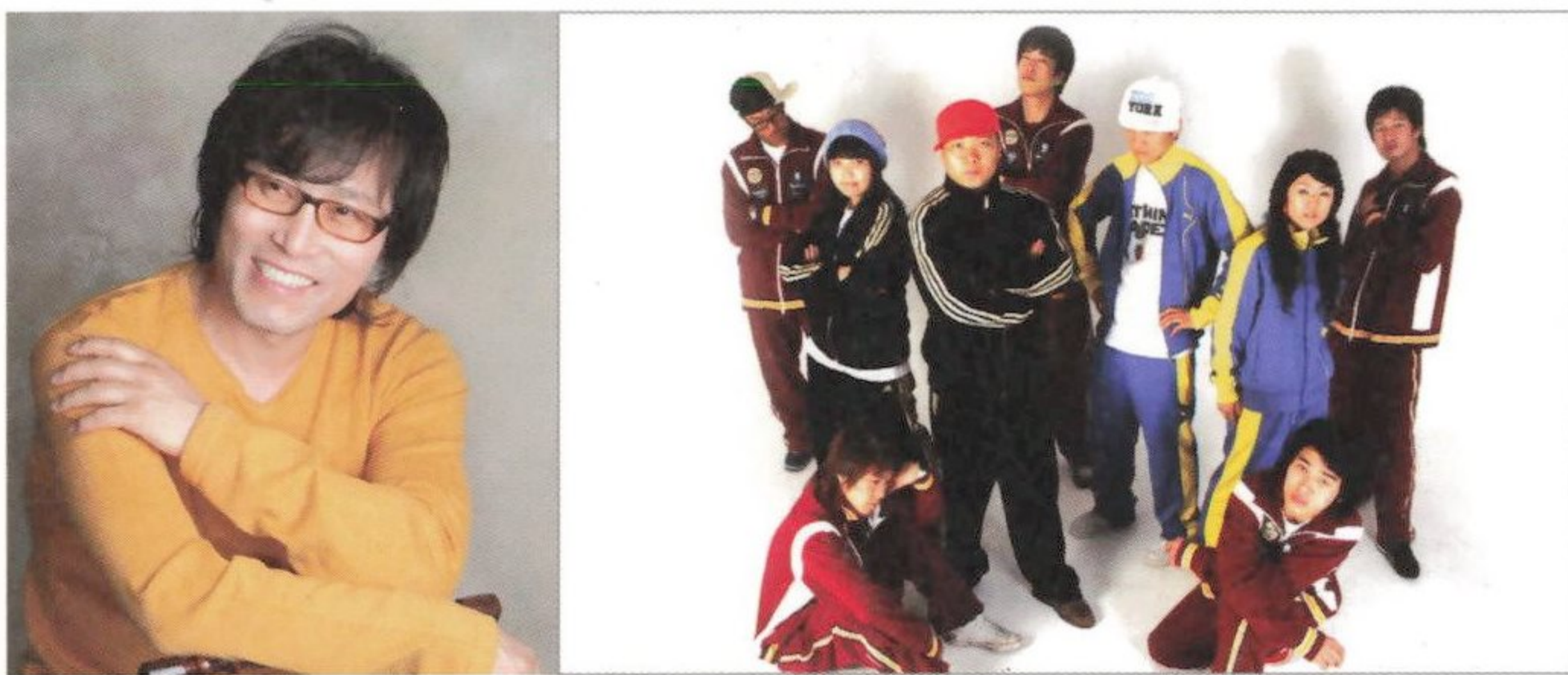
바이올린마을, 나팔마을, 피리마을, 타악기마을의 모든 친구들이 모여 한마음 음악회를 연다.

입장권 : 균일 2천원(30명 이상 단체 1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무용단 2012 여름마당춤판 방귀쟁이 며느리

|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8:00 |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우천시 대극장) |



수석 안무자 홍기태

특별출연 스텝크루

● ● ● 매년 여름 우리 고전을 새롭게 해석해 부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2012년 무대가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레퍼토리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 연출가 황해순 콤비가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방귀쟁이 며느리'.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는 친근함과 해학으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방귀쟁이 며느리'는 조선시대 억압된 규범과 가치관 때문에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방귀를 끼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세대를 초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웃음 요소를 가미해 한여름밤 무더위를 씻어준다.

각색과 대본, 연출을 맡아 21세기에 맞는 방귀쟁이 며느리를 탄생시킨 연출가 황해순은 자신의 단점이자 콤플렉스인 방귀 때문에 자신 안으로 숨어버리는 주인공 '봉순'을 탄생시켰고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봉순의 콤플렉스를 풀어내기 위해 여러 한국적인 상징 요소를 춤으로 표현해냈다.

열고 닫음으로 소통과 단절을 표현하는 한옥의 창문은 창살의 무늬가 정확히 규격화되어 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시킨다. 이는 자신을 틀에 가둬버린 봉순이의 억압과 해방을 표현한다. 해방으로 인해 자신을 진심

으로 사랑하게 된 봉순이의 심리변화는 몸짓, 언어, 표정 등 여러 요소를 통해 표현되고 관객들은 억눌린 봉순이의 심정을 공감하고 방귀가 크게 터지는 순간 봉순이의 방귀소리만큼 속이 확 뚫리는 시원함과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감사 안으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된다.

특히 올해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보이 그룹 스텝크루(STEP CREW)가 특별출연,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김시현(며느리 봉순이), 권봉정(뽕뽕이), 이정식(시아버지), 이현숙(시아머니), 이성원(방귀친구), 황동하(신랑)를 비롯해 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들이 출연한다.

● 2011 여름마당춤판 '효녀심청' 중 한 장면



입장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Concert 'Summer Fantasy'

| 7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수석지휘자 오세종

연출가 박흥영

6월 22일 취임연주회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오세종 수석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여름 프로그램인 POP합창음악회로 7월, 다시 만난다.

가요 합창음악회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POP합창음악회'는 우리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팝 음악을 합창으로 편곡, 청중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즐거운 합창의 기쁨을 선사하는 무대이다.

올해는 'Concert-Summer Fantasy, 콘서트-썸머 판타지'라는 타이틀로 기존의 POP합창음악회 컨셉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Soul(영혼), Body(몸짓), Love(사랑), Joy(기쁨)의 4가지 테마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펼친다.

Soul 무대의 또 다른 제목은 'Spritual'로 아카펠라로 다소 차분한 시작을 알린다. My Lord, What a Morning(주여, 아침입니다)와 흑인 영가 메들리, Rock-a-my Soul(내 영혼의 반석)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Body(몸짓) 무대의 또 다른 주제는 'Dance'. Body(몸짓)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신나고 경쾌한 무대 연출로 ABBA의 'Dancing Queen', 설운도의 '상하이 트위스트'와 영화 음악으로 알려진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와 '셀 위 댄스' 중 'Sway'가 흥겹게 펼쳐진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Love(사랑)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닥터 지바고'와 '남태평양'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가 부산시립합창단원들의 화음으로 아름답게 재탄생되고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을 작곡한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뮤지컬 메들리가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Joy(기쁨)의 무대로 화려한 Pop 과 Jazz의 향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Concert 'Summer Fantasy'는 현재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연출자 박흥영의 연출로 이루어진다. 연출자 박흥영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평화콘서트, 인순이의 청년음악회 '꿈', 세종문화회관 제야콘서트, 조수미 데뷔 25주년 기념 '파크콘서트' 등 유명 연주인의 무대연출을 맡았다. 연출자 박흥영 외 테너 조영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홍광현, 드러머 김진훈, 기타리스트 김정태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입장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창단 5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2012 중국순회연주회 성공기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 7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김봄소리

● ● ● 8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중국 순회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중국순회 연주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출발에 앞서 7월 31일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위해 '2012 중국순회연주회' 오프닝 무대를 갖는다.

수석 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중국순회연주회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떠오르는 샛별,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작곡가의 정서와 개성이 드러나는 명곡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6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김봄소리는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을 사사하고 있다. 예원학교 재학 시 금호영재로 한국 음악계에 데뷔한 김봄소리는 한국일보 콩쿠르 1위, 부산음악 콩쿠르 1위, 이화경향 콩쿠르 2위, TBC 대구방송 콩쿠르 1위,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1위, 만해 축전 콩쿠르 1위, 커티스 영아티스트 오디션 위너 및 스타인웨이상 수상, 2009년 제1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의 바이올린 부문 영재상을 수상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연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0 시벨리우스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입상한 김봄소리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차이나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과 Classical Music Prize와 Lin Yao Ji 재단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Lin Yao Ji Prize을 함께 수상, 중국 칭다오와 샤먼,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시에서 투어 연주를 가진 바 있다. 김봄소리가 들려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38세 때인 1903년에 발표되었다. 한 때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벨리우스 스스로가 자신만만해 한 만큼 근대 바이올린 곡 중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매우 빼어난 작품이다.

김봄소리의 협연무대에 이어 연주시간이 55분에 이르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0번'을 들려준다. 소비에트 혁명 후 망명을 가지 않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쇼스타코비치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에 교향곡 제9번을 발표했으나, 대중과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1948년 소위 '제2회 작곡가 비평사건' 당시 프로코피예프 등과 함께 당국으로부터 '형식주의적, 서구 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창작 태도를 반성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사건이후 8년 만에 발표한 제10번은 뜻밖에도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 제9번과 함께 스탈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본인의 감정과 정서가 섬세하게 표출된 작품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는 유명한 5번보다 이 10번을 명곡으로 꼽기도 한다. 하차투리안은 곡의 내용을 이루는 격정의 충돌과 드라마틱한 긴장을 '낙관적인 비극'이라며 이 작품의 진리를 높이 평가했다.

입장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반갑습니다

국립발레단 수석 발레리나

김지영

전 세계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클래식발레의 정수 '백조의 호수'를 단연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오데트의 자태이다.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아름다운 오데트 발레리나 김지영이 7월 13일과 14일 국립발레단 초청 '백조의 호수'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이런 전막 발레로 부산을 찾는 것이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10살 때 우연히 발레를 시작한 김지영은 14살에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에 입학했고 18살에 최연소로 국립발레단에 입단하며 오랜 시간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로 명성을 이어왔다. 2001년까지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로 활동하다 2002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으로 자리를 옮긴 김지영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백조의 호수> <지젤> <호두까기 인형> 등의 클래식 발레와 발란신을 비롯한 한스 반 마넨, 윌리엄 포사이드 등의 컨템포러리 작품을 고루 소화하며 갈채를 받았다.

1998년 USA 국제 발레 콩쿠르 여자 동상, ‘최고의 무용연기상’ 수상, 파리 국제무용 콩쿠르 듀엣 1위(파트너 김용걸)를 비롯해 2001년 한국 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수상, 러시아 카잔 국제발레콩쿠르 여자 은상, 베스트예술상 수상, 2007년 네덜란드 알렉산드라 라디우스상 (Alexandra Radius Prize) 등 굵직한 상을 휩쓴 김지영은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이름을 높이던 김지영은 2009년 국립발레단 최태지 단장의 러브콜을 받고 7년 만에 국립발레단으로 복귀해 지금 절정의 무대로 다시 발레붐을 일으키고 있다. 1978년생인 김지영은 올해 34세. 현역 발레리나로는 적은 나이가 아니다. 김지영의 국내 무대 복귀는 절정의 아름다움을 고국팬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그의 바람과 그를 지켜보는 후배, 동료들에게 꿈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의 진가는 무대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최근 나이를 의식하는 질문들이 많지만 그는 자신의 나이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같은 작품이라도 나이에 따라 느끼는 감정,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대는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배역에 따른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오게 되어있죠. 그렇기에 그 사람의 인생경험과 생각이 춤에서 고스란히 표현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같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나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무대에서 기적이란 없다’라는 말을 언제나 좌우명처럼 되뇌는 김지영은 최고의 무대는 최대의 연습에서 나오는 만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동안 슬럼프가 올 때 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 더 힘든 점도 있었다는 그는 또 한편으로는 그를 지켜봐주는 관중들 때문에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중단할 수 없었다.

“저는 제가 최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이 세상에는 최고가 너무 많지요. 저도 그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최근 그는 유럽을 오가는 바쁜 공연 일정이지만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라는 직책 외 국립발레단 국립발레아카데미 교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되기 위해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는 후배,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최태지 단장님의 권유가 가장 컸습니다. 또 제가 평생 춤을 출 수도 없죠.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김지영이 있듯이 이제 조금씩 저의 춤을 후배, 제자들에게 전해줄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 힘들지만 아카데미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앞으로 발레아카데미 활동에 전념하면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 국립발레단의 정기공연, 지방공연, 해외공연을 소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산 무대에서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아름다운 음악과 세트, 뛰어난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임을 강조하는 그는 최정상 수준의 국립발레단과의 환상적인 만남, 오데트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부산시민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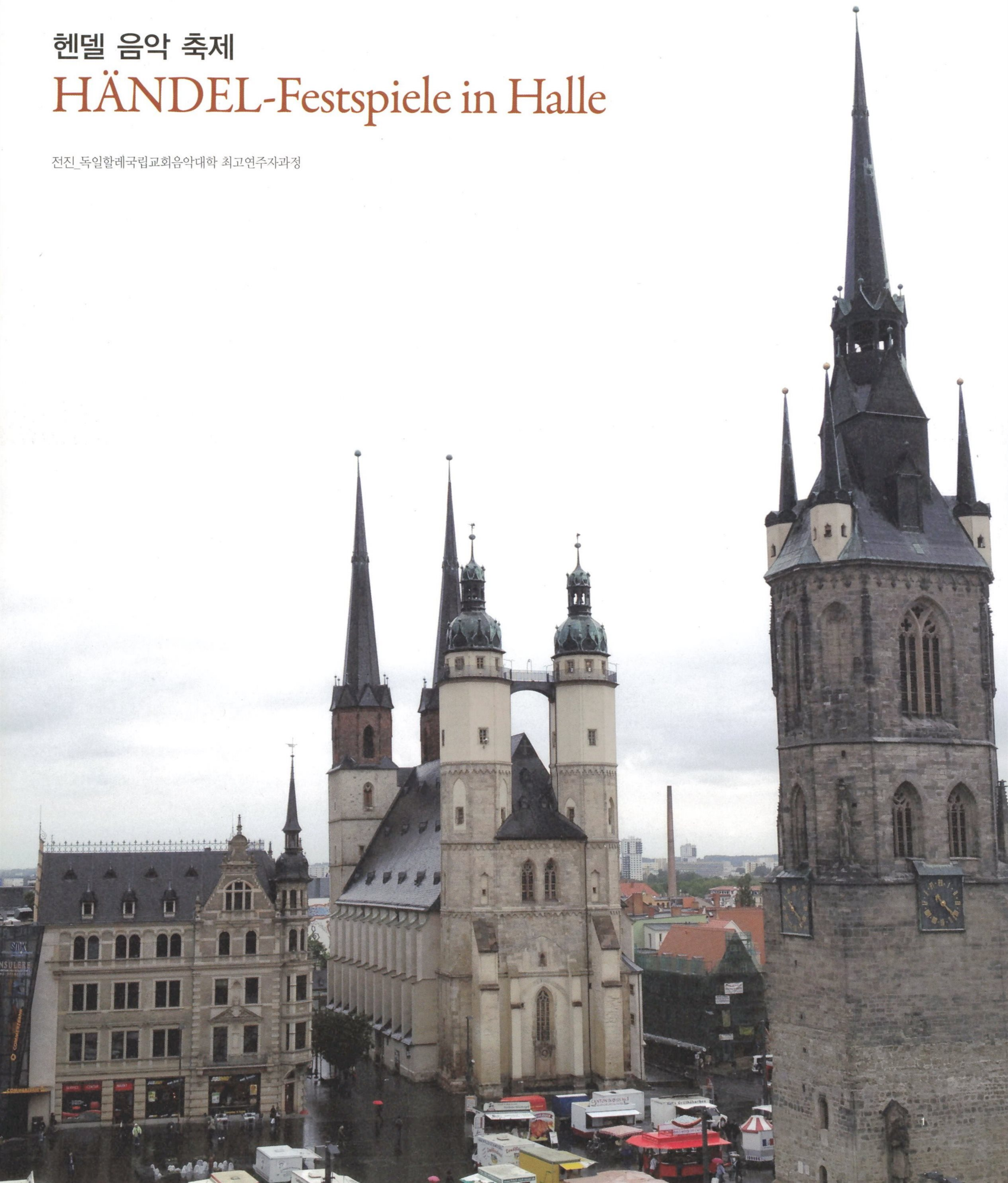
다음 생은 평범한 여인의 삶을 그려볼 때도 있다는 김지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자태와 카리스마로 관객을 압도한다. 무대를 내려오면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받는 수줍은 여인으로 돌아가는 김지영. 한층 더 성숙해진 그의 무대, 그의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오데트와 오딜을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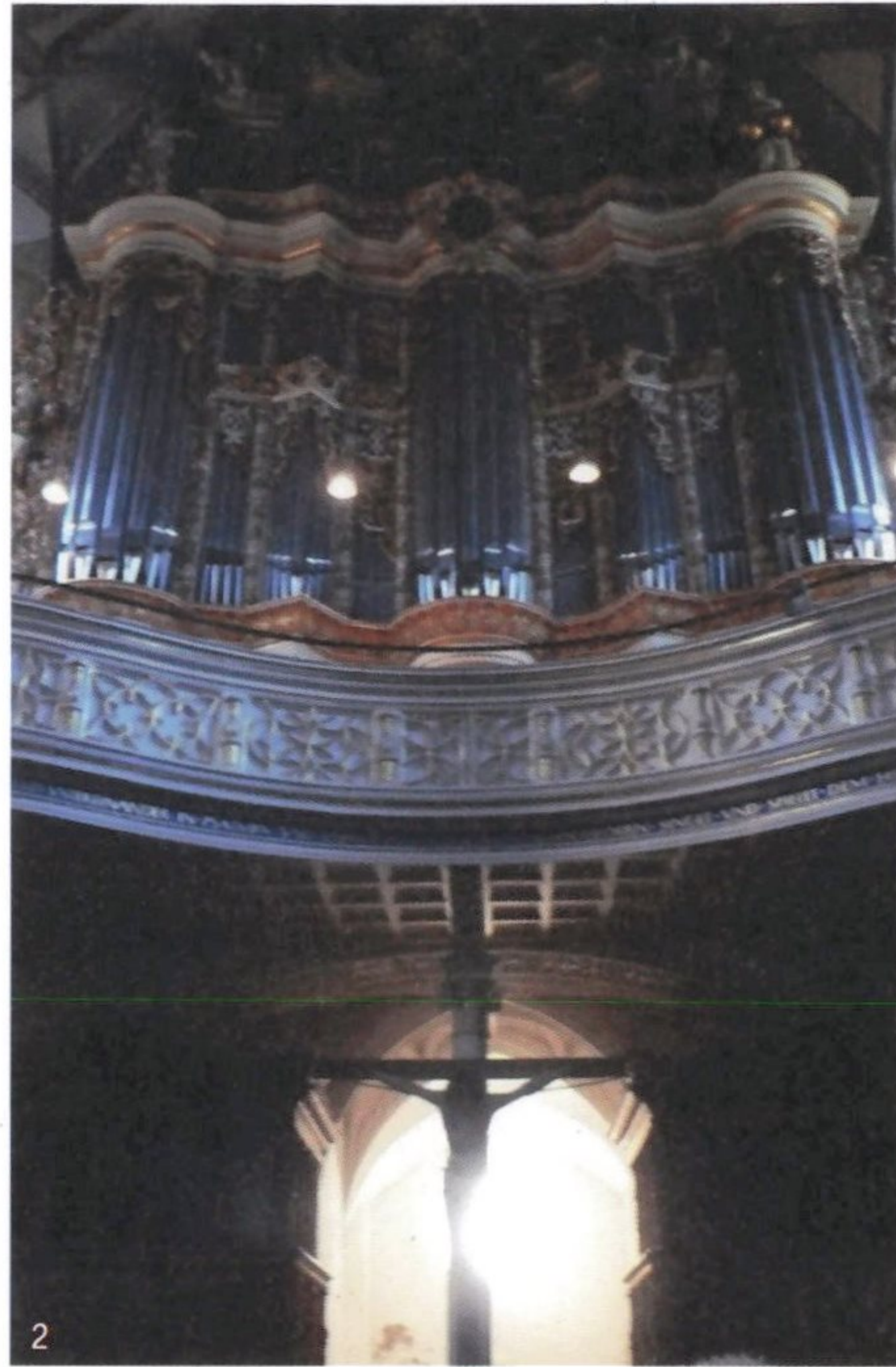
헨델 음악 축제

HÄNDEL-Festspiele in Halle

전진_독일할레국립교회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1. 할레의 고풍스런 시가
2. 바흐 헨델이 연주한 마르크트 교회
3. 할레의 상징 헨델동상



할레(Halle)는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에 있는 중소도시로 인구는 234,295(2007)명 정도. 엘베 강의 지류인 잘레 강 연안에 위치해 있는 할레는 라이프치히에서는 서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다. 할레를 중심으로 청동기와 철기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할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16세기에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고 그 후 1694년 할레대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대학은 비텐베르크의 대학과 합병하여 현재 할레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로 이어져오고 있다.

할레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년 2월 23일 ~ 1759년 4월 14일)이 태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에 귀화한 헨델의 도시라는 이유로 폭격을 거의 받지 않아 지금까지 오래된 구시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고풍스러운 도시이기도 하다.

내가 머나먼 독일의 할레로 오게 된 이유는 할레의 국립교회음악대학(EHK)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하기 위해서이다. 독일은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이며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음악 뿐만 아니라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배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립음대는 학비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교수님들께 독일의 음악 뿐 아니라 문화까지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있다.

독일의 한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마르크트 교회에서 연주가 있어 오르간 반주를 했었는데 내가 반주한 오르간이 바흐가 연주했던 오르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헨델도 그 교회에서 연주를 자주 했었다는 사실은 음악도인 나에게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음악사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던 것들이 독일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온 몸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어 좋다.

매해 여름이 되면 이 곳 할레에서는 헨델음악축제가 시작이 된다. 헨델음악축제는 1922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깊은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이번 2012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1,000여명의 음악가들이 축제에 참여해 30여개의 공연장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이 펼쳐졌고 40,000명의 관객들이 할레를 찾았다.

올해 헨델음악축제에는 스위스 바젤 캄머오케스트라, 함부르크 바로크오케스트라, 베를린 라우텐콤파니아, 보젠 바로크양상블, 독일 라모라, 스페인 알아이레 오케스트라, 스웨덴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스페인 국립콘서트 오케스트라, 베를린 고전음악 아카데미, 이스탄불 페라양상블, 프랑스 르타레 리뤼퀴, 오스트리아 비엔나 바흐콘소르트, 베를린 RIAS 방송합창단, 라이프찌히 MDR방송 오케스트라, 오르페오 바로크오케스트라, 할레헨델축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할레 슈타츠크펠레 등 바로크 고전 음악의 최고 수준 오케스트라들이 초대되었다.



4, 5, 6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린 할레 '헨델음악축제'. 올해는 4만여명의 청중들이 할레를 찾았다.

지휘자로는 프랑스 출신으로 1996년 헨델의 오페라 '리차르도 프리모(Ricciardo Primo)'로 독일 음반상을 받은 크리스토프 루셀(Christophe Rousset), 스페인 출신의 음악학자이며 고전악기 감바 연주자 겸 지휘자로 2010년 국제음악 평화상을 받은 조르디 사발(Jordi Savall), 독일 음반상과 에코 클래식 수상자인 헤르만 막스(Hermann Max), 영국 출신의 쾰른국립음대 교수이며 독일 남부방송합창단 지휘자로 2010년 유럽교회 음악상과 에코 클래식을 두 차례 수상한 마르쿠스 크리드(Marcus Creed) 등이 초대되었다.

독창자로는 세계적인 카운트테너 프랑스의 필립 야루스키(Philippe Jaroussky)와 불가리아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Vesselina Kasarova),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2004년부터 드보르작 국제콩쿠르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베이스 박기현이 헨델 오페라의 주역가수로 초대되었다. 또한 헨델 축제오케스트라(Händelfestspielorchester)는 고전 악기와 정격연주 기법을 통해서 현시대의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들려주었다.



6

HÄNDEL Festspiele in Halle

베이스 박기현이 헨델음악축제에 초대된 이후 할레에서 한국인의 음악 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할레 마틴루터 종합대학과 교회 음악대학이 공동주최한 제2회 할레음악콩쿠르에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김주연(29)씨가 우승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주연씨는 6월 14일 마틴루터대학 아우라에서 수상자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음악회는 심사위원이었던 관록의 지휘자 헤리베르트 바이셀(Heribert Beissel) 씨가 직접 슈타츠키펠레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7번 내림나장조를 연주했다.

김주연 씨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연주가 올려지는 연주홀의 음향을 감안하여 활기 넘치는 모차르트의 곡으로 정했다고 한다. 심사위원장인 바이셀 씨는 콩쿠르에 참여한 김주연 씨의 연주에 대해 '마음을 움직이는 최

고 수준이었다'고 평했으며 이번 수상자 음악회 외에도 특별히 자신이 상임지휘자로 있는 본 클래식필하모니의 12월 독일 11개 도시 순회음악회의 협연자로 김주연 씨를 발탁했다. 이번 순회음악회는 12월 2일 함부르크를 시작으로 비스바덴, 뉘른베르크, 뮌헨, 슈투트가르트, 브레멘 등을 거쳐 12월 19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음악회가 진행된다. 모든 도시들을 대표하는 메인 연주홀에서 이루어지는 큰 음악회, 큰 무대에서는 우리 음악인들이 자랑스럽다.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오텔로 下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베르디가 가장 사랑한 작가 셰익스피어

주세페 베르디(1813-1901)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다. 그는 북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여인숙집 아들로 태어났다. 18세 때 밀라노 음악원의 입학시험을 보았으나 실패하고 개인교수를 받아 작곡공부를 시작했다. 스물여섯 살에 오페라 작곡을 의뢰받아 다소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내 아들과 처를 차례로 잃어버린 데다, 오페라 부파 <하루 만의 임금님>이 무참히 실패하여 자신감을 잃은 그는 한때 작곡을 단념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원조와 조언에 힘입어 1842년부터 1850년에 걸쳐 14곡의 오페라를 썼다. 장대한 베르디 음악 세계의 1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그는 <나부코>, <롬바르디아인>, <에르나니>, <잔 다르크>, <맥베스> 등을 발표하며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압제 하에 있었던 이탈리아인들의 기분을 대변하고 이들에게 애국주의를 주입함으로써 오페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이탈리아 애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

베르디가 원숙한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은 2기 즉, 1850년 이후의 일이다. 1850년 서른일곱 살의 베르디가 40일 동안 단숨에 작곡해낸 <리골레토>는 이듬해 3월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어 오페라 사상 드물게 보는 영광을 누렸다. 이후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등 소위 베르디의 '빅3'를 통해 그는 독특한 선율미와 극적 구성력을 마음껏 구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정립하였고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우뚝 선다.

3기는 <가면무도회>, <운명의 힘>, <돈 카를로> 등이 대표작인데, 애국주의보다는 어떤 정황, 또는 환경에서의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무게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후 은퇴했던 베르디는 다시 작곡을 시작하여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 등 만년의 대작을 쓴다. 이 4기는 바그너 등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면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한

시기이며,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무대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시기이다.

<아이다>로 위대한 성공을 거둔 베르디는 이 작품이 자신의 최후를 장식할 마지막 걸작이 될 것이라 여기고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칩거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에 젖어 사람들의 방문조차 달갑지 않게 여겼던 그에게 꼭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리고 보이토'였다. 보이토는 베르디보다 스물아홉 살이나 어리지만 이미 <메피스토펠레>라는 오페라로 이름을 날린 작곡가일 뿐 아니라 대본가로서도 탁월했다. 그는 <오텔로>를 각색했지만 자신의 작곡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베르디에게 이 대본을 보여주며 작곡을 부탁한다. 보이토의 치밀한 구성은 이내 베르디의 흥미를 끌었고 대본을 검토하면서 이아고의 묘사에 매혹되기 시작했다.

영감에 사로잡힌 거장은 결국 다시 펜을 든다. 7년간 이어진 길고 긴 작업 끝에 1887년 라스칼라에서 '오텔로'의 역사적인 초연무대를 가졌다. 관객들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의 인물이 된 베르디의 또 하나의 작품을 보는 기쁨 뿐 아니라 위대한 걸작의 탄생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열광했다. 오페라가 끝난 뒤 베르디가 묵고 있는 호텔에까지 청중들이 밀려와 밤늦게까지 그를 발코니로 불러내어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오페라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초연 후 당시 신문들은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한 전혀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적인 숨결은 이 작품을 접하는 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만다. 구성은 언뜻 보기에 바그너 식 같지만 시도 동기의 모습은 별로 발견되지 않아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오페라로서 일관하고 있다"고 절찬하고 있다.

베르디는 평생 셰익스피어에 매료되었다. 젊어서부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배계 밑에 두고 잤다고 한다. 그러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드는 일은 그에게는 평생의 목표였을 것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기초로 한 것은 말년의 역작 <오텔로>와 <팔스타프>, 그리고 비교적 젊은 시절의 <맥베스> 세 작품만 남긴 것은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진가를 살릴 만한 좋은 대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베르디의 <오텔로>는 종래의 변호 오페라 전통에서 완전히 탈피한 혁명적 양식을 갖고 있다. 각막 안에서 음악들은 거의 완벽하게 연결되며, 이는 멜로디의 미묘하고도 유연한 흐름과 관현악의 연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특히 <오텔로>의 관현악은 성악선율에서 해방되어 음악의 흐름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 뿐 아니라 독립된 전개를 펼쳐 보이면서도 음악과 극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바그너적인 음악극에 대한 베르디식의 답변인 <오텔로>에 대해 버나드 쇼는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이탈리아식으로 쓰인 희곡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의 제의적 비극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오페라가 추구해야 할 근본이념이며, 오페라 역사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급진적인 테제는 19세기 오페라 작가들의 고민과 모색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감상적인 아리아와 화려한 기교로 가득한 종래의 관습적 오페라는 음악과 극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근원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당대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 또한 '음악과 극의 유기적 일치'라는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였다. <오텔로>는 베르디가 고민해온 인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휴먼 드라마를 완성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던 그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 사상 최대의 작곡가이다. 소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밟아 오케스트라 및 연극적 효과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오페라양식에 이상적인 완성을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가극의 장점인 성악적인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활용하면서도 극적 진실성을 존중한 개성적인 표현을 하였다. 비록 그의 작품이 때로는 전반적으로 반음계적인 음악어법보다는 온음계를 사용하고 멜로드라마 경향으로 일반 민중의 취향을 전달한다는 비난을 받지만 베르디의 위대한 작품들은 지금까지 오페라 공연 목록을 장악하고 있다.

● 주세페 베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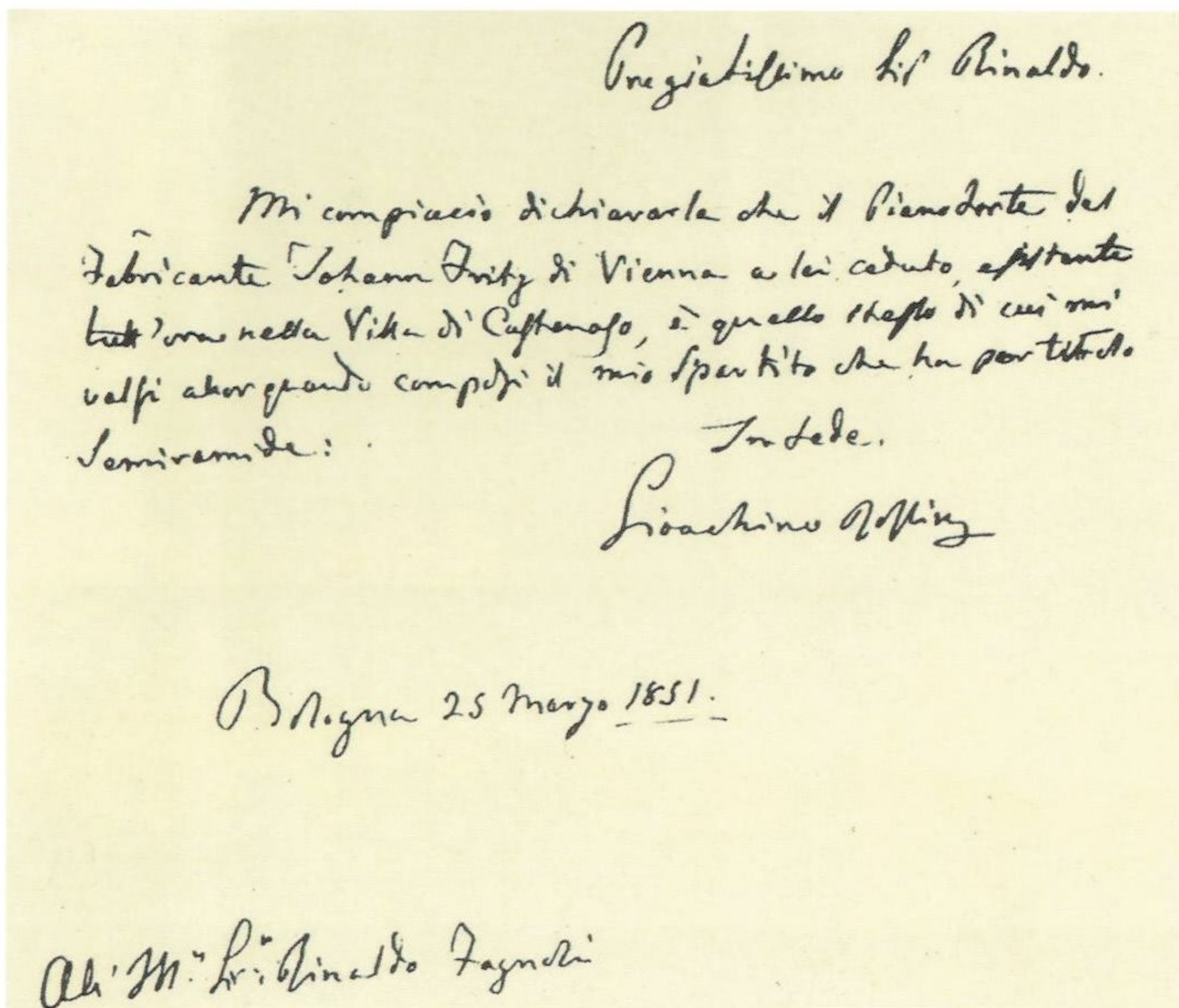


● 오페라 오텔로의 한 장면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오페라 발표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로시니의 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아노와 관련된 그의 자필 선언서. '요한 프리츠의 피아노가 세미라미데를 작곡하는데 사용했다' 라고 써여 있다.

산 카를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의 취향을 안전하게 해석하는 성악가들과 로시니는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를 통해 비극적이고 신성한 오페라의 가능성과 등장인물 속에 세워놓은 합창의 수용력을 개발한다는 숭고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집트의 모세'는 1818년 완성하여 초연했으나 이듬해인 1819년 수정하여 다시 무대에 올렸다. 1818년의 초연악보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둠의 역병을 끝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의 아리아가 제3막에 나오지만 1819년의 수정본에서는 이 아리아로 오페라가 시작된다.

로마의 아르헨티나 극장에서 상연된 오페라 '보르고냐의 아델라이데'와 베네치아에서 상연된 오페라 '에두아르도와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관객

들에게 기다림을 선물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기존에 존재했었던 제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에두아르도와 크리스티나'는 '보르고냐의 아델라이데'와 '리치아르도와 조라이데' '에르미오네'를 혼합하여 만든 곡이었다.

로시니의 고향인 페사로는 오페라 극장 재건을 축하하기 위하여 '도둑까지' 상영을 계획하고 주최자로 로시니를 초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귀향에서 로시니는 몇 마디의 답변 후 목에 난 매우 심각한 염증으로 침대에 드러눕게 된다. 당시 나폴리와 파리의 신문지상에는 그의 소식을 사망이라고 추측 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에르미오네'와 '모세'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당시 한 기사는 때때로 지나치게 시끄러운 심포니를 대중들에게 제공하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목소리보다 우위에 있는 '튜튼주의'에 대한 비난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비난은 '에르미오네'로 가중되었다.

1819년 이미 슈베르트가 몇 개의 리트로 음악화한 시 '호수의 여인'은 로시니에 의해 2막의 이탈리아어 오페라로 탄생한다. 월터 스코트 경의 시를 기초로, 작곡가가 안드레아 레온 토톨라와 함께 대본을 작성하였다. 로시니는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앵거스 백작인 더글라스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간의 권력 투쟁을 오페라 안에서 묘사한다. 이 작품은 생생한 농축과 낭만적인 줄거리로 사냥 호른 소리와 신비한 하프 소리, 큰 규모의 합창과 악단의 소리가 무대 안과 무대 밖에서 드러난다. 오페라 '호수의 여인'은 월터 스코트의 낭만적인 작품들 중에서 기초가 된 첫 번째 작품이다. 비록 오늘날 스코트의 작품 중 도니제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가장 유명하지만, 오페라 대본의 기초로서 스코트의 인기는 로시니의 작품 이후 빠르게 확장되었다. 1840년까지 '호수의 여인' 발표 이후 21년간 스코트의 작품에 기초하여, 적어도 25개의 이탈리

아어 오페라가 작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권 작곡가들에 의한 것들이 있다. 초연에서 오페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으나, 뒤따르는 공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작품은 뒤이어 12년간 산 카를로 극장의 고정 공연 목록으로 남았다. '호수의 여인'이 작곡된 후 5년간, 이탈리아 전역과 드레스덴, 뮌헨, 리스본, 빈, 바르셀로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런던 등에서 공연되었다. 물론 로시니는 콘트라alto인 피사로니에게 첫번째 해석을 맡겼음은 물론이다.

한편 펠리체 로마니는 파리 극작가 앙트완느 아놀르의 비극 '블랑슈 에몽카생 오 레 베니티앙'을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어 로시니와 1819년 12월 스칼라 시즌을 축하하는 오페라 '비앙카와 팔리에로'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그해에 작곡된 네 번째 오페라로 이 오페라는 1986년 페사로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된다.

나폴리의 바르바야와 콜브란 사이에 돌아온 로시니는 오페라 '마호메트 2세'와 오페라 '젤미라'를 작곡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산 카를로에서 가스파르 스포티니의 '페르난도 코르테즈'를 지휘하는 경험을 한다. 1822년 콜브란이 로시니의 아내가 되고 콜브란의 '젤미라'는 특별한 승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당시 교향곡 '영웅'에 심취해 있던 로시니는 베토벤을 방문하게 된다. 음악학자 쥘세페 카르파니와 함께 로시니는 비참한 다락방의 계단을 올라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관하여 열렬하게 칭찬하는 독일 작곡가(물론 베토벤은 음악을 듣지 못하고 악보를 읽기만 할 수 있는 상태)의 집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 오페라가 신빙성 있는 드라마를 취급하기에 충분한 음악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이는 베토벤과 그가

쳐한 경제적 궁핍에 실망한 로시니는 베네치아로 돌아와 1823년 페니체에서 볼테르의 비극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 비극적 멜로드라마 '세미라미데'를 작곡하였다. 대본은 오페라 '탄크레디'의 가에타노 로시였으며 주인공은 '콜브란'과 '로자 마리아니' 그리고 '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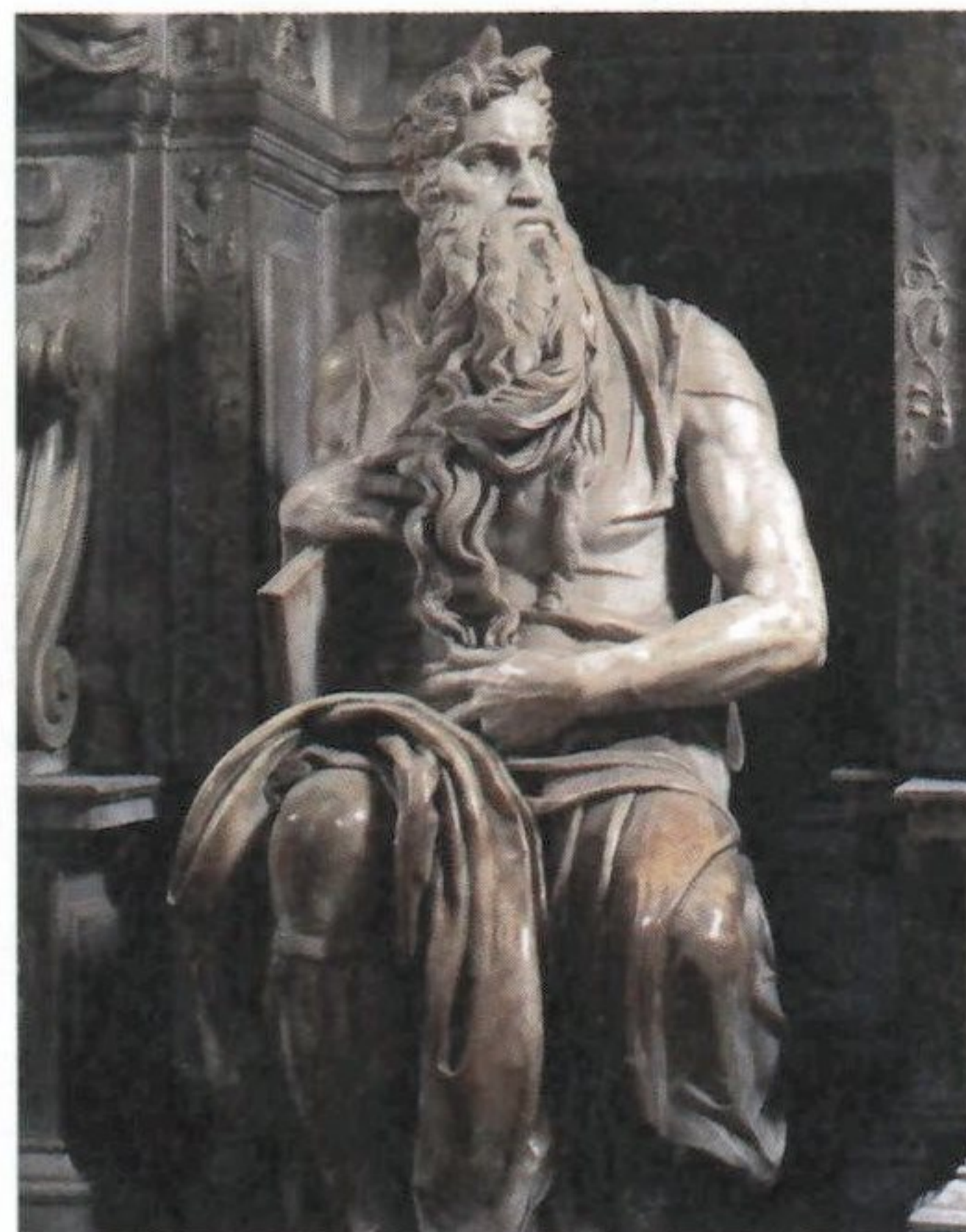
로시니가 가장 원숙할 무렵에 작곡된 '세미라미데'는 바빌론의 왕비 '세미라미데'의 이야기이다. 세미라미데는 아수르와 결탁하여 남편이자 왕인 니노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는다. 그녀는 신탁을 받아 왕위 계승자를 정해야 하는데 세미라미데 자신은 젊은 장군 아르사체와 결혼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싸움터에서 은밀히 그를 부른다. 그러나 아르사체는 젊은 공주 아제마를 사랑하고 있다. 무덤에서 나온 선왕 니노의 유령이 아르사체를 찾아와 그가 자신과 세미라미데의 아들이라 말하고 아수르와 세미라미데가 자신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아르사체가 바빌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니노의 무덤 앞에서 아수르와 대결하는 아르사체 앞에 세미라미데가 나타난다. 혼전 끝에 아수르를 찌르려던 아르사체의 칼이 어머니 세미라미데를 향하고 만다. 아르사체는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군중들은 환호한다.

그의 작품 중 가장 길이가 긴 오페라 '세미라미데'는 야심에 찬 이탈리아 시기 로시니의 최고 걸작이지만 보수적인 베네치아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고 결국 그는 조국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는 작품을 쓰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조국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오늘날 많이 상연되지는 않으나 이 오페라의 서곡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로시니의 오페라 세리아 종류에 있어서 로시니의 최대의 걸작이라 말할 수 있다.

● 오페라 '세미라미데' 중 한 장면



● 산 피에트로 성당에 있는 모세상 (Michelangelo작) ● 흥행주 바르바야의 초상화



장에 가는길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나룻배타고 장시로(‘風俗畫帖’ 중 ‘나룻배’)

“남이 장에 가니 씨오쟁이 짊어지고 따라 나선다”는 속담이 있다.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남의 장단에 따라 춤추는 경우를 말한다. 씨오쟁이란 농가에서 씨앗을 담아메고 씨를 뿌리는 망태기다. 밭에서 씨야할 것을 메고서 장터에 간다는 말이니 그만큼 즐거운 일에 덩달아 나선다는 뜻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도 많이 한다. 어떤 일을 바라고 가거나 했는데 아녜데도 요행히 좋은 상황이 된 경우(긍정적)이거나, 또는 마음먹고 가거나 했는데 좋지않은 상황이 된 경우(부정적)를 말한다. 또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서 호령한다” “장꾼은 하나인데 풍각쟁이가 열둘이라” 등등 이렇게 장(장시, 장터)에 관한 속담이 생활속에서 많이 쓰이듯이 장시는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공간이다. 볼 것, 살 것, 먹을 것이 많은 잔치판이자 놀이판이었기 때문이다. 사당패들이 재주를 넘고 씨름이나 투전을 하기도 하며 때론 얼큰하게 취한 장꾼들의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장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모양이다. 오늘날이야 7일 단위로 생활하지만 예전엔 5일간이 생활주기였다. 그래서 장날도 닷새마다 열렸다. 그 이전에는 보름 내지 열흘만에 열린 적도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하면서 바뀌었다.

지금은 시장이라 부르지만 원래 우리 말은 장시(場市)였다. 장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라 여러 기능이 있었다. 장날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었다. 서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문후를 묻고 소식을 교환하며 인정을 나누곤 하였다. 조선 후기엔 왕의 윤음이나 정부의 정령을 수령이나 암행어사들이 장시에서 알리는 장소로 활용했는데 아전들이 방(榜)을 붙이거나 직접 읽기도 했다. 동시에 백성들의 동태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괘서(掛書)나 벽서(壁書)를 붙여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801년 10월 경상도 하동 두치장에 괘서사건이 있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 종이끈으로 매달린 명주바탕에 다음과 같은 대자보가 적혀 있었다.

“문무의 재예가 있어도 권세가 없어 실업한 자는 나의 부름에 응하고 나의 창의에 따르라. 정승이 될만한 자는 정승을 시킬 것이고, 장수가 될만한 자는 장수를 시킬 것이며, 가난한 자는 풍족하게 해주고, 두려워하는 자는 숨겨준다.”

이와 비슷한 과거사건이 경상도 창원, 인동에서도 일어났다(〈순조실록〉 원년 8월 5일). 당시 정국의 변화나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라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민심을 자극하고 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아서 지배층은 저으기 경계를 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가 가혹해지자 1919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중들의 대열과 함성은 모두 장날을 이용하여 터져 나갔다. 이처럼 장시는 민심이 그대로 꿈틀거리는 마당이었다.

오늘 감상할 그림의 소재는 장에 가는 사람들이다. 먼저 나룻배(〈風俗畫帖〉 일부, 종이담채, 27×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이다. 시원스레 펼쳐진 강물을 가르며 경쟁이라도 하듯 나란히 배가 밀려가고 있다. 두 척 가운데 화면 앞쪽과 뒤쪽 사이에 배와 인물의 크기로 보아 약간의 원근감이 부여되어 있다. 앞쪽 배엔 점잖은 선비가 뱃머리에 앉아 진행하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데, 황소 한 마리와 말 두필이 보이고, 갓, 삿갓, 초립 등을 쓴 남정네, 총각들, 아이 업은 아낙, 뱃사공까지 모두 14명이 타고 있다. 뒤쪽 배엔 갓을 쓰고 장죽을 문 선비가 일행을 넌지시 보면서 앉았고, 역시 갓이나 삿갓 쓴 남자와 수건 쓴 아낙과 아이 및 두명의 사공까지 모두 12명이다. 무게균형을 위해 쪼그리고 앉거나 등에 나뭇짐을 실은 황소 두 마리를 반대로 세운게 흥미롭다. 장에서 팔 나뭇짐은 마주 앉아 담배피는 총각들이 해온게 분명하다. 이 정도의 사람과 짐승 및 짐을 실을 정도면 강나루배 치고는 제법 크다. 배타고 장터 길에 나선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은 것은 닷새만의 장날이 그렇게 기다려졌기 때문이다. 사람과 경물의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며 토속적인 느낌이 물씬하다.

다음은 부보상(종이담채, 27×38.5cm, 호암미술관 소장) 그림이다. 등짐을 진 두 행상이 성벽 밑을 걸어가고 있다. 앞서가는 사람은 패랭이를 쓰고 질빵을 메고가는 게 아마 부보상(負褓商) 같다. 뒤따르는 자는 댕기머리를 하고 있어 총각으로 보이며 함께 행상길에 나선 모습이다. 왼쪽 성벽은 막돌로 쌓은데 비해 오른쪽은 정연한 판석형 할석으로 쌓은 것으로 보아 성문이 있는 용성(甕城)임을 알 수 있다. 약간 오르막 길로 성문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보아 곧 성안 저자로 들어갈 참이다. 은은한 담채와 담묵의 붓치리로 배경을 간단하게 처리하며 동선(動線)을 느끼게 배려했다. 화면 왼쪽위에 단구(丹丘)라는 관서(款署) 아래 김홍도인(金弘道印)의 백문방인과 사능(士能)의 주문방인이 보인다. 회화기법이나 관서로 보아 50대에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장시를 요즘은 '재래시장'이라 부른다. 재래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넉넉한 인심, 물건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덤의 문화, 또 물건값을 애써 깎는 재미 등등 아무리 에누리없는 장사가 어디있겠나마는 이처럼 재래시장은 사람냄새 나는 장터의 공간이었다. 오늘날은 물질이 워낙 풍부하여 웬만한 물건은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대기업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편의점이 동네슈퍼를 쫓아냈고 프랜차이즈 빵집이 동네빵집을 몰아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도시의 동네시장은 물론 급기야 시골의 재래시장까지 모두 삼키고 있다. 논란거리가 있지만 여하튼 대기업만 배불리고 영세 상인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격주로 휴무하도록 조치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가. 또한 시골장을 살린다는 목표로 장터를 관광상품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방법일까. 장날의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재래시장의 구조개선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시장이란 사람과 사람, 상품과 상품(돈),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며 것처럼 소박한 장터인심이 묻어있는 곳이다. 오늘날 자본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재래시장이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판에 이들의 풋풋한 인심도 장터의 애뜻한 문화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공생의 논리가 진정한 사람다운 상인정신이다.

● 부보상(負褓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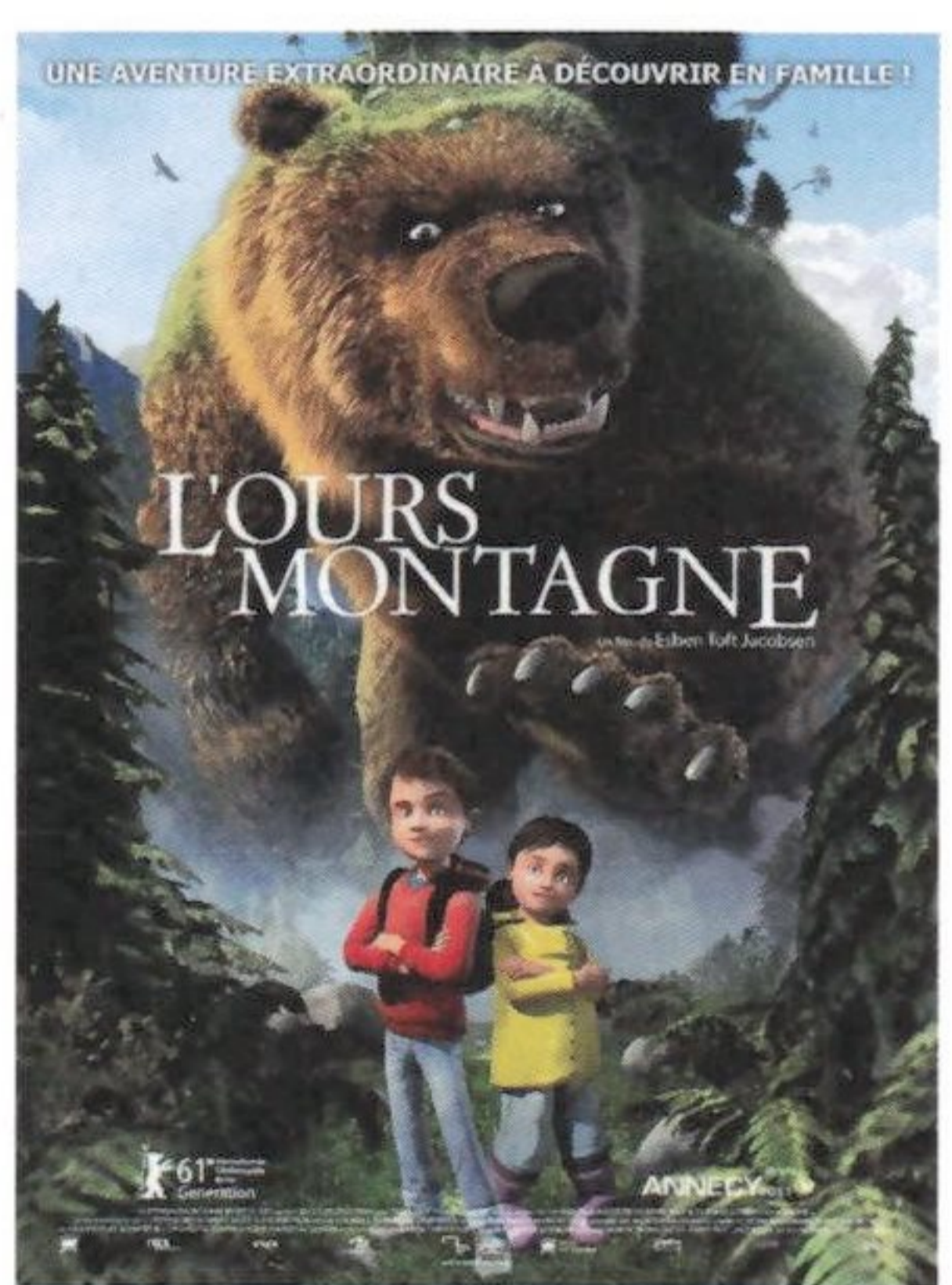




공연 화제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세상 어때?

Show me your world!



● 개막작 '위대한 꿈'

어린이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일곱 번째 영화세상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런 세상 어때?(Show me your world!)' 라는 주제로 23개국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예년에 비해 상영작품수는 줄었지만, 기존의 9개국에서 23개국으로 참가국가가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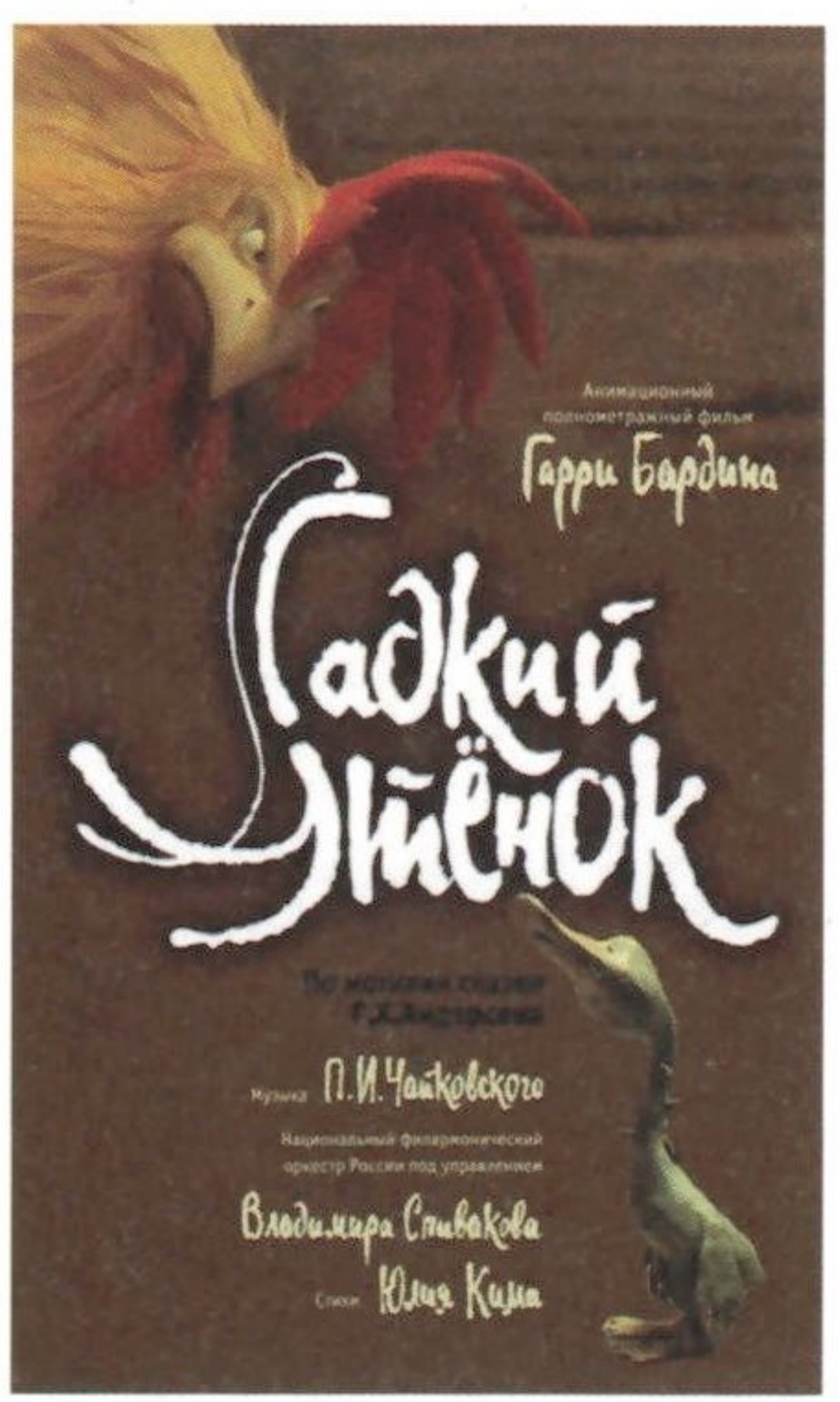
어린이가 만들고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부산어린이국제영화제는 보는 영화에서 나아가 체험형 영화 축제로 어린이들에게 매년 큰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올해는 매년 8월에 개최된 영화제 개최 시기를 한 달 앞당겨 휴가 시즌을 피했고 상영관을 영화의 전당으로 옮겨 상영 횟수와 좌석 수를 다량 확보해 관객들이 보다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덴마크 에스벤 토프트 야콥슨 감독의 <위대한 꿈>, 폐막작은 러시아 가리 바르딘 감독의 <미운 오리 새끼>로 선정되어 어린이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개막작 '위대한 꿈'은 북유럽 거대한 원시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이들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3D 영화는 아니지만 3차원 그래픽 기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3D 영화 못지않은 생생한 입체감과 주인공 어린이의 손등 혈관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 놀라운 사실감으로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술을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잠시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아슬아슬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로 기존 어린이용 만화영화들과는 다른 감동을 준다.

안테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각색한 폐막작 '미운 오리 새끼'는 러시아 스톱 애니메이션 거장 가리 바르딘이 6년에 걸쳐 작업한 수작이다. 세계적인 거장 블라디미르 스피르바코프가 지휘하는 러



● 폐막작 '미운오리새끼'



시아 국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트로츠키 합창단이 들려주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배경으로 모든 아이들의 내면에는 각기 개성 있고 아름다운 백조가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 폐막작 외 큰 나래 모음(장편초청작) 섹션, 작은 나래 모음(단편 초청작) 섹션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레디~액션! 섹션, 특별전 섹션 등 4개의 섹션에서 70여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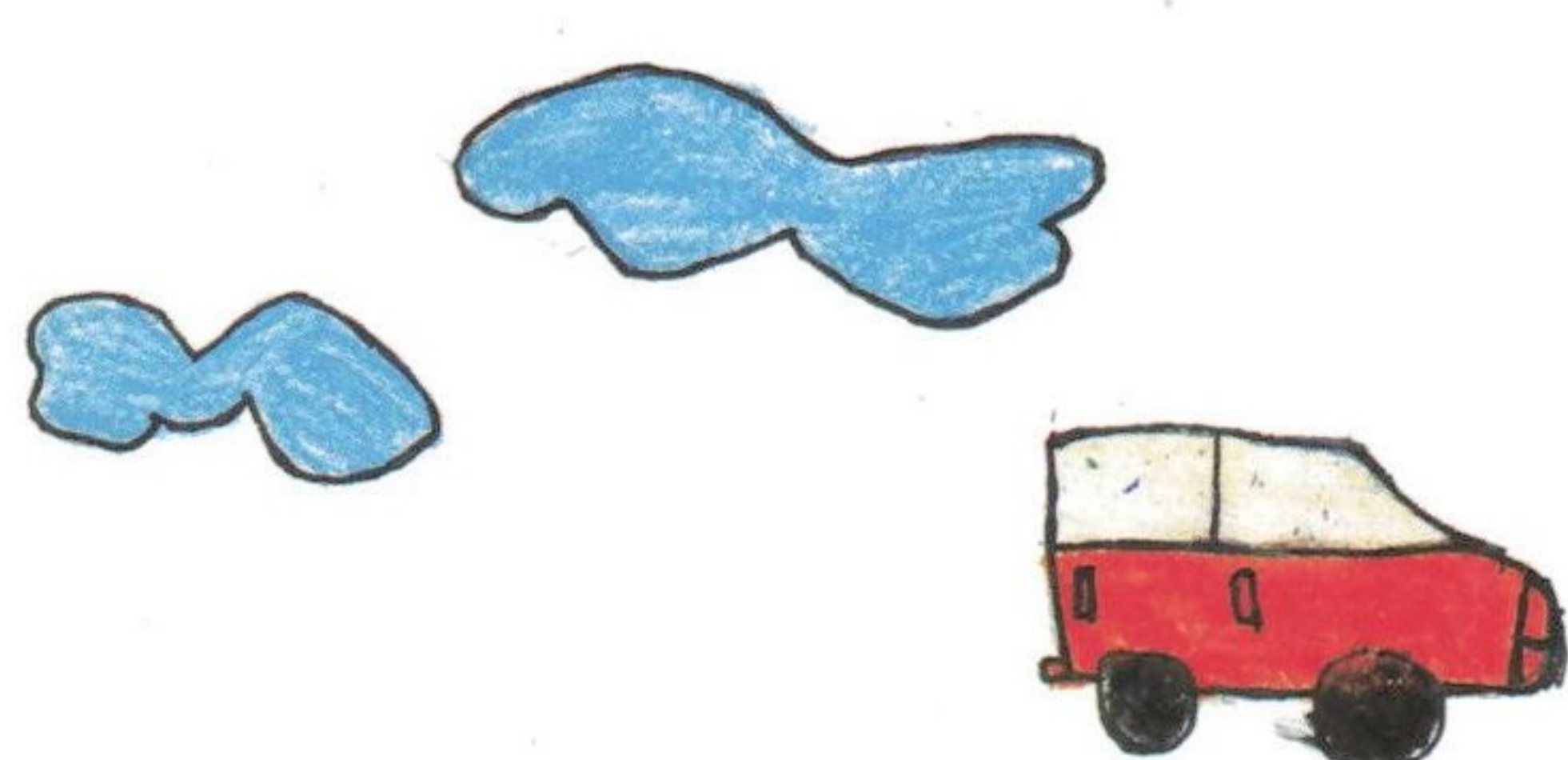
60분 이상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들 20편이 상영되는 '큰나래 모음' 섹션에서는 올해 영화제 주제인 '이런 세상 어때?'에 어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동화책 속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엘리노의 비밀>과 <겨울의 딸>, <버디>, <작별들>, <유키와 나나>, <나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화, 전쟁의 피해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담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리틀 보이즈>, 아동 노동의 문제를 담은 <스탠리의 도시락>, 알츠하이머 할아버지와 아파 없는 손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루>, 마치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 신비로운 요정과 전설의 세상을 보여주는 <비의 요정> 등 다채로운 영화들이 상영된다.

작은나래 모음에서는 단편 초청작 13편의 단편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작은나래 모음은 러닝타임을 30분 이내가 되도록 조정했고, 30분가량의 '영화읽기'를 더해 상영작품들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돋우도록 기획했다.

또 올해는 세계 곳곳의 도시, 문화, 역사, 그리고 옛이야기를 담은 짧은 애니메이션을 모은 '떠나자 세계여행!'이라는 특별전이 열린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옛이야기를 담은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수작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20편의 영화들로 구성된 '레디~액션!' 섹션은 부산국제 어린이영화제 섹션들 중 유일한 경쟁부문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심사를 본다. 어린이 감독들은 영화제에서 모여 영화를 매개로 예술적 감수성을 나누게 된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매년 즐거움을 선사해온 다양한 부대행사들은 2012년에도 이어진다. 영상 나눔 마당, 포스터 공모전 작품 전시회, 애니메이션 음악회, 비키 영화놀이터, 스튜디오 Yog와 함께하는 비키 텐트영화관, 필름앤펀(Film&Fun), 어린이 영화워크숍, 영화 교육인 세미나 등 시민과 어린이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영화의 전당과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어린이 영화인의 밤'에서는 어린이 제작자, 어린이 심사위원 등 어린이 영화인들을 위한 교류의 밤을 통해 어린이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입장료 개, 폐막작 균일 7,000원
 일반 상영작 5,000원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집행위원회
 (743-7652)



● 4천석 복합문화공간인 벅스코 오디토리움

세계 전시컨벤션 중심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벅스코 BEXCO

● 세계 전시컨벤션 중심도시를 선언한 부산의 떠오르는 랜드마크 벅스코(BEXCO)가 최근 4천석 복합문화공간인 오디토리움과 제2전시장을 개관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지난 2001년 9월 개관한 벅스코는 각종 회의와 전시회, 공연, 이벤트를 개최하는 종합전시관으로, 2만 6508m² 규모의 전시장을 비롯해 다목적홀, 컨벤션홀, 야외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관한 제2전시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진 2만m²의 전시장으로, 기존 전시장과 합하면 서울 코엑스를 능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이다.

1층은 6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전시장에 비해 소규모의 다목적 전시장으로 이용가능하다. 특히 전시장 2층은 LED 경관조명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구름다리를 통해 제1전시장과 연결되어 벅스코를 찾은 관람객들은 1, 2 전시장의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3층은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전동 파티션을 통해 5개 공간으로 분리 가능하다.

무엇보다 벅스코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는 '오디토리움'이 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한 웅장한 건물 외관에서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오디토리움은 연면적 4천 766m²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객석수만 4천 2석, 동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회의 뿐 아니라 콘서트, 오페라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 변신이 가능한 오디토리움은 가로 32m, 세로 17m의 대형무대와 스크린, 중앙과 좌우 3면에 객석이 배치되면서 전체, 혹은 따로 나눠서도 공연이 가능하다. 게다가 무대와 객석과의 거리는 불과 30m, 대형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8개의 동시통역부스와 분장실, 대기실, VIP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디토리움은 개관과 동시에 굵직굵직한 대형무대가 잇따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공연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관기념공연으로 그랜드오페라단의 오페라 '토스카'와 솔오페라단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등 대형오페라 무대가 펼쳐졌고 6월 29일과 30일에는 대형 난버벌 퍼포먼스극 '플라잉'이 오디토리움 무대에 오른다. 개관 전부터 공연기



● 오디토리움은 개관과 동시에 굵직굵직한 대형무대가 잇따르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공연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개관기념 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졌던 솔오페라단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획자들의 문의가 줄을 이으면서 이미 올 하반기에만 벌써 18건이 넘는 다양한 행사가 대관되어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벅스코를 찾는 국제 대형행사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이 유치한 국제 민간 컨벤션 행사 중 사상 최대 규모인 '라이언스 세계대회'가 지난 6월 22일 시작되면서 전세계 120개국 6만여명이 벅스코를 찾았다. 7월에는 세계 60개국 2천여명의 자성학 분야 권위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가하는 '2012 국제자성학회'가, 9월에는 130개국 4천5백여명의 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IWA 세계물총회'가 벅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벅스코 인근에는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7월 20일 개관하는 뮤지컬 전문공연장인 '소향아트센터'와 부산시립미술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접근성도 편리해 도시철도역 '센텀시티'와 버스정류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부산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의_벅스코(740-7390, www.bexco.co.kr)





● '시민극단 쌤' 단원들은 매월 격주로 도시철도 서면역 회의실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연극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도전 시민극단

쌤

● 모든 것이 우연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우연은 곧 필연이 되었고 그 결과 '시민극단 쌤'이 탄생됐다. 우연의 시작은 문화매개공간 '쌤'에서 마련한 '쌤수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쌤 수다꾼이 시민들과 만나는 '쌤수다'에 연극배우 변지연 씨가 '수다꾼'으로 출연했다. 그게 지난 2010년 10월. 연극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편안하게 오가던 그때, 참석한 시민들이 손들어 질문했다. "우리도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우연, 엉겁결에 변지연 씨가 연극지도를 맡겠다 나서면서 어느새 '쌈수다'는 시민극단 결성 모임이 되어버렸다. 한달 뒤, 부산지역 도시철도 역사 곳곳에 시민극단 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이 붙었다. 세번째 우연, 몇 명이나 모일까 하는 걱정을 날려버리듯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입단 신청서를 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온 주부에서부터 공익요원, 50대 중년신사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지만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1월 '시민극단 쌈'이 첫걸음을 뗐다.

올해로 횡수로 결성 3년째를 맞으면서 '시민극단 쌈'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연말 새로운 단원을 선발하면서 현재 2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결성 초기 모임장소로 이용했던 중앙동 또따또가 문화센터에서 현재는 도시철도 서면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아무런 무대장치도 없는 그저 평범한 공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열정을 묵묵히 지켜봐준 소중한 공간이다.

'쌈' 단원들은 극단 결성부터 지금까지 매월 격주로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연극을 볼 줄만 알았지 무대에 직접 서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단원들은 연극의 기본인 발성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극단 결성에서부터 큰 역할을 했던 변지연 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터, 지금까지 '시민극단 쌈'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역시 변지연 씨의 도움이 매우 컸다.

'시민극단 쌈'은 지난해부터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지난해 5월 열렸던 부산국제연극제 시민연극제. 예선을 뚫고 10개팀이 참가하는 본선에 당당히 진출한 '시민극단 쌈'은 공동 창작한 '행복한 가족'이란 작품으로 '조화상'을 수상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무대는 다름아닌 일반 배우들과 함께 했던 극단 사계의 창작극 '섬이 거기에 있었네'. 2010 부산신인 창작희곡 공모 우수상 수상작인 이덕희의 창작희곡을 연출가 김만중

이 연출한 '섬이 거기에 있었네'에 '시민극단 쌈' 단원인 차영희, 장현수, 서미경, 박준형 등 4명이 정식으로 캐스팅되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렸던 지난해 5월 공간소극장 무대에 올려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교통공단이 주최하는 도시철도문화제 기간 중 역사에서 펼쳐지는 게릴라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잡으면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장현수 씨. 극단 창단 후부터 '시민극단 쌈' 대표를 맡아온 그는 '시민극단 쌈'이라는 기회를 잡으면서 지난해 연극 '섬이 거기에 있었네'와 올해 초 연극 '보이책'으로 '연극배우'라는 또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지켜올 정도로 반복되는 연습에 힘들기도 했지만 정작 무대에 서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극에 몰입했다는 그는 아직도 그때의 긴장과 흥분이 고스란히 기억속에 남아있다.

"저 자신이 연극무대에 서다보니 지역 연극계의 어려운 현실이 눈에 들어 오더군요. 제도적인 지원도 절실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극활동이 필요합니다."

극단 쌈은 지난 3월부터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을 연습 중이다. 예전 부산무대에도 올려져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허름한 세탁소를 배경으로 세탁소 주인 강태국 일가와 그를 둘러싼 소시민들의 일상을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아직까지는 출연진도 확정되지 않고 대본 읽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연습에 매진해 올해 10월 즈음에는 '시민극단 쌈'의 창단공연으로 무대에 올려볼 계획이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도전해보겠다는 장현수 씨. 내년에는 부산연극제 경연부문 참가라는 욕심도 부러볼 생각이다.

문의_시민극단 쌈 대표 장현수(010-8512-9903)

● 올해로 결성 3년째를 맞는 '시민극단 쌈'은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으로 오는 10월 창단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일반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섰던 극단 사계 창작극 '섬이 거기에 있었네' 연습장면)



우리 곁에 다가 온 거장, 정경화

신설령_음악평론가

● ● ● 정경화씨의 연주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부상 후의 연주기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다른 한 편으로는 커다란 기대와 함께 무대 위를 지켜보았다. 첫 곡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으로 시작하였다. 무대 위의 그녀는 이전의 도도함에서 살짝 벗어나 음악적 원숙함으로 우리 앞에 섰다. 그녀의 나이쯤 되면 음악으로 풀어 낼 이야기도 많을 터. 가볍게 시작한 1악장이 지나고 2악장에 이르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음악 속에 담아내는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음색에 여유로운 호흡으로 다양한 표현을 담아내어 음악적 연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다. 3,4악장을 화려하게 끌고 가는 바이올린 연주에 케빈 케너는 과도한 몸짓 하나 없이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호흡을 같이 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지는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이었다. 일반적으로 청중에게 근·현대 음악작품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코피에프 작품 특유의 음악적 매력과 음악을 연주하는 그녀의 진지함과 몰입은 청중도 함께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2악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경화 특유의 열정을 뽐내어 긴장감을 높였다. 그런데 이 곡에서도 느린 악장인 제3악장에서 음악적 원숙미가 물씬 드러났다. 바이올린 음색은 빛나고, 감정의 깊이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신비의 나라로, 숭고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곡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때로는 경쟁하듯, 때로는 각자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듯 그러면서도 서로 어우러지며 음악의 흐름을 함께 타고 있었다. 모처럼 오늘날과 가까운 시대의 작품을 듣는 소중한 연주였다.

마지막 곡인 프랑크 소나타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곡이다. 정경화는 프랑크 소나타의 신비로운 선율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마음껏 담아내었다. 이 곡을 통해 분출되는 음악적 격렬함과 아름다움은 뛰어난 두 연주자의 기량과 열정이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

루어 청중에게 신비롭고도 변화무쌍한 음악세계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

이날 밤 프랑크 소나타 연주 후 청중의 열렬한 재연주 요청으로 그녀는 무대에 세 번이나 나와서 연주를 계속해야만 했다. 슈베르트의 소나티네를 달콤하게 연주하는 정경화를 바라보며 가까이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던 바이올린의 거장이 이제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는 그녀의 말대로 “풍랑을 겪고 잔잔해진 바다의 마음”으로 다시 활을 잡은 탓인지, 아니면 이제 젊은 시절의 완벽주의로 말미암은 날카로움을 벗어나 부드러움과 더 깊은 음악적 감수성으로 음악을 대하는 탓인지 모르겠다.

며칠 전 예술의 전당에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다. 마치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듯 발랄하고 젊음이 넘치는 그녀의 연주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밤, 격렬하게 바이올린 연주에 젊음을 불살랐던 연주자가 이제 인생의 깊이를 드러내는 연주로 우리 앞에 섰다. 그런 정경화의 연주가 참 좋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김남석_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 ● 영화나 연극을 '2인칭 예술'이라고 부른다. 스크린이나 무대에 '너'의 삶이 제시되고, 관객들이 그 삶을 매개자 없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자가 은밀할수록, 지켜보는 대상이 솔직할수록,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엿보기'(관음증, Voyeurism)의 매혹은 영화나 연극을 현대인의 중요한 오락이자 취미로 만든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엿보기의 속성을 메타 드라마 형식으로 재수용하였다. 무대 위에 '올려진' 두 명의 남녀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응시되는 대상이다. 새장 속의 새처럼, 어항 속의 열대어처럼 그들은 쌍으로 존재하는 어떤 관찰 대상이다. 그리고 이 대상을 훑쳐보는 '거대한 시선'이 설정된다. 작품에서 이 시선의 주체는 편의상 '외계인'으로, 시선의 대상은 편의상 '지구인'으로 설정되었으며, 홀로 남겨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구는 핵전쟁으로 멸망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설정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정을 무대에서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무대 위에 설치된 네 개의 '유리벽' 효과는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남녀가 갇힌 것으로 설정된 유리벽은, '그들'의 공간을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하고 있다. 하나의 차원은 무대와 관객의 분리이다. 사실주의 연극에서 말하는 '네 번째 벽'을 넘어 누군가의 행위를 엿보는 일이 관극 행위임을 새삼 상기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그들'의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대한 시선의 주체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 시선의 주체를 외계인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심층적인 해석이 동반되어야 했다. 늘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포획'되는 대상이고,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시선으로 '음미되는' 재료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 소비되는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전언은 끔찍할 정도로 공포스럽다.

궁극적으로 유리벽 속 남녀는 시선에 갇힌 존재들이다. 아쉬운 것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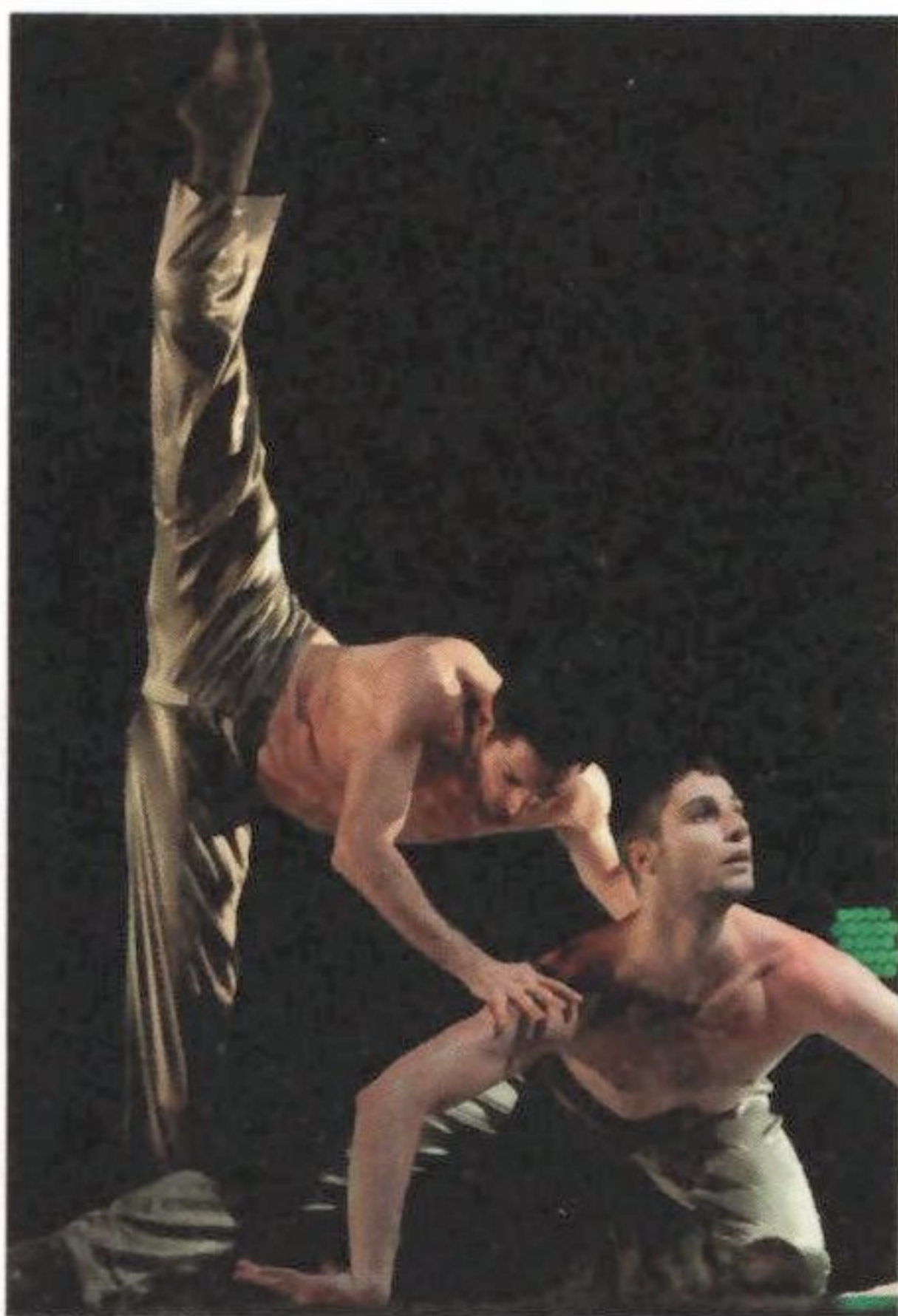
● 연극 <인간>

러한 시선의 포로들이 어떠한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지, 혹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공연에서 정밀하게 연구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선의 공포에 막연하게만 반응하고 있다. 홍상수의 영화 <다른 나라에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궁벽한 시골에 숨어든 불륜의 남녀가, 그것도 모자라 방을 따로 잡는 설정이 나온다. 외국 여성이 한국 감독에게 묻는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나고? 이 질문에 한국 감독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주위의 시선이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있다고.

<인간>에서도 물을 수 있다. '그들'이 멸망한 지구를 대표하여 외계인의 애완물이 되는 것이 무서운지?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군가—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우리의 존엄성 자체가 '우리'라는 동족 앞에서 훼손되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이 작품이 시선의 주체와 포획되는 대상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와 공포를 현실의 차원으로 환원하면 할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더 큰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은 분명 흥미로운 설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과 시선의 폭력적 관계를 해명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10년을 위한 혁신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이동우_한국춤평론가회 회원



● ● ● 동래학춤과 동래야류의 발생지 부산이 예로부터 고유의 문화와 춤의 도시였음은 부연이 필요 없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는 임시수도로서 예술인들의 활동지로도 유명했으며, 이때 무용계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의 시도와 함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터전이 되기도 했다. 종전 후 예술인들이 대거 서울로 이주하면서

부터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남정호, 김용걸, 이태상, 이원국 등과 같이 내로라하는 굵직굵직한 동시대의 유명 무용인들을 배출해내는 산모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부산이기도 하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부산국제무용제를 주말을 이용해 다녀왔다. '춤, 바다를 품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춤을 감상하기 위해 일부러 찾은 관객에서부터 해운대를 거닐다 들른 일반관광객까지 바다의 넓은 아량으로 모든 춤을 품은 노천 공연이었다. 클래식 발레 다음에 힙합으로 이어지는 랜덤 형식이다 보니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몰라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되려 좀처럼 자리를 뜨기가 힘들었다. 특히 공연 후, 춤의 미학과 영상미를 보여주는 댄스시네마를 인상 깊게 관람했는데,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희귀 예술영화를 해변에서 감상하는 것은 춤 공연과는 또 다른 차원과 낭만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번 행사가 예년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벌써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번에 큰 혁신을 꾀했기 때문이다. 혁신(革新)이라니까 외향적으로 화려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더 중요한 내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간 부산의 국제무용축제였지만 무용행사 프로그래머들이 위주가 되어 부산 밖에서 섭외하고 준비한

콘텐츠들을 부산이라는 잔칫상에 풀어놓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규모나 진행 면에서 안정적이고 세련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방식이 정작 지방도시의 문화적 자립을 위해서는 얻는 것이 없었음도 사실이었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아직도 중앙집권의존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틀에서 과감히 독립하여 기획사무실을 중심으로 프로그래머를 기용하는 독자적인 운영으로 부산만의 색채를 띤 국제무용제로 거듭나려하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이다.

자립을 처음 시작한 변화의 과도기에서 아무래도 착오를 피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이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오히려 무용가출신이 직접 프로그래머로 참여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외국공연자들의 선정수준이 높아졌다는 평도 듣는다. 이는 과거 7년간의 탄탄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변화과정에 따른 비판이 있을지라도, 춤이 거대한 바다를 품듯, 10년에 다다랐을 때 부산다운 부산국제무용제를 목표로 모든 칭찬과 질책을 아우르길 바란다. 10년을 3년 남긴 시점에서 어찌면 '이제야' 변신을 시도했다는 느낌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변신을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생각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참관하면서 우선적으로 드는 이미지는 '인간미'였다. 일교차가 심한 해변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초인의 힘을 보여주는 무용수들도 아름답거니와 그림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매 공연 때마다 담요와 따끈한 시루떡을 선사하는 주최 측의 작지만 섬세한 배려까지 삼박자가 일치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떡을 못 받은 할아버지가 공연 중 언성을 높였던 일마저도 정겨웠던 것은 정숙을 요하는 세련된 도심의 매너를 과감히 버린, 한바탕 '해변야유'였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의 시작은 대중화에서부터다. 부산국제무용제를 필두로 열악해져 버린 부산 춤의 르네상스시대 재현을 위해 벌이는 모든 몸짓에 긍정의 환호와 격려를 보내는 바다.

꿈속의 고향 -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이면 필자의 음반 컬렉션에 자주 손길이 가는 음반 한 장이 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일명 '신세계로부터'란 부제가 붙어 있는 곡이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어서 수많은 지휘자들이 이곡을 녹음으로 남겼다. 바츨라프 노이만, 이스트반 케르테츠, 라파엘 쿠벨릭 등 보헤미안 출신의 지휘자를 비롯해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카라얀, 콘드라신 등등 기라성 같은 지휘자들의 음반이 명반 대열에 꼽히고 있다. 필자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즐겨 듣는데, 특히 2악장에 푹 빠져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이 연주는 다른 지휘자들의 연주에 비해 특이할 정도로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연주시간이 보통 13분~15분 정도지만 번스타인의 연주는 무려 18분이 넘는다.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느슨하거나 전혀 지루하지 않으며 오히려 긴장감을 더해 주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이곡의 2악장 주 선율이 <꿈속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드보르작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이 곡을 들으면 메마른 도시인들의 가슴에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순박하고 아름다웠던 농촌 풍경을 떠올리게 해준다. 여름 날 시원한 정자나무 그늘에 앉아 찬물에 식은밥 한술 말아 된장에 푹고추 찍어먹던 농촌의 소박한 정경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포플러 나무 사이로 맑게 흐르는 냇물에서 물장구치고 밤이면 반딧불 따라 놀던 어린 시절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내가 어릴 땐 친가와 외가가 다 시골에 있어서 방학 때면 시골 할머니 댁에 가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반면 산업사회에 밀려 텅텅 비어버린 농촌과 자연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요즘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과 두려움이 앞선다. 자연이 살아 숨쉴 때 사람도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을 흔히 '신세계 교향곡'이라 하는데 반드시 '신세계로부터'라고 해야 한다. 물론 드보르작이 뉴욕에 있을 때 스피버그라는 인디언 마을에 자주 들려 그들에게서 이곡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곡은 드보르작이 미국에서 고향 보헤미아를 그리는 음악 편지이며 이곡의 선율이 지극히 보헤미아적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창녕

반가운 단비소식이 전해진 지난 6월 8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75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6월의 테마여행지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우포늪의 고장인 창녕. 이번 여행에는 테마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인 정기회원들과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을 위해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박준서 씨가 동행했다.



여행의 설레임을 안고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최대 자연습지인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농촌 테마마을인 가시연꽃마을. 우포늪을 대표하는 멸종위기 수생식물인 가시연꽃의 국내 최대 자생군락지인 사지포 길목에 자리한 가시연꽃마을은 수로를 이용한 쪽배타기와 미꾸라지 잡기, 양파껍질을 이용한 천연염색, 말밤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가시연꽃 조형물과 하늘 높이 솟은 솟대들이 반기는 가시연꽃마을 체험관에 도착하자 문화유산해설사 김량한 씨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쏟아지던 비가 잠시 주춤해진 사이 서둘러 마을 인근 우포늪으로 자리를 옮겼다. 1억 4천만년 전 한반도 생성과 함께 탄생된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따오기,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청머리오리 등 160여종이 넘는 조류들이 찾고 있는 우포늪은 지난 1998년 '람사르 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인 생태보고지로 이름을 알렸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포 등 4개의 늪으로 이뤄진 우포늪을 모두 돌아보려면 최소 4시간 이상 소요된다. 짧은 시간내에 우포늪을 하나라도 더 알리려는 김량한 씨의 열정에 덩달아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새라 분주히 메모하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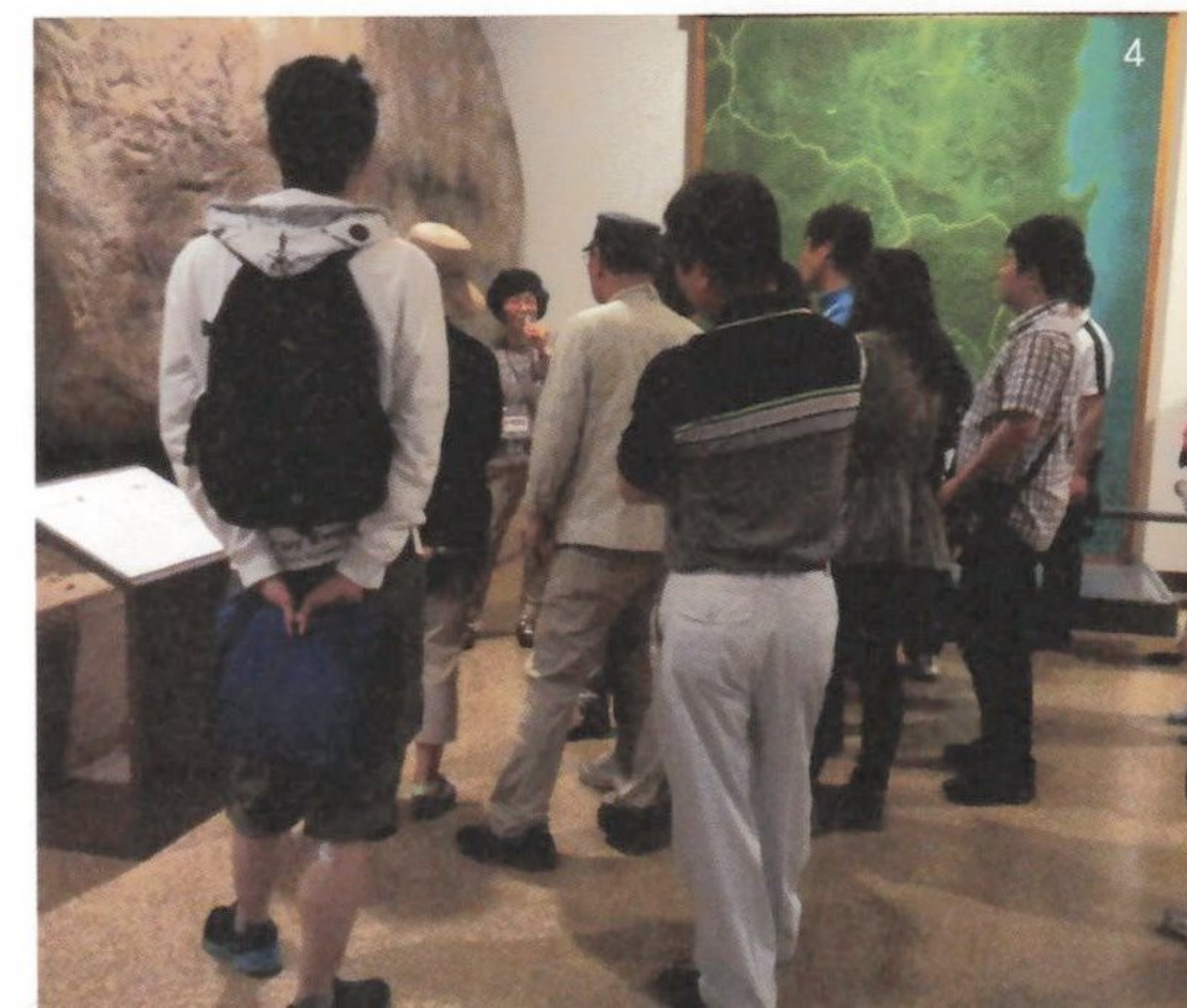
일정에 쫓겨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체험관으로 돌아온 회원가족들은 창포비누 만들기에 나섰다. 다양한 모형틀에서形形色색의 창포비누가 굳기를 기다리며 마을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박준서 씨의 작은 무대가 펼쳐졌다. 모노극 '늪은 창녀의 노래' 한 부분을 정행심 씨가 즉석에서 선보이자 관객을 쥐락펴락 하는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절로 터진다. 이어지는 젊은 단원 박준서 씨의 톡톡 튀는 댄스실력에 어느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다.

가시연꽃마을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창포 화분만들기. 손수 심은 창포 화분과 각양각색의 창포비누를 하나씩 챙긴 회원가족들은 다음 일정지인 '성씨고가'로 자리를 옮겼다. '성씨고가'는 기와건물 37동 130칸 규모의 대규모 한옥 고대광실이었으나 6·25전쟁 때 상당 부분 소실됐다가 최근 후손들에 의해 복원됐다. 특히 이 곳은 창녕군 농민들의 '효자상품'인 양파의 국내 첫 시배지로도 유명한데, 1909년 성낙안, 성재경 선생 부자에 의해 양파가 창녕에 처음으로 재배되면서 오늘날 창녕이 전국 최고의 양파 주산지라 될 수 있었다.



1. 우포늪 탐방중인 정기회원 가족들
 2.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정기회원 가족들
 3. 창포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체험
 4. 창녕박물관 관람중인 정기회원 가족들



테마가 있는 여행

'성씨고가'는 현재 '튼ㄷ자형' 형태로 안채, 사랑채, 곳간 2동, 대문채, 화장실 등 건물 6채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지어졌거나 이전되어 온 것으로, 근대한옥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어 도착한 곳은 창녕의 역사를 품고 있는 창녕박물관. 창녕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라 할 수 있는 교동고분군 인근에 자리한 창녕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가야시대까지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고대 6가야 중 하나인 비화가야(非火伽倻)의 무덤이었던 교동고분군,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철의 왕국' 가야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관 중앙홀에는 가야고분의 축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관이 설치되어 가야시대 고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전시관에는 교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수장급 무덤군인 송현동고분군 15호분에서 발굴되어 복원된 16세 소녀 '송현'이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문화유산해설사 권영옥 씨와 함께 창녕박물관 옆에 자리한 계성고분 이전복원관까지 돌아본 정기회원들은 창녕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만옥정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봄철 벚꽃풍광으로 유명한 만옥정 공원은 약 250년 전 만옥정이라는 정자가 이곳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당시에는 봄마다 명창(名唱) 대회와 그네뛰기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공원 뒤쪽 언덕에 오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비인 국보 제33호 '신라 진흥왕 척경비(新羅眞興王 拓境碑)'가 시선을 끈다. 신라가 가야정벌 후 세운 비로, 지금까지 발견된 순수비 중 가장 먼저인 진흥왕 22년인 561년에 건립된 것으로, 원래 창녕읍 화왕산록(火旺山麓)에 있던 것을 1924년 이곳으로 옮겨왔다. 만옥정 공원에는 이 외에도 조선 후기의 관아건물인 '창녕객사(경남유형문화재 231호)',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천삼층석탑(兔川三層石塔:경남유형문화재 10호)' '창녕 척화비(경남문화재자료 218호)' 등 다양한 문화재가 모여있다.

자연과 사람과 역사가 공존하는 창녕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먼 옛날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우포늪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속에도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5. 성씨 고가 앞 양파시배지를 알리는 기념 조형물
6. 만옥정공원에 위치한 국보 제33호 신라 진흥왕 척경비

8월에는 **김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 감 7월 15일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7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강언희(남구 대연6동)
김미희(김해시 장유면)
김석환(중구 중앙동3가)
김소연(영도구 봉래동3가)
박광희(금정구 구서2동)
박정화(남구 용호1동)
배경훈(연제구 연산4동)
이보람(서구 동대신동3가)
최길주(금정구 부곡동)
한양수(해운대구 중1동)

기존가입자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김신숙(사상구 주례2동)
백선희(양산시 물금읍)
손영희(수영구 망미동)
송영식(남구 대연3동)
양나린(동래구 사직2동)
양혜련(북구 화명3동)
전숙희(해운대구 우1동)
함수정(동래구 안락동)
홍영주(양산시 물금읍)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문화회관(519-5651)
동래문화회관(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7)
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예술회관(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영화의전당(780-6000)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아트홀(758-9035)
BEXCO 오디토리움(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KBS부산홀(620-7181)
MBC롯데아트홀(1688-8998)
SM아트홀(1600-1602)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온아트홀(1600-1602)
공간소극장(611-8518)
글로벌아트홀(505-5995)
디코소극장(464-1996)
미리내소극장(504-2544)
소극장 6번출구(625-2117)
숨사탕아트홀(922-4545)
신명천지소극장(515-7314)
아트카페 움(557-3369)
액터소극장(611-6616)
에저또소극장(852-9161)
용천지랄소극장(612-4312)
일터소극장(635-5370)
자유바다소극장(441-2733)
청춘나비소극장(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621-4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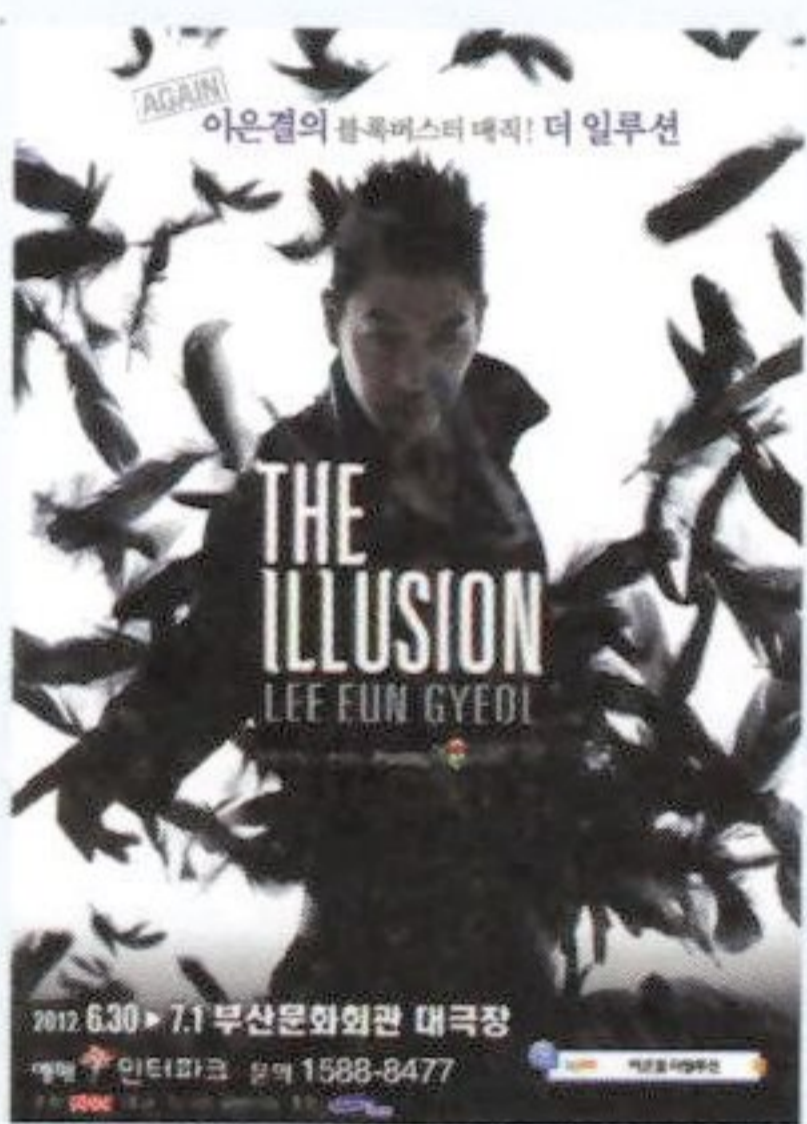
40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6	NEW MUSIC
57	NEW BOOK
58	SPECIAL MOVI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6월 30일-7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문의 | 유엔아이(1588-8477)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의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라스베거스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이은결의 Magic Show & Illusion Performance.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1회 정기연주회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김대진



피아노 손열음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화려하게 변신한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상임지휘자가 객원지휘하고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1회 정기연주회.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으로 음악계의 신예 피아니스트로 급부상 하고 있는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상, 모차르트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부문 역대 최고성적을 거둔 바 있다.

프로그램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거슈윈/피아노 협주곡
베토벤/교향곡 제7번

· 지휘/김대진(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피아노/손열음

제18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아발레단(200-7823, 010-8554-1452)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동아대학교 동아발레단의 제18회 정기공연으로, 소중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담은 '사무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sign, 그 마음의 소리를 표현한 'SIGN',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MY WAY', 소유욕의 실체를 표현한 '너의 뒤에서' 등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작품

사무치다(안무/주정현 · 출연/신세정, 권나현, 김희경, 이수정, 이은, 김영화, 윤이나)

SIGN(안무/서선영 · 출연/서선영, 이미광, 김지정)

MY WAY(안무/안미진 · 출연/윤세희, 이수정, 이은, 백가람, 이보라, 김민경, 박지희)

너의 뒤에서(안무/김경란 · 출연/김경란, 손영일)

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맨하튼 음대, 메릴랜드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Shenandoah University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프로그램

구노/미농
드뷔시/로망스
슈만/헌정
브람스/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등 수곡
· 피아노/이영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1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이 함께 펼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솔로리스트들의 축제는 내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기량 향상을, 외적으로는 단원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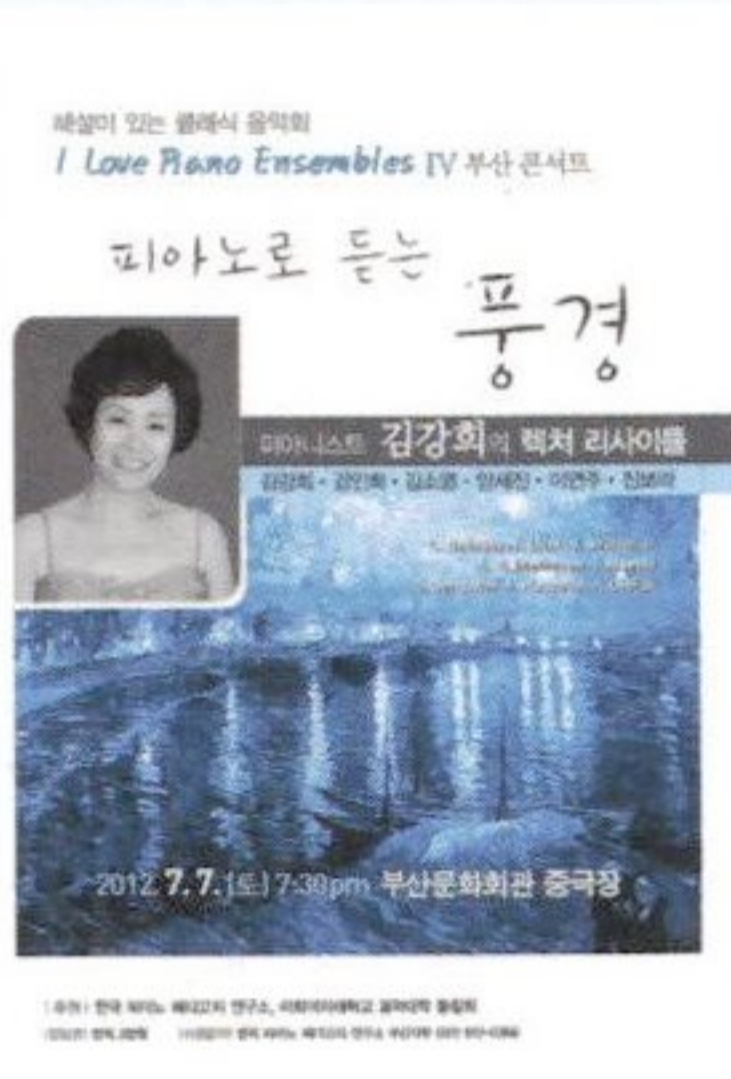
베버/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중 1악장
R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제1번 중 1악장
멘델스존/클라리넷 2중 협주곡 제2번
벨리니/오보에 협주곡
랄로/첼로 협주곡 라단조 중 제3악장
다비드/트롬본 협주곡 중 제1악장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박신지(바이올린, 동아대 3학년)

홍영준(첼로, 동아대 4학년)
하현정(오보에, 동아대 4학년)
김지훈, 오나경(클라리넷, 동아대 4학년)
김소연(바순, 부산예고 2학년)
안혜빈(호른, 동아대 3학년)
박소정(트롬본, 경성대 2학년)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I Love Piano Ensemble IV 부산콘서트
피아노로 듣는 풍경

7월 7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한국피아노페다고지연구소 부산지부
 (612-0369, 010-5245-4366)



한국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소에서 매년 개최하는 피아니스트 김강희와 함께하는 'I Love Piano Ensembles' 시리즈 IV 부산연주회. 한국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소는 2009년 난이도별로 살펴보는 피아노 앙상블 이야기

기를 시작으로 매년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음악을 소개하며, 피아노 앙상블의 여러 가지 연주 방식(1 piano 4 hands/2 piano 4 hands/2 piano 8 hands 등)에 따른 다양한 난이도의 곡을 선사 해왔다.

올해는 이탈리아 빌라 에스테의 분수, 도나우강, 스페인 아라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곡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드뷔시/작은모음곡 중 '쪽배'
- 리스트/에스테 광장의 분수
- 베토벤 교향곡 제 6번 바장조 작품 68 '전원교향곡'
- 알베니즈/스페인모음곡 작품 47 'Aragon Fantasia' 등 수곡
- 연주/김강희, 강인희, 김소영, 양세진, 이연주, 진보라

2012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7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인프로덕션(02-6292-9370), 인터파크(1544-1555)

수려한 외모와 격정적인 속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의 첫 부산연주회. 장르와 음악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피아노 연주로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크로아티아 출신



의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는 1983년 9세의 나이로 피아노에 입문, 1993년 자그레브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1999년 연주자들의 선망의 무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피아노 콩쿠르와 2001년 프랑스 파

리 폰트와즈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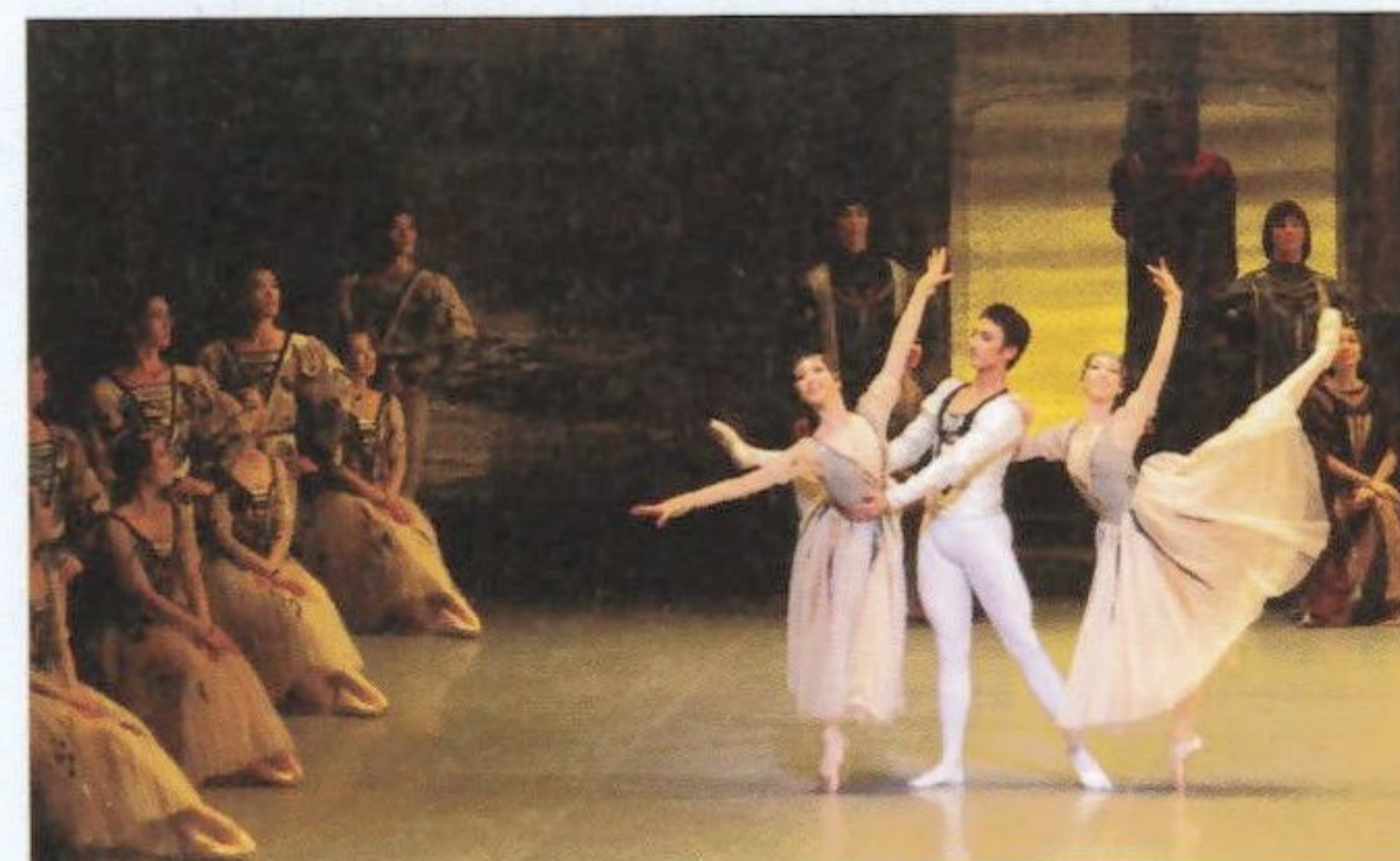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지난해 발표한 앨범 수록들과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브람스의 랩소디, 쇼팽의 스케르,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비제/하바네라
- 생상/동물의 사육제, 수족관
- 차이코프스키/뚝카
- 쇼팽/스케르쵸 내림나단조
- 홀지크/크로아티안 랩소디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5:00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A석 3만원 ·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불쇼이 버전으로 만나는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부산무대.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는 로열발레단, 파리 오페라발레단, 라스칼라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불쇼이 발레단 등 세계적인 컴퍼니들이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

는 클래식 발레의 정수 중 정수이다.

'백조의 호수' 궁중 무도회에서 최고 기량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 신비로운 호수에서 스물 네 마리의 백조들이 차이코프스키의 극적인 음악에 맞춰서 추는 환상적인 장면은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 음악/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 안무/유리 그리가로비치
- 예술감독/최태지
- 주역/김지영, 이동훈(13일), 김리희, 정영재(14일)
-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II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우수단원들의 기량 개발과 새로운 협주곡의 정착을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제16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벗들의 어우러짐 II'.

기존의 우수 창작품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25현 가야금, 태평소, 해금, 거문고 등 관악기와 현악기의 독자적인 음색과 협연자들만의 음악적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무대이다.

프로그램

- 정대석/거문고 협주곡 '수리재'
- 김영재/해금협주곡 '공수받이'
- 박춘석(편곡)/판소리 '정정령제 춘향가 중 사랑가'
- 박범훈/25현 가야금협주곡 '새산조'
- 김만석/태평소 협주곡 '무녀도'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경수(태평소), 윤경선(가야금), 이은주(해금), 오상훈(거문고), 정선희(판소리)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뮤클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7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뮤클합창단(010-2307-6922)



2004년 합창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뮤클합창단은 그동안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모차르트 레퀴엠, 포레의 레퀴엠 등을 연주한데 이어 올해는 신상의 신비와 종교적 열정을 담은 브루크너의 대표작 '테데움'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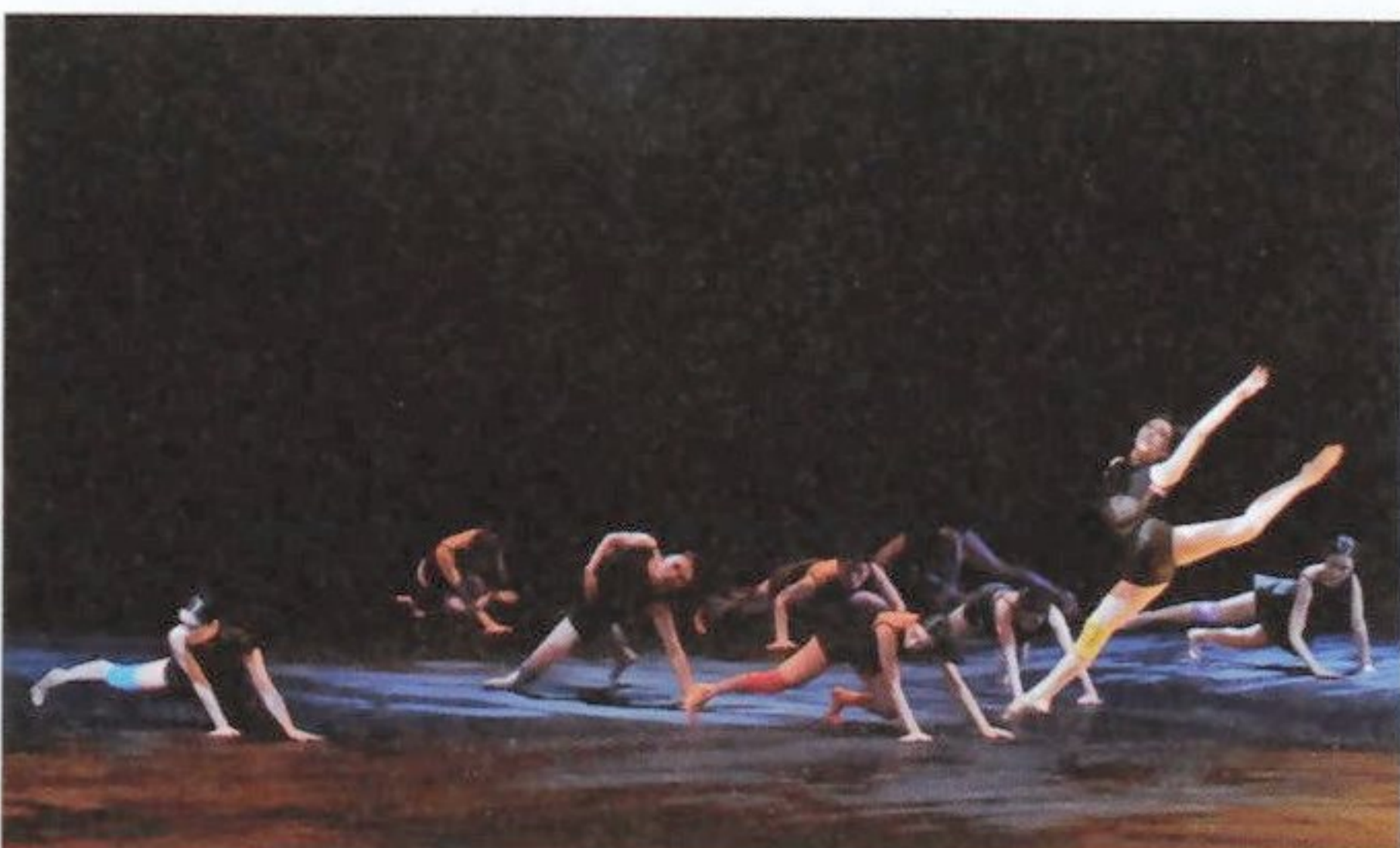
브루크너/테데움

황장수/정호승 어른이 읽는 동시집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 무지개떡, 개불알꽃, 여름밤, 저녁별 등

- 지휘/엄현섭 · 해설/김희성(동서대학교 교수)
- 피아노/이은혜 · 오르간/변경숙
- 솔리스트/소프라노 박미경, 알토 김수현, 테너 조윤환, 베이스 권영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5회 무용정기공연

7월 1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011-9147-2733, 514-1230)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무용 정기공연 무대.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교육부장 성은지의 총 안무, 연

출로 창작무 '태양을 입다'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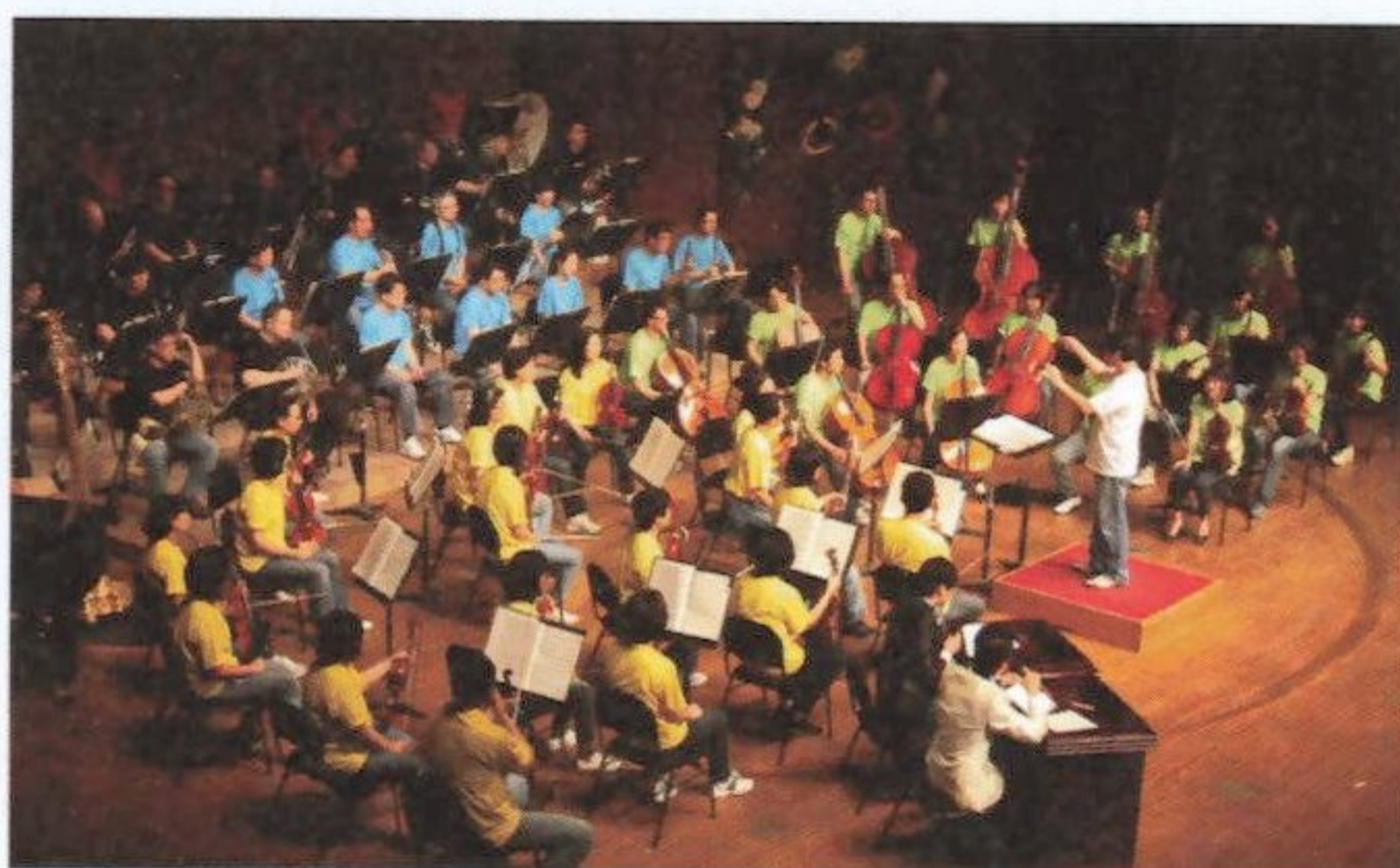
· 총 안무 및 연출/성은지

출연

김육진, 송수현, 양병현, 여지민, 이다솔, 이정희, 정지우, 조은채, 권오준, 김보은, 노태형, 선형규, 송새미, 송주원, 이선진, 이정연, 장승연, 조단비, 최지훈 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2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30명이상 단체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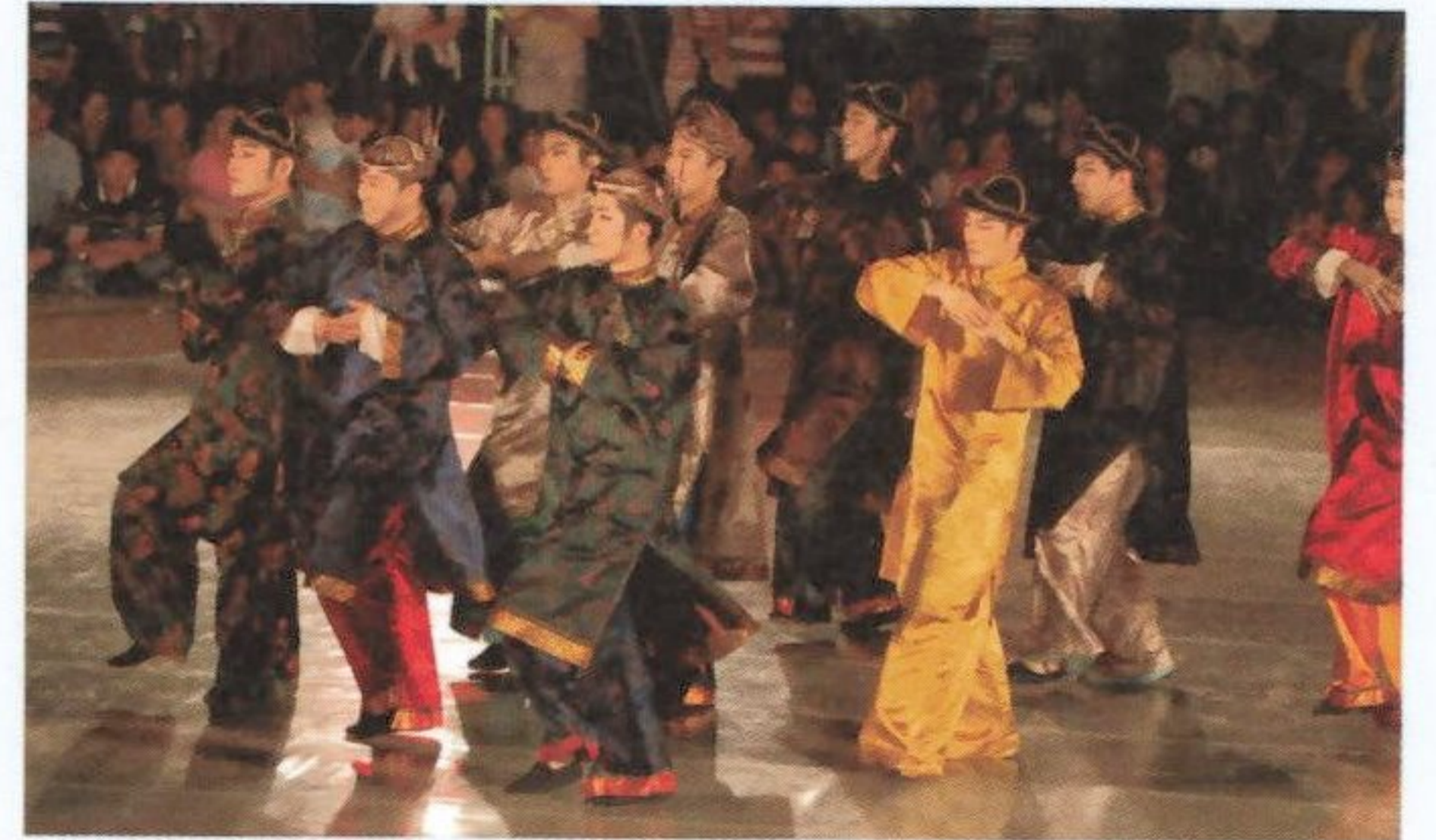


어린들에게 오케스트라와 악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눈높이 음악회 악기가족 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바이올린 마을, 피리마을, 나팔마을, 타악기마을, 지휘자와의 만남, 한마음 음악회의 순서로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음악극 형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출/변진호(뮤지컬 컴퍼니 '끼리프로젝트' 대표)
- 출연/박범진, 이형은, 안수빈, 고지웅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무용단 2012 여름마당춤판 '방귀쟁이 며느리'

7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8:00 **야외공연장**
 (우천 시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011 여름마당춤판 '효녀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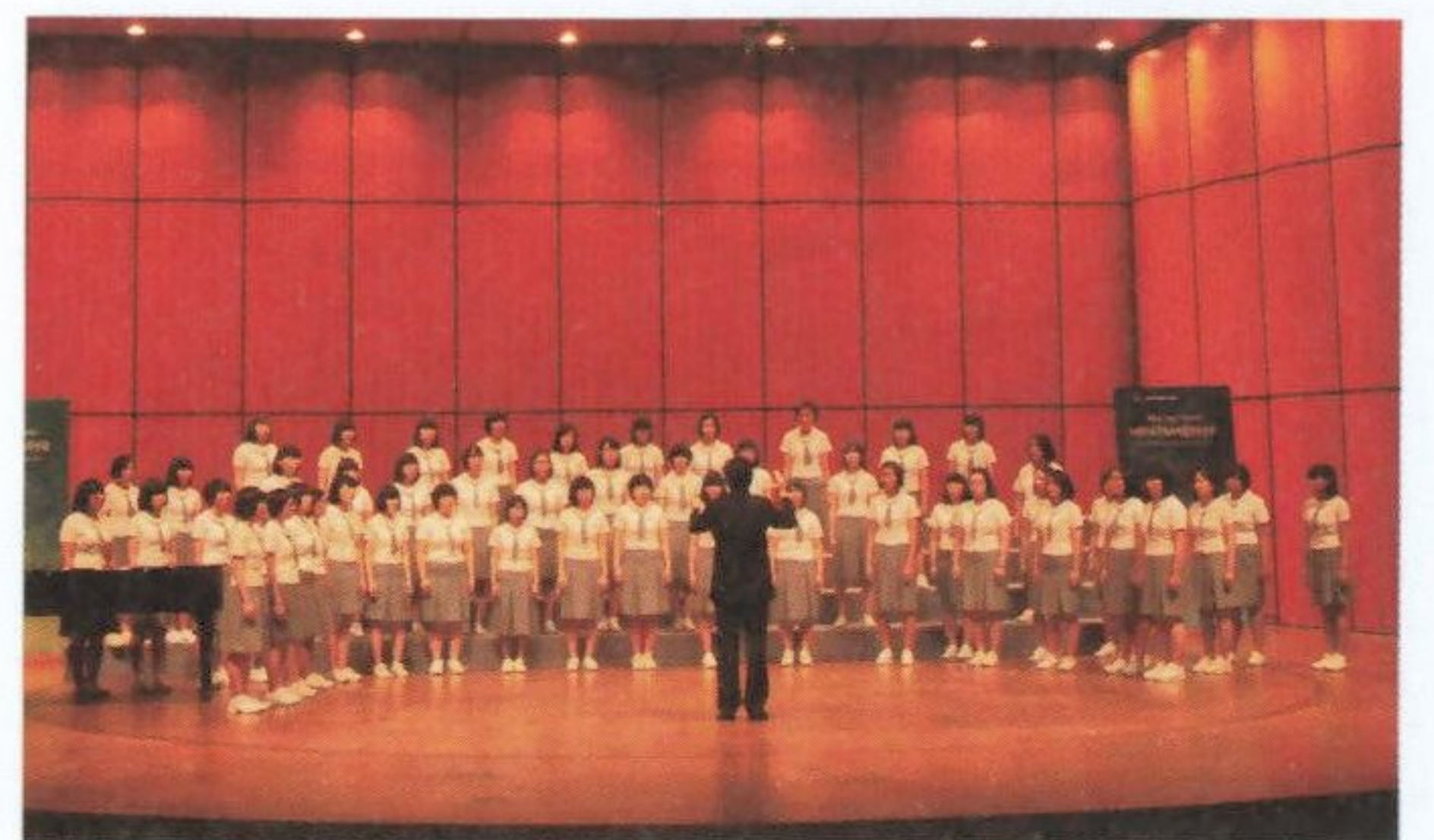
매년 여름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는 친근함과 해학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2012년 무대.

올해는 방귀쟁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자신의 단점, 콤플렉스인 방귀 때문에 자신 안으로 숨어버리는 주인공 봉순이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틀에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재미있게 펼쳐진다.

- 안무,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각색, 대본, 연출/황해순
- 작곡, 편집/최상인 · 의상/민천홍
- 특별출연/스텝크루(STEP CREW)
- 주요배역/김시현(며느리 봉순이), 권봉정(뽕뽕이), 이정식(시아버지), 이현숙(시어머니), 이성원(방귀 친구), 황동해(신랑)

제8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7월 21일 토요일 오후 12:00, 3:00,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622-0534, www.koreachoral.or.kr)



제7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대상팀 마산제일여고 합창단

매년 여름 청소년들의 순수한 예술열정을 합창을 통해 발산시켜주는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여덟 번째 축제. 차세대 예술인 양성의 디딤돌이 되어온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는 7세에서 19세까지 전국 각지의 초등부 및

중·고등부 합창단들이 참가,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합창경연대회로 발전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중, 고등부 금상 수상팀 목포 덕인고등학교와 2008년 대상팀 구미 현일고등학교, 본 대회에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섭렵한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5회 대회 대상을 수상한 충남 대천여자중학교 옥가티 코러스, 본 대회에서 은상과 금상을 수상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등 전국 26개 청소년합창단, 1100여명의 단원들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콩쿠르는 낮 12시에 초등부 경연을 시작으로, 오후 3시는 중고등부 경연이 열리고 저녁 7시에 열리는 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경은 피아노 리사이틀

7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경남예고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이경은의 귀국 독주회. 부산연주가클럽 콩쿠르에 입상한 이경은은 현재 한국 피아노학회회원, 동국대학교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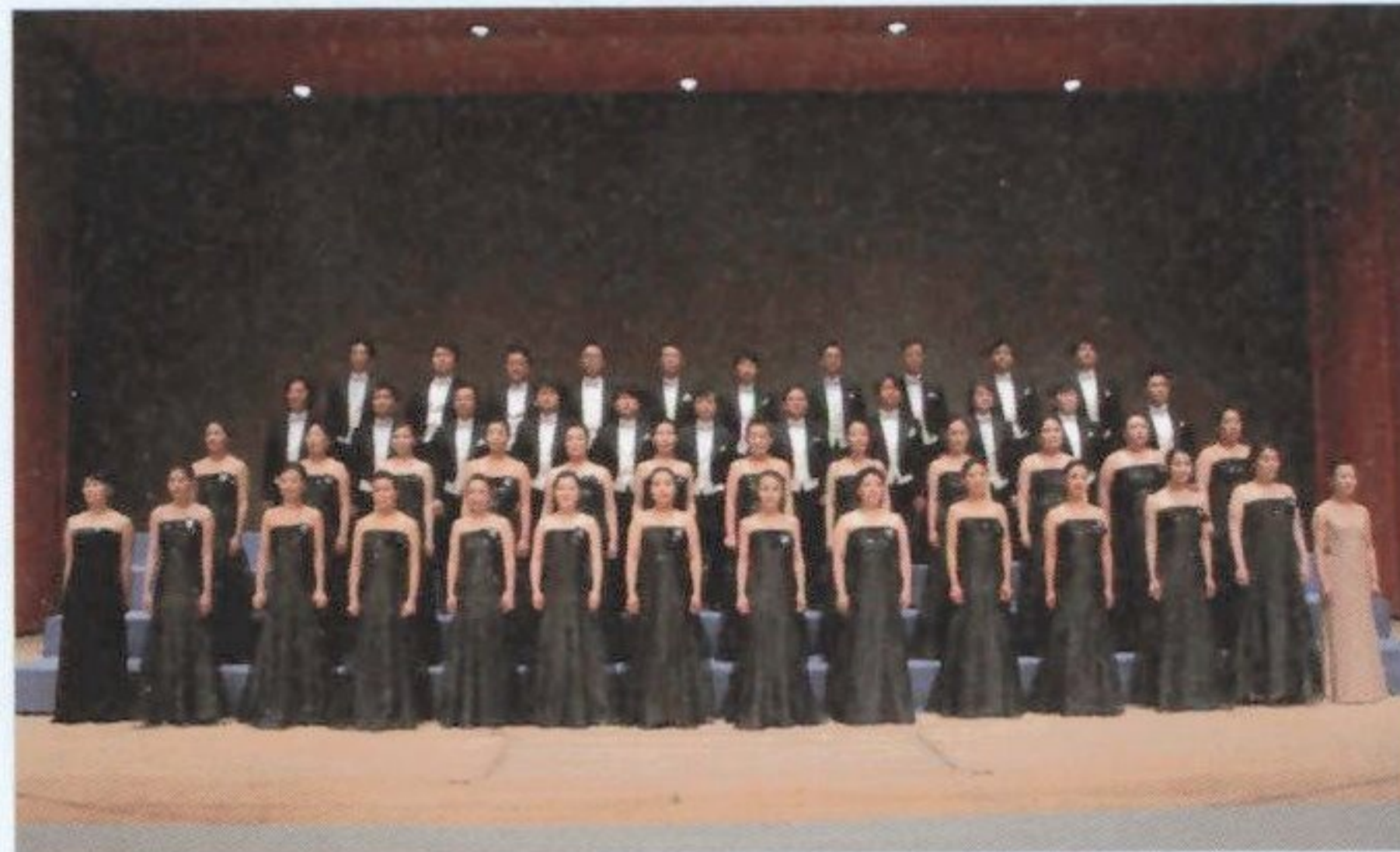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2 제11번
 라벨/밤의 가스파르
 브람스/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작품 24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Concert 'Summer Fantasy'

7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6월 취임연주회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오세종 수석지휘자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요 합창음악회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 'POP합창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기존의 POP합창음악회 컨셉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Soul(영혼), Body(몸짓), Love(사랑), Joy(기쁨)의 4가지 테마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펼친다.

프로그램

테마1. Soul(영혼)/My Lord, What a Morning(주여, 아침입니다), 흑인 영가 메들리
 테마2. Body(몸짓)/ABBA 'Dancing Queen', 설운도의 '상하이 트위스트', 영화음악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 '셀 위 댄스' 중 'Sway'
 테마3. Love(사랑)/뮤지컬 '닥터 지바고' 중 라라의 테마,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메들리'
 테마4. Joy(기쁨)/썸머타임, 보헤미안 랍소디, 비지스 멜로디 등 수곡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연출/박흥영(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 특별출연/조영수(부산대학교 교수, 테너), 홍광현(기타), 김진훈(드럼), 김정태(기타)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7월 25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부모회장
 (010-6662-4123)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인격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02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롯데백화점 초청공연, 부산지하철 초청 음악회, 광안리 야외무대 공연, 장산 대천공원 야외무대, 가을야외음악회 등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보케리니/플루트협주곡 라장조 작품 27



정홍기 안준형 이채현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팝음악/The Best of Queen., Mamma Mia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협연/안준형(플루트, 초장중 3년), 이채현(바이올린, 구서여중 1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 해설 음악회'

7월 27일-28일 금-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한 음악선물 '청소년해설음악회'. 클래식음악에 친근감을 길러주기 위해 어렵게 느껴온 클래식음악을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동요, 가곡, 민요 등 우리 음악으로 흥겨운 무대를 연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과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이 곡의 감성을 살린 다채로운 편곡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27일(금) 우리 가곡과 동요
 합창/최석태 '동요메들리 5월의 꽃'
 독창/잔디밭에는, 바닷가에서, 여우이야기, 나뭇잎 배, 하안달무리, 나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중창/고향의 봄, 반달, 연날리기, 하늘나라 동화, 따오기
합창/고향의 봄, 신아리랑 등 수곡

■ 28일(토) 우리 민요

프로그램

합창/새야새야 파랑새야, 도라지, 신고산 타령, 강강수월
래, 추천가

시조/평시조 '청산은'

가사/매화가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교향악단/김효빈, 박예지, 정희경, 최지예(현악 4중주)

· 합창단/김진영, 최성규, 최선희, 김나영, 이재원, 이승윤

· 무용단/황동해(동래학춤)

· 특별출연/카운터테너 김종영, 한국소년소녀정가단

하예린(대명여고 3년), 손다정(부산예고 2년),

최지연(사직고 2년), 홍주현(브니엘국제예중

3년), 이유림(국악중 3년), 임유정(명호중 3년)

한여름 밤의 콘서트

7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중고생 5천원

문의 | 강재권(016-5317-4728)

감미로운 우리가곡과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무더위를
식혀줄 한여름 밤의 음악선물 '한여름 밤의 콘서트'.

프로그램

거쉬인/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쌈머타임'

벨리니/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 '애, 못 믿을 손'

박판길/산노을

모차르트/오페라 '돈조반니' 중 '손에 손 잡고'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김미성, 정성희, 이영은

테너/노주하, 김한길, 조주한

베이스/문동환

· 피아노/이현주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

7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장진(010-2980-0115)



1998년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창
단된 부산 YMCA 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12년 부산청
소년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들려주는 제
17회 정기연주회.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결성된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는 2006년 장진 상임지휘자를 영입하면서 다양한 장르
의 레퍼토리 개발, 청소년 음악의 폭 넓은 수용 기회 제
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7번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요한 슈트라우스/왈츠 푸른 도나우 등 수곡

· 지휘/장진(부산예술중오케스트라, 한국과학영재학교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창단 5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2012 중국순회연주회 성공 기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7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8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한·중 수교 20주
년을 기념해 중국 순회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교향
악단의 중국순회연주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12 중
국 순회연주회' 오프닝 무대.

수석 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2010 센다이 국제 콩쿠
르에서 최연소로 4위 입상과 청중상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디딘 떠오르는 샛별, 바이올리니스트 김
봄소리가 협연한다. 2010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 한
국인 연주자로는 유일하게 입상한 김봄소리는 중국 칭
다오에서 열린 차이나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과 Classical Music Prize와 Lin Yao Ji 재단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Lin Yao Ji prize를
함께 수상, 중국 칭다오와 사먼, 베이징 등 중국 3개 도
시에서 투어 연주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루 치밍/홍기송 (紅旗頌)

시벨리우스/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10번

· 지휘/리 신차오(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김봄소리(바이올리니스트)

※ 7월 1일~8월 14일 기간 중 소극장 시설공사로
인하여 토요일상설무대 공연이 없습니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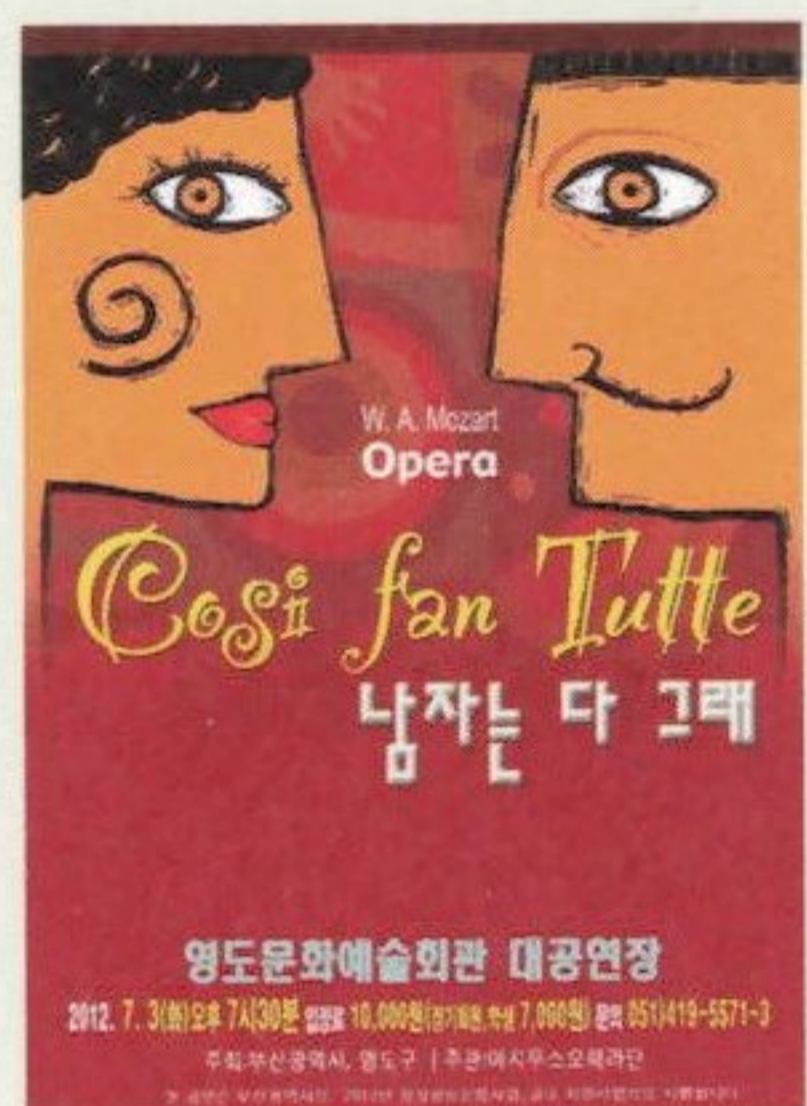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Music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오페라 '코지 판 투테(남자는 다 그래)'

7월 5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 3대 오페라부파로 꼽히는 '코지 판 투테'.

남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코믹한 해프닝을 그린 희극 오페라이다.

출연/소프라노 김영지, 김

정현, 윤현주, 테너 조동훈, 바리톤 박종준, 조성빈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5일 Two Violin Concert



김혜진 Mathieu Baduel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신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과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Mathieu Baduel의 듀오 무대.

· 피아노/김기연

12일 허브오카리나양상블 연주회

2003년 창단 이후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시청 로비콘서트, 가야문화세계축전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허브오카리나양상블이 들려주는 '여름밤에 듣는 자연의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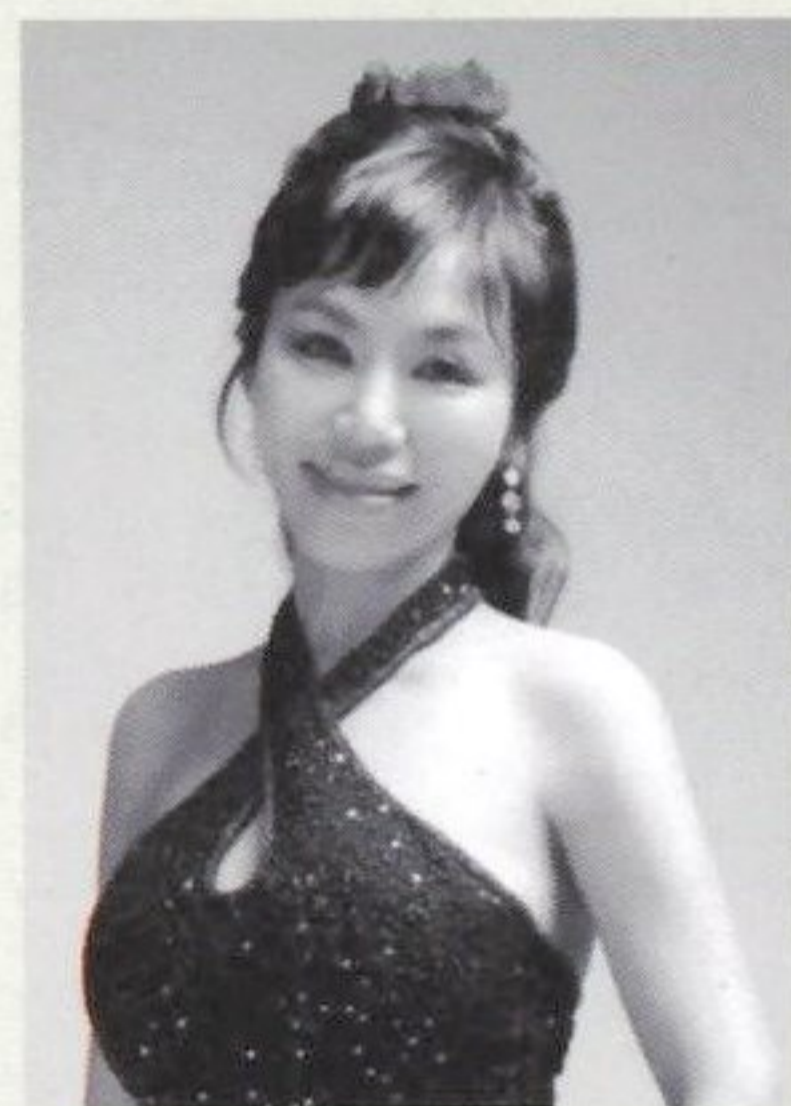
프로그램

장난감교향곡, 사냥꾼의 합창, 엘콘드르 파사, 타이타닉 주제곡, 내맘의 강물, 향수 등 수곡

· 연주/윤경자, 김영선, 정수련, 강현숙, 현홍애, 장형심

· 특별출연/임재근(피아노)

19일 소프라노 임혜정 리사이틀



체코 오파바(Opava)음악원과 오스트리아 빈음악원, 이태리 ARAM.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임혜정의 무대.

· 피아노/문상인

· 바이올린/김성은

20일 Three Soprano Concert

소프라노 우명화, 이정윤, 김보라가 들려주는 3인 3색 무대.

프로그램

엔리오 모리꼬네/넬라 환타지아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신귀복/얼굴

드뷔시/꼭두각시 등 수곡

26일 앙상블 블루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최미경, 콘트라베이스 주자 박희철, 피아니스트 한경수로 구성된 앙상블 블루가 들려주는 '내 마음 꿈 속의 영화음악'.

여인의 향기, 디어헌터, 왕과 나, 신들러 리스트, 올드보이, 시네마천국, 러브스토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 주제곡을 들려준다.

을숙도문화회관 금요해피콘서트
스트링 앙상블 with Di Mare

7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포근하면서도 잔잔한 바다의 소리를 화음으로 전달해온 현악 앙상블 '디 마레' 무대.



프로그램

그리그/홀베르의 시대 중 전주곡, 사라방드, 가보트, 기고동

비발디/사계 중 여름

크라이슬러/아름다운 로즈마린

몬티/차르다시 등 수곡

· 연주/이은옥, 김영주, 민정화, 조양희, 강선덕, 김은아

(이상 바이올린),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이상 비올라), 김근아, 서송은(이상 첼로), 박정숙(더블베이스)

· 솔로/이은옥(바이올린), 박혜령(마림바)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7일 프로그램

대취타, 산조춤, 남도민요 '신벚노래, 동해바다', 부채춤, 가사 '수양산가', 좌수영어방놀이, 판굿

14일 프로그램

삼고무, 수롱음, 동래학춤, 대풍류, 태평무, 경기민요 '구아리랑, 양산도, 울산아가씨', 밀양백중놀이 중 '오복춤, 범부춤'

21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판소리 '수궁가' 중 '고고천변', 살풀이춤,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가야금병창 '녹음방초', 불모산 영산재 '바라춤, 나비춤', 산조합주, 꽃나부풍장놀이

28일 프로그램

풍물굿패 소리결 초청공연

김지현 피아노 독주회

7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미국 이스트만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한연회, 울산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지현 독주회.

김지현은 그동안 투명하면서도 명징한 사운드와 화려

한 스케일이 돋보이는 자연스러운 테크닉, 음악에 대한 깊은 곡 해석으로 청중과 교감해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311

쇼팽/녹턴 작품 27 제2번

그라나도스/알레그로 콘체르토 작품 46 등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서희태

매 월 영화를 테마로 영화와 음악에 관한 전문적 내용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마티네 콘서트 7월 무대로, 영화감독 이창호와 지휘자 서희태, 명품성악그룹 스위트포가 함께한다.

이창호 감독의 영화에 등장

하는 남자주인공을 통해 대한민국 남자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자리로, 영화 속 명곡들과 남성상을 대변하는 특별한 아리아를 들려준다.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11일 김남순-시원한 가야금 독주회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장으로 있는 김남순 가야금 독주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김남순은 그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해외연주회를 통

해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프로그램

황병기/숲 중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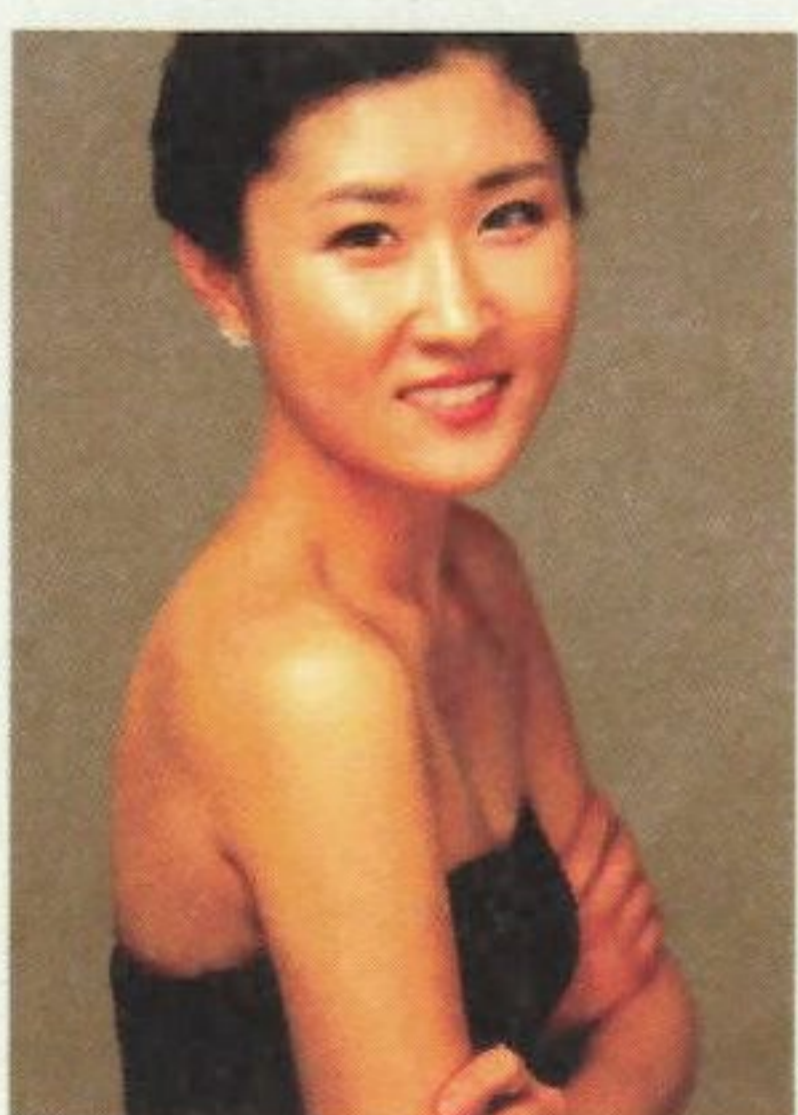
황익중/청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귀곡성 대목' 등 수곡

· 반주/신호수

· 진행/정영진

18일 이유현 피아노 리사이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뮌헨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유현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환타지 라단조

K.397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작

품 90 D.899 등

25일 김소형, 최지은 듀오 리사이틀

부산대학교와 미국 보스톤 콘서바토리, 하트포드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소형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피바디음대, 텍사스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최지은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1번 '환상곡-정경'

포레/모음곡 '돌리' 작품 56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작품 15

The House Concert

7월 12일(목)-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519-5651)



객석과 무대 사이의 경계없는 콘서트로 연주자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The House Concert'.

2012년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박종해, 국악계의 개성넘치는 뮤지션 해금주자 강은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객원 첼리스트 양욱진, 유럽 콘서트홀 협회 선정 라이징스타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부산이 낳은 클래식 유망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락앤롤 슈퍼스타'의 주인공 휴먼레이스가 출연, 클래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출연/피아니스트 박종해(12일), 해금주자 강은일(13일), 첼리스트 양욱진(14일 오후 4시),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14일 오후 7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15일 오후 4시), 휴먼 레이스(15일 오후 7시)

제21회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2006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클래식의 저변확대에 힘써 온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르투오즈 앙상블 리더, 아

이리스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하순봉/창작곡 'Entrainment for Orchestra'

부르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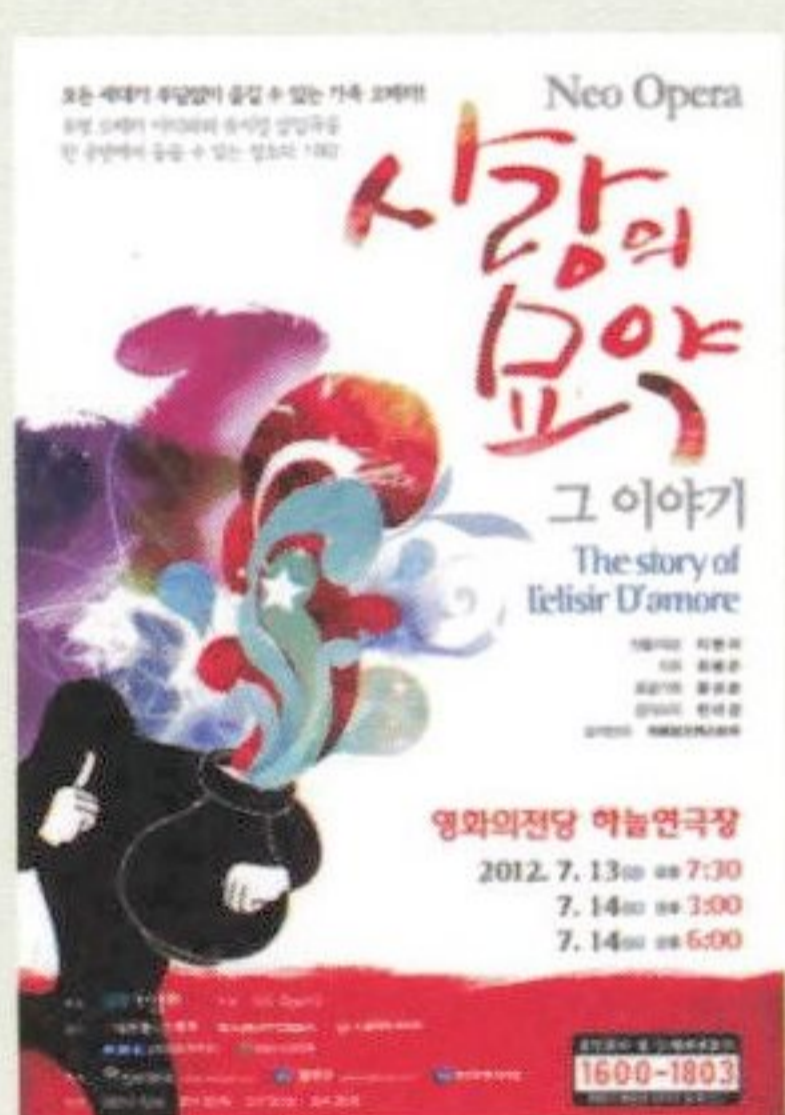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 지휘/임준오

· 협연/백재진

Neo Opera '사랑의 묘약' 그 이야기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00, 14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기본 줄거리로, 모든 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그 이야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외에도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시카고',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뮤지컬 넘버를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

- 연출, 대본/이현석 · 피아노/김혜진
- 출연/배은희, 류용현, 조광래, 최은혜, 김은진, 김은영, 황승일

김선영 피아노 귀국 독주회

7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선영 피아노 스튜디오(010-9985-0998)



프랑스 세르지푸투아즈 국립음악원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프랑스 Concours Musical de France, Paris 1등, 프랑스 CMF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Rouen 1등, 프랑스 아마하 콩쿠르 만장일치 우승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김선영 귀국 독주회.

김선영은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베토벤/소나타 작품 101 가장조
- 쇼팽/발라드 제4번 작품 52
- 라벨/밤의 가스파르 등

에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7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진홍(010-4563-7966)



1999년 창단된 후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영화음악, 동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을 만나온 에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연주회에서는 영화, 드라마에 삽입된 클래식곡과 OST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글록/오페라 '이올리스의 이피게니아' 서곡
- 모차르트/교향곡 25번
-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
-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삽입곡 등 수곡
- 지휘/김지세
- 협연/이유원(독창, 선텐초등 6년), 이효주(클라리넷)

제70회 한낮의 유:콘서트 '가곡'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제신문사(500-5222)



테너 정거화, 장원상, 바리톤 한정현, 박대용, 소프라노 이윤정, 변향숙, 김유진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세계 명가곡의 밤.

프로그램

- 보리밭, 내 맘의 강물, 옛날은 가고 없어도, 그리움, 제비, 오랑캐꽃, 그리운 나무들이여, 무정한 마음, 보리수, 켄터키 옛집 등 수곡
- 연주/바다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친구들과 선배들이 함께하는 음악회 with Frainds

7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광민정(010-3069-9777)

부산예중 1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무대.

- 피아노/박상현, 김빛나, 양수빈, 김예린, 김민지
- 성악/박선영, 백민정
- 가야금/이지현 · 해금/정세연
- 특별출연/허지수(바순, 3년)
- 찬조출연/권교희, 이주영, 김진수, 김연진(부산예고 사물놀이)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퓨전콘서트 공감 21

7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우리의 전통 타악장단과 인카문명에서 발생된 안데스 음악의 선율이 서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퓨전콘서트 '공감 21'. 누구나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연주곡 해설과 함께 안데스 전통악기 소개, 남미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라틴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토요 스쿨데이 콘서트'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김준영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마련한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모차르트, 엘가,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를 비교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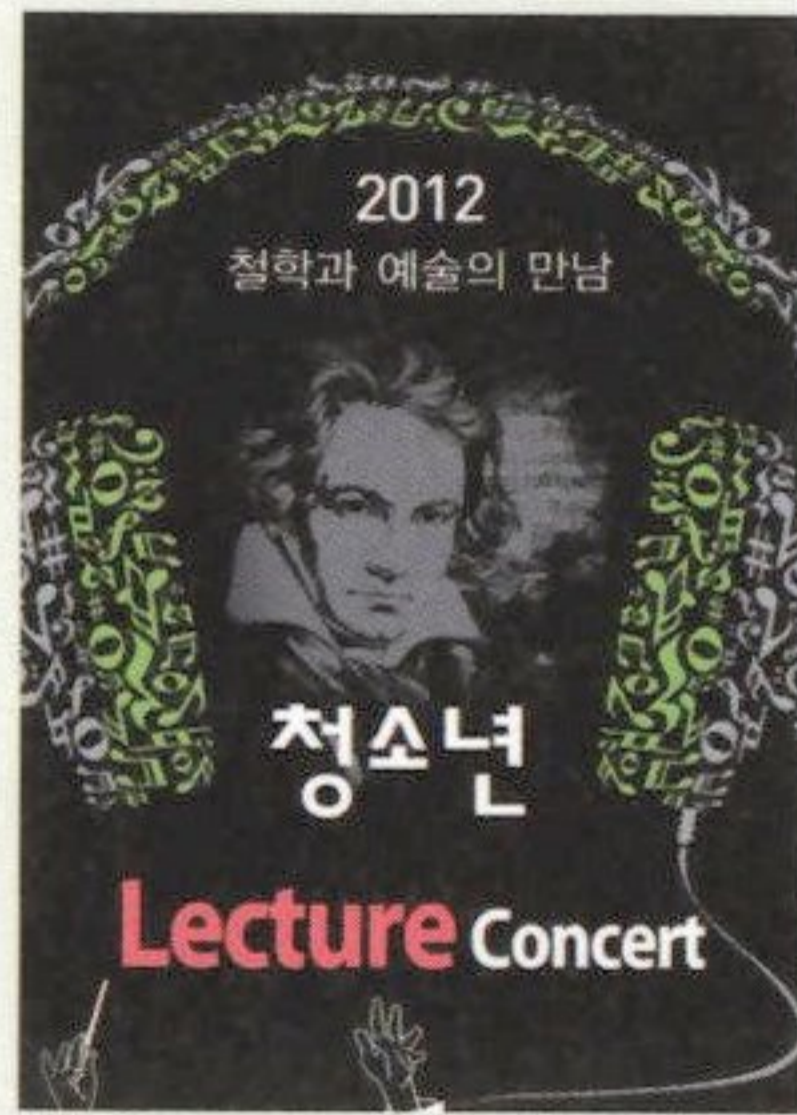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여름'
모차르트/세레나데
드보르작/세레나데 등 수곡
· 협연/김준영(바이올린)

2012 철학과 예술의 만남

청소년 렉처콘서트 '고뇌에 빠진 베토벤'

7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숙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네 번째 무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작곡가 박미선의 창작곡 '바람'을 들려준다.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동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작곡가 박미선은 창작 합창 21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주/T.I.F 오케스트라(지휘/박광식)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Shall Ws Sax 색소폰 퀸텟

7월 21일 토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입장료 | 균일 1만원(후원참석비, 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2008년 8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팝,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색소폰 퀸텟 'Shall Ws Sax' 무대로 마련되는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음악회.

프로그램

거쉬인/랩소디 인 블루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바흐/G선상의 아리아 등 수곡
· 연주/최정섭, 정원강, 김선민, 안왕식

하승경 피아노 리사이틀

7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서울대학교 음대와 미국 인디애나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하승경 귀국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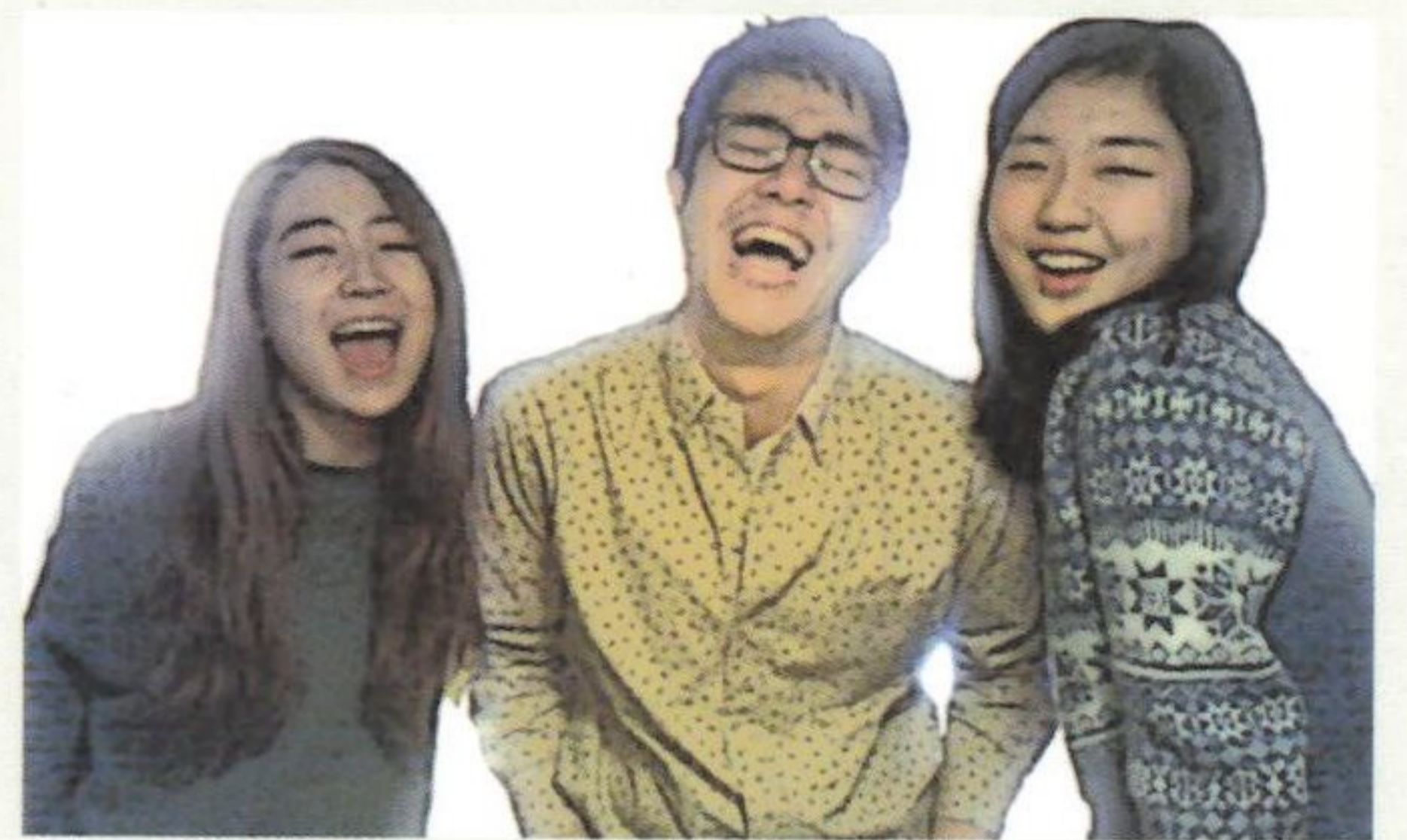
하승경은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 대통령상에 선정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올림바장조 작품 78
슈만/환상곡집 작품 12
드뷔시/기쁨의 섬 등

벗들과 함께 하는 '첫마음' 음악회

7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전예진(010-5621-7921)



예고동기로 만나 어느덧 대학생이 된 신승민(작곡), 전예진(피아노), 최미경(피아노)이 음악에 대한 '첫마음'을 나누고자 마련한 무대.

프로그램

신승민/피아노 소나타 제4번(2011)
바흐/이탈리안 협주곡 바장조 BWV 971
생상/죽음의 무도 등

동래문화회관 목요일국악콘서트

7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음악대륙 가이아'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일국악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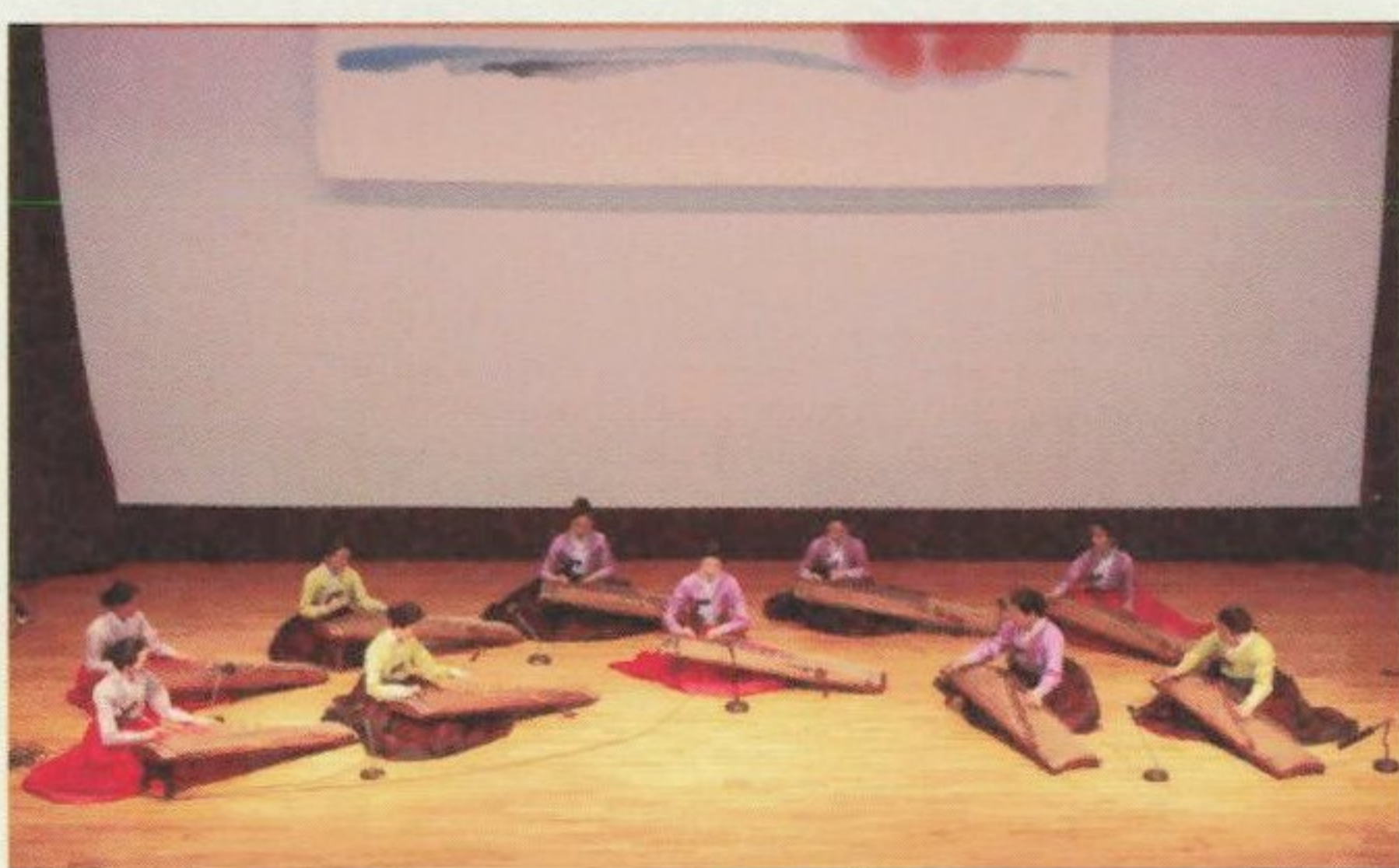
프로그램

경기민요연곡,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의 속삭이는 대목', 창작국악가요 '숙대머리', 드라마 '대장금' OST 중 '하망연', 비틀즈 연곡 등 수곡

부산가야금연주단

'더 가야금 파티(The Gayageum Party)'

7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입장료 | 무료(전화예약 필수)
 문 의 | 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1~3)



북구문화빙상센터 상주예술단체인 부산가야금연주단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김남순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은 그동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가야금 선율의 아름다움을 알려왔다.

프로그램

가야금 산조합주, 가야금 정악합주, 비틀즈 vs 가야금, 파헨벨의 캐논, 바람의 향기, 라틴 탱고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제55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7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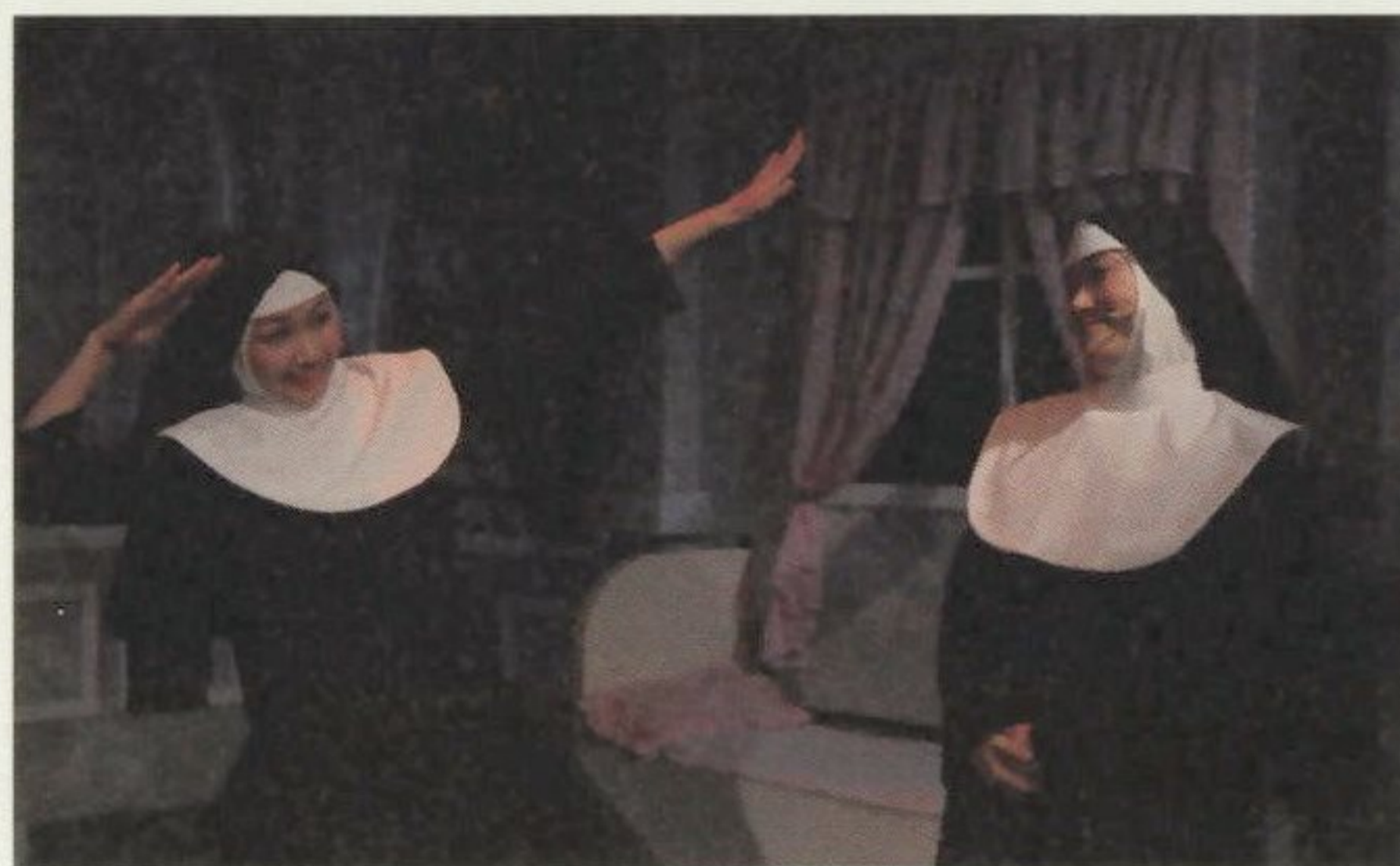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로, 실내악 연주, 독주,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지난 20년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온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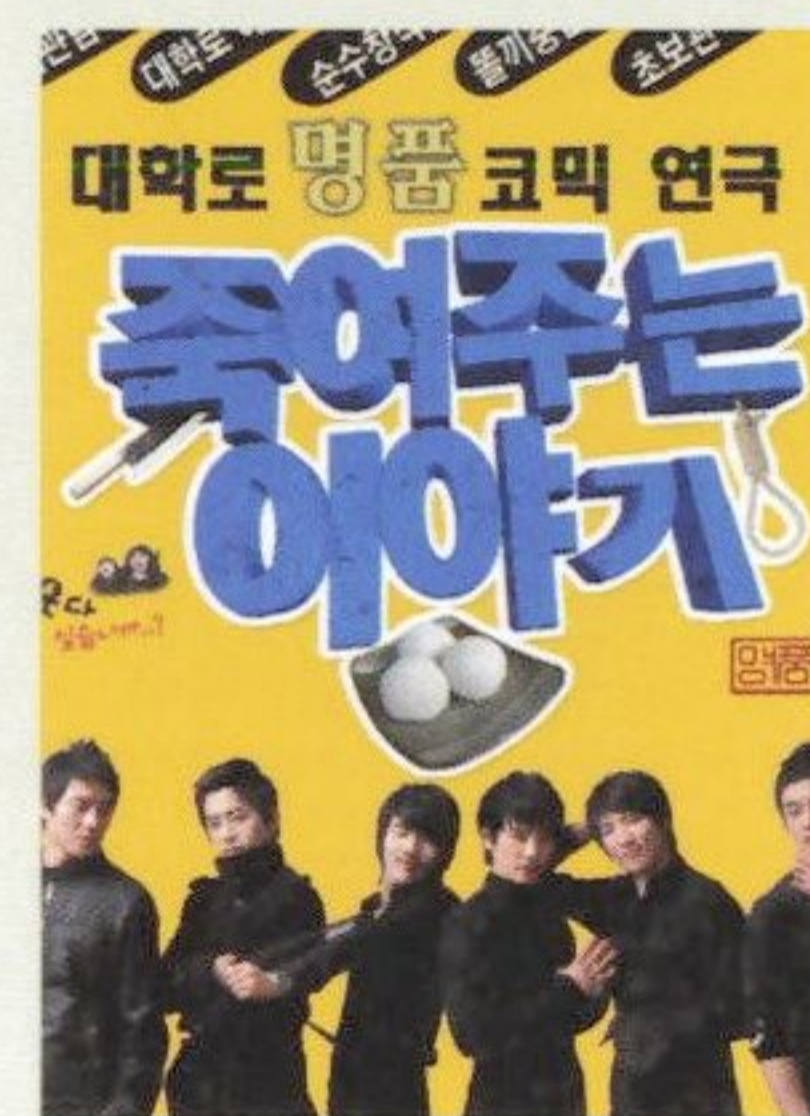
윤형빈쇼 with Friend

1월 1일(일)-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윤형빈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형빈소극장(610-1003)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주말 마련하는 개그쇼로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직 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2012 죽여주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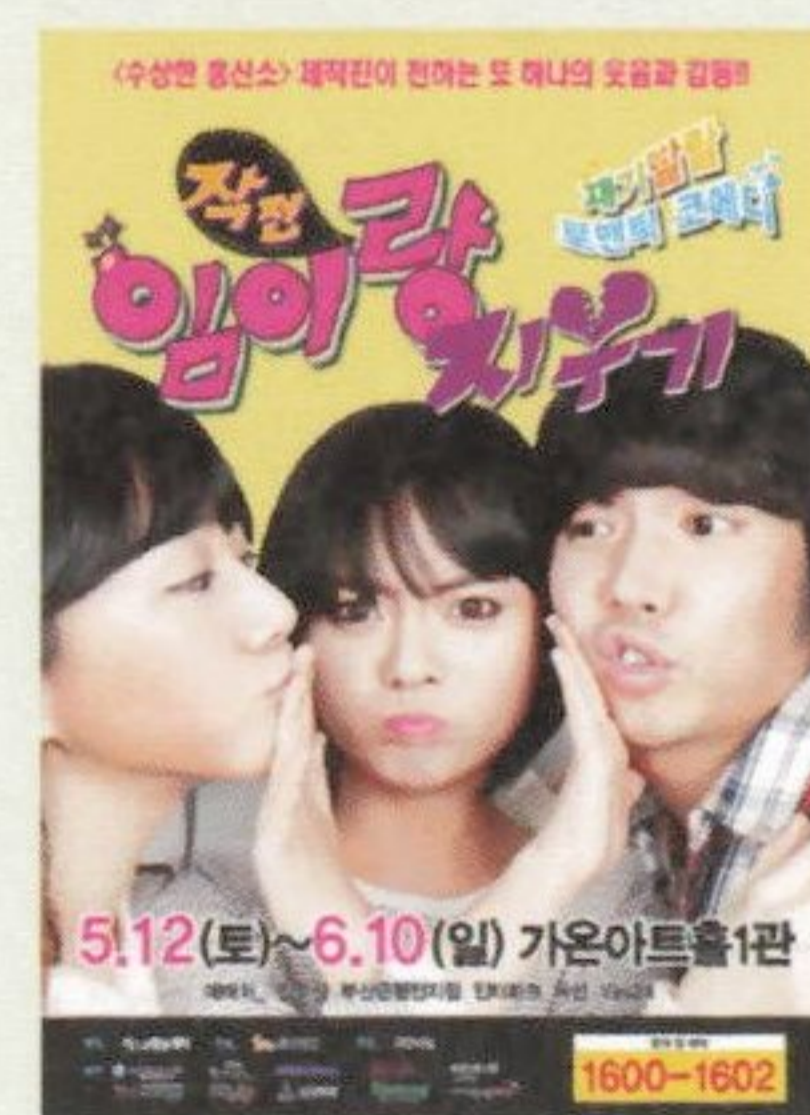
4월 20일(금)-7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주말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금요일 낮공연 1만 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현시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을 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폭소 블랙코미디극.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작전! 임이랑지우기'

5월 12일(토)-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2027년을 배경으로, 자신을 낳아 죽은 엄마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임이랑이 자신의 운명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5월 18일(금)-7월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청소년 1만 5천원
(예매시 30% 할인)

문의 | 용천지랄소극장(625-0767)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작, 연출/김세환
·출연/박태수, 신현규, 최영

무, 이태경, 한혜경

호러연극 '두여자'

6월 5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2012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전 4 인간

6월 14일(목)-7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대학생 2만원
초중고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유일한 희곡소설을 원작으로, 인류 최후의 남녀 두 명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경이와 서스펜스의 2인극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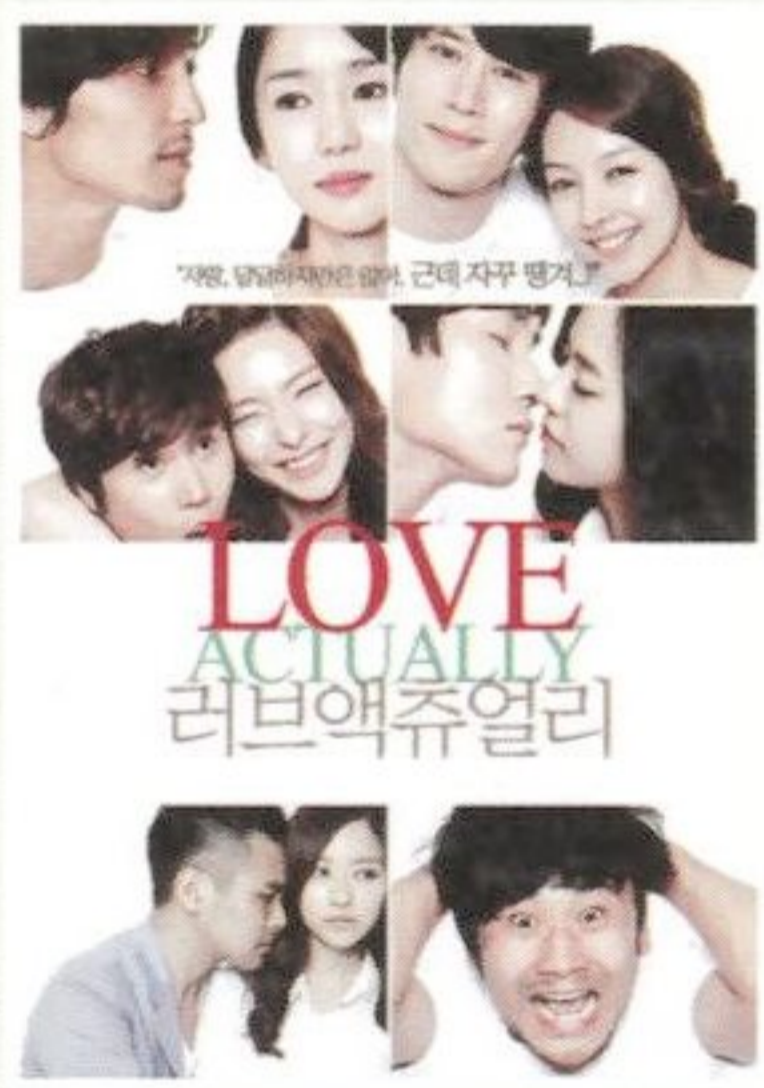
·원작/베르나르 베르베르 ·각색, 연출/장우성
·출연/김선미, 박태수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6월 26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6월 26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6월 28일(목)-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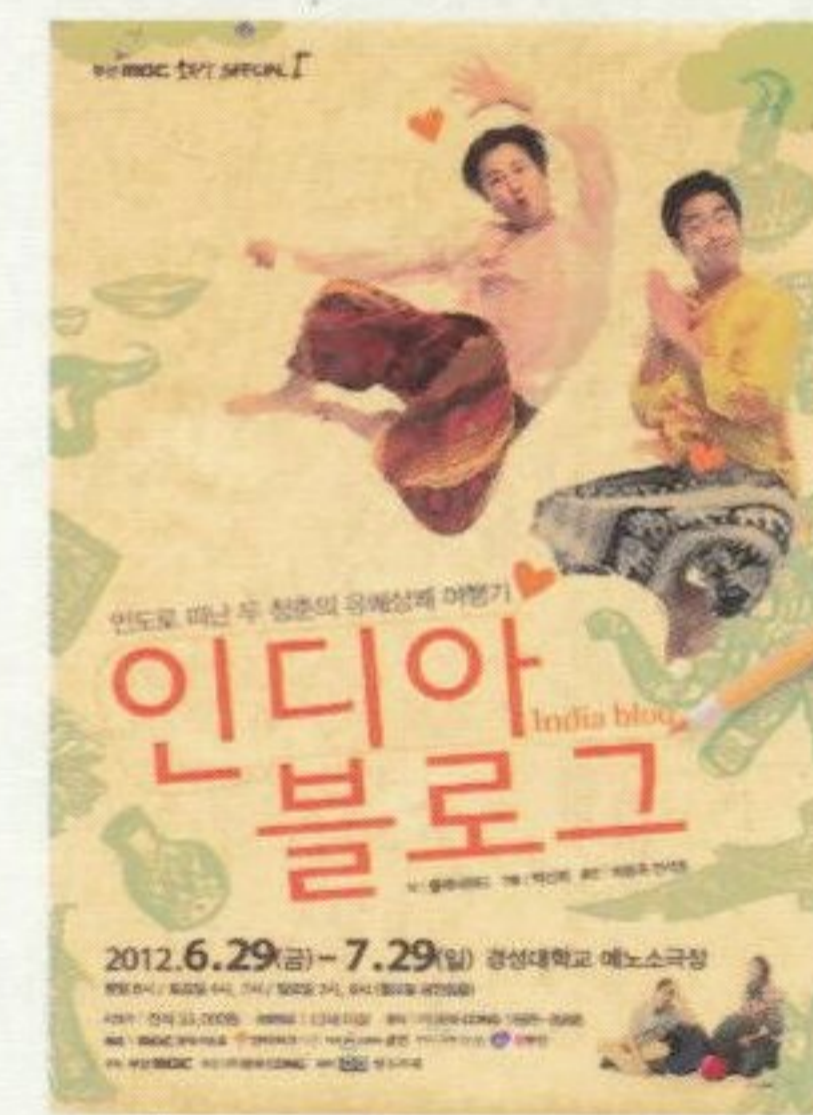
고위관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좌충우돌 러브 버라이어티 '도둑놈 다이어리'.

연극 '인디아 블로그'

6월 29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3천원

문의 | (주)문화콩(1688-8998)



사랑을 찾아 떠난 남자 혁진과 사랑을 잃어버린 남자 찬영의 인도여행을 통해 청춘의 사랑과 낭만에 대한 유쾌한 송가 '인디아 블로그'.

·작/플레이워드
·연출/박선희
·출연/박동욱, 전석호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6월 29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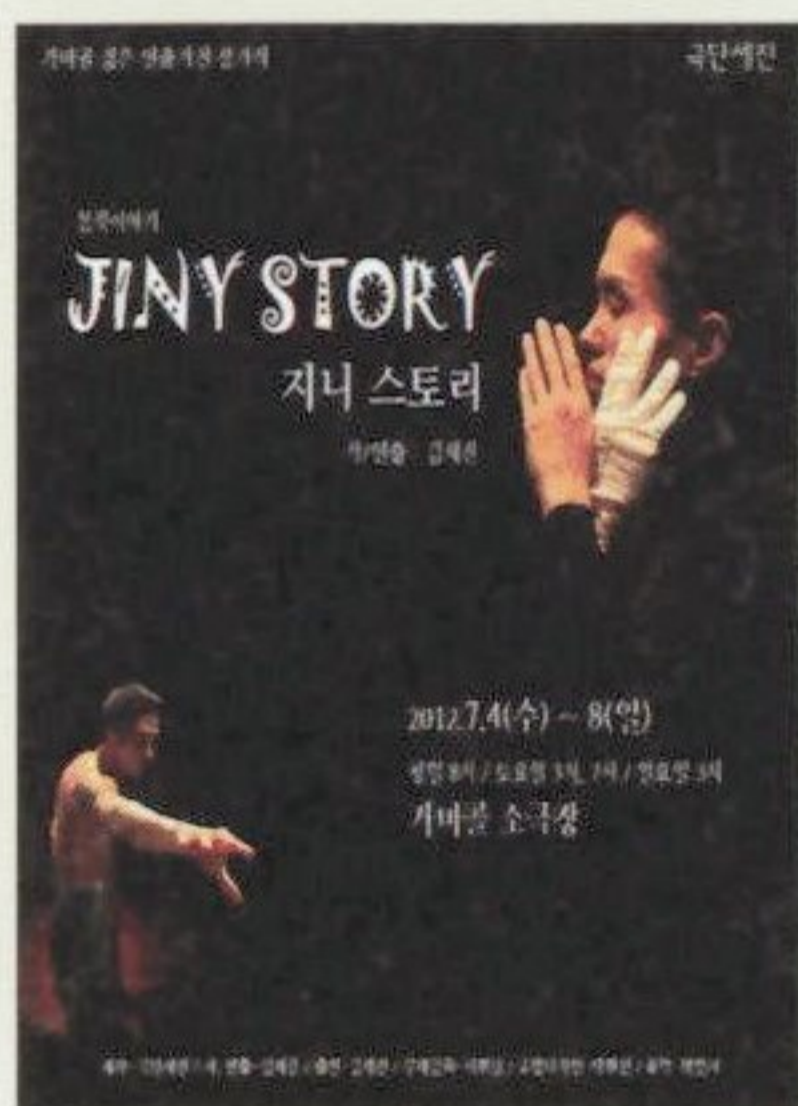


버럭질 최강의 무뚝뚝한 남편 봉식과 번덕쟁이 씩씩 아내 필레의 37년간 러브스토리를 그린 뮤지컬드라마로, 부부의 삶과 어우러진 추억 속 주옥같은 가요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작, 연출/위성신 ·음악감독/마창욱
·출연/이성호, 김문성, 김아영, 조민정, 조영임 외

**2012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전 5
몸짓이야기 '지니스토리'**

7월 4일(수)-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2008 세계텔레픽대회 즉흥 마
임부문 동메달을 수상한 마
임이스트 김세진이 선보이
는 유니버스 마임극.
그동안 호평 받았던 작품들
중 신선한 소재와 기술적 완
성도가 높았던 작품 파리,
바퀴벌레, 입맞춤, 어느 광대
이야기, 어머니, 사진사 등 6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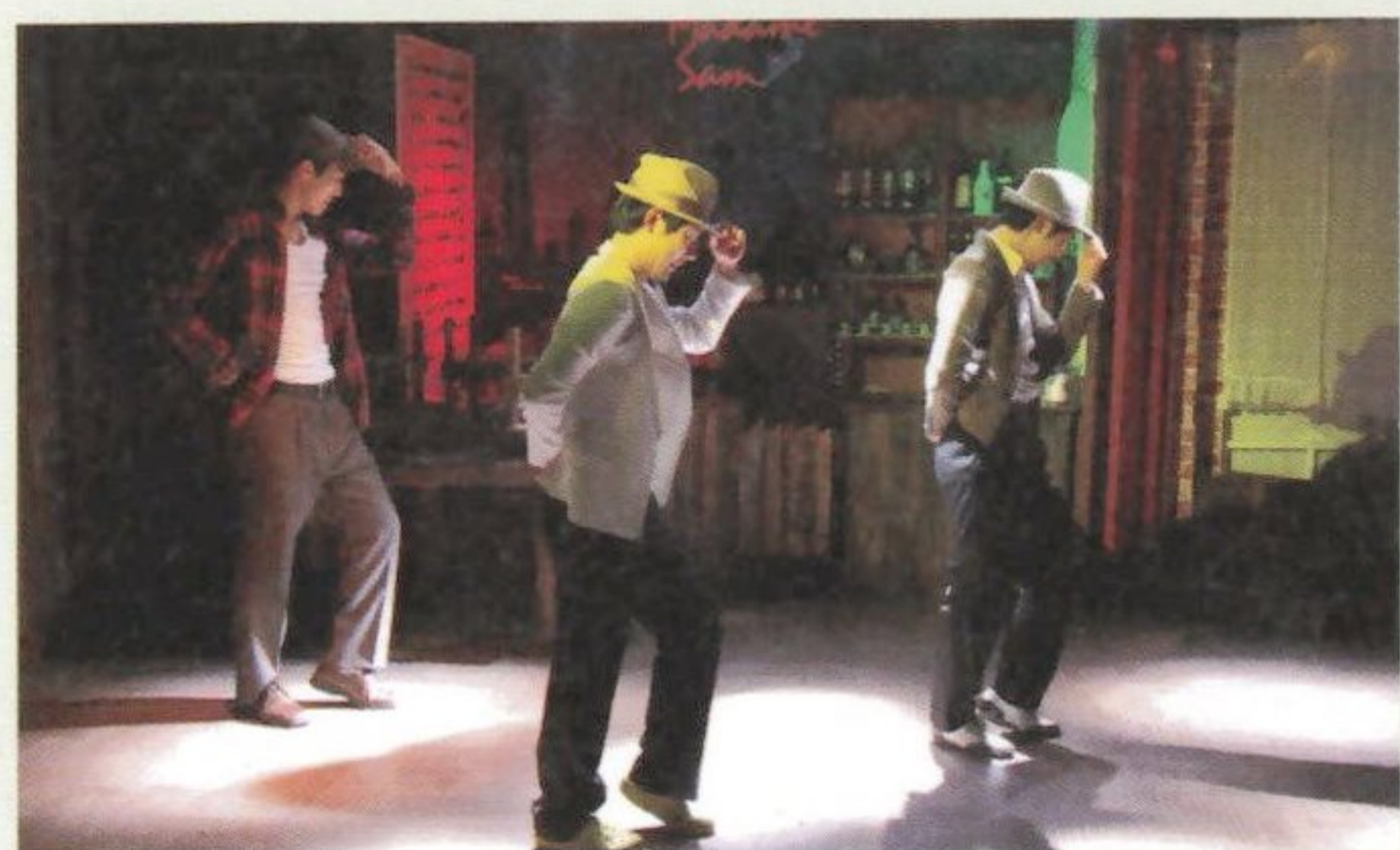
제2회 독한 페스티벌

7월 4일(수)-29일(일) 미리내소극장
(상영작별로 시간, 날짜 확인)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극단 아센(504-2544)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휴식같은 공연을 선사하
기 위해 예술사회 아센이 마련한 제2회 독한 페스티벌.

연극 '놈놈놈 그리고 女'

4일(수)-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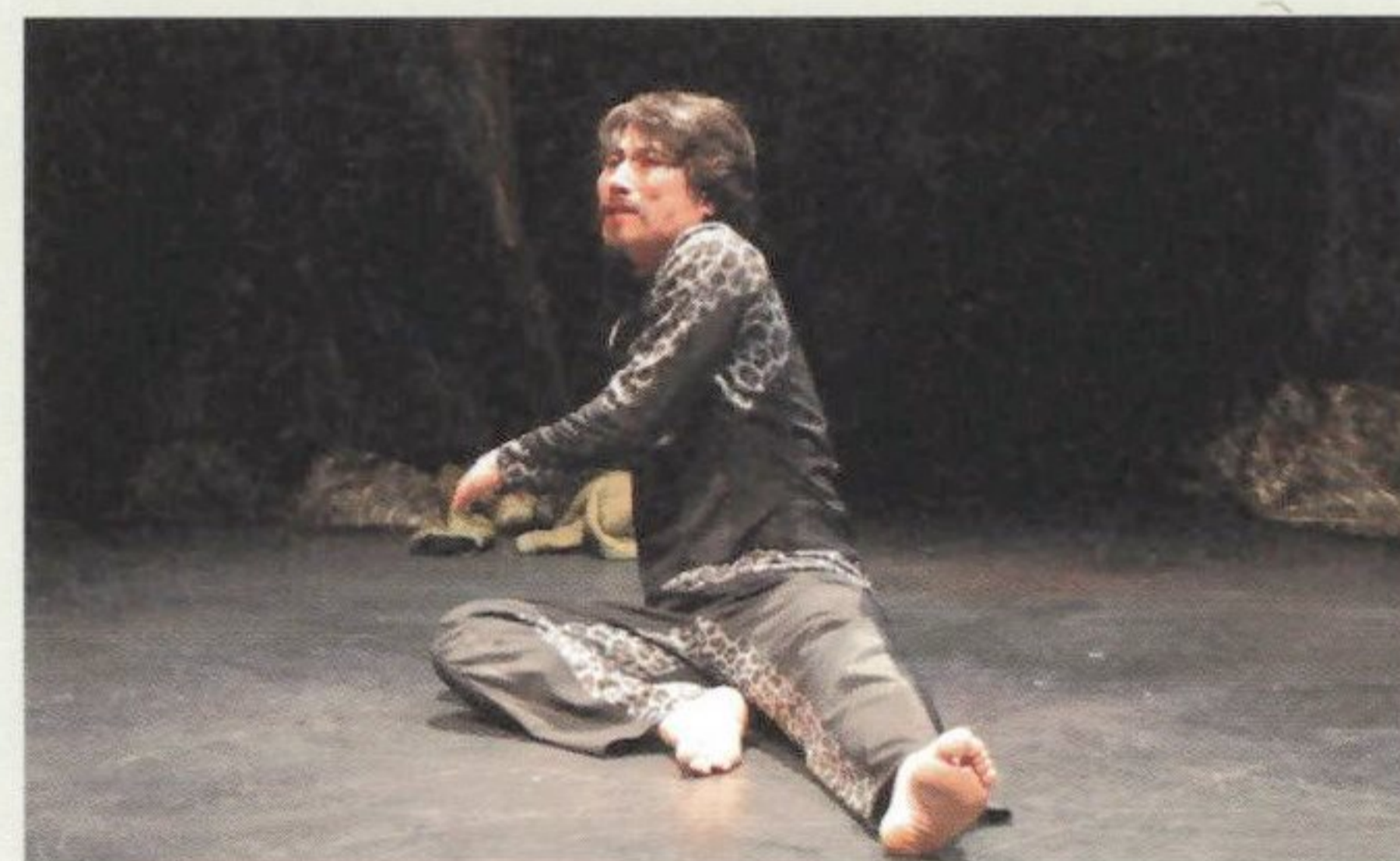
당첨된 복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단상 연극 '놈놈놈 그리고 女'.
· 작,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한성륜, 박규남, 한동진

마임극 '원숭이 피터'

11일(수)-1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카프카 원작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새로운 시
각으로 각색, 탁월한 디테일과 리얼한 연기로 선사하는
마임이스트 김세진 마임극 '원숭이 피터'.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18일(수)-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다리오 포의 탄탄한 희곡을 바
탕으로, 에너지 넘치는 배우 권철의 열정적인 연기로 웃
음과 감동을 전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 '호랑이 아줌마'.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27일 금요일 오후 8:00, 28일 토요일
오후 3:00, 6:00, 29일 일요일 오후 4:00

팍팍한 일상속에서 자살증후군에 시달리는 주인공을 통
해 현대인의 통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구민주 모노드라
마 '영순아 어디가니'.

이번 작품은 소소한 일상으로 부터 오는 행복감을 일깨
우면서 고단하기만 한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를 다독여
준다.

연극 '노이즈 오프(Noises Off)'

7월 13일 금요일 오후 7:40, 1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주)문화공(1688-8998)



연극 '빈집 대소동'을 공연하면서 생기는 연출자와 배
우, 스태프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빠른 구성으로 풀어낸 코풍격 코미디극 '노이즈 오프'.
· 원작/마이클 프레인 · 연출/백원길
· 출연/서현철, 황정민, 안신우, 장현성, 전배수, 김동곤,
백원길, 김로사, 정의욱, 김광덕, 이주원 외

연극 '로맨틱 코미디'

7월 14일(토)-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오래전부터 사랑 고백의 타이밍을 노리던 간호사 시은
과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환자 인호의 러브스토리 연
극 '로맨틱 코미디'.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초록마술사의 재미있는 마술여행

7월 14일(금)-15일(일), 28일(토)-29일(일),
8월 11일(토)-12일(일), 25일(토)-26일(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일요일 오전 11:00
가은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신기한 마술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환경보호 매지컬 '초록마술사의 재미있는 마술여행'.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공연

7월 20일(금)-8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월요일 공연없음)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의 | 인터파크(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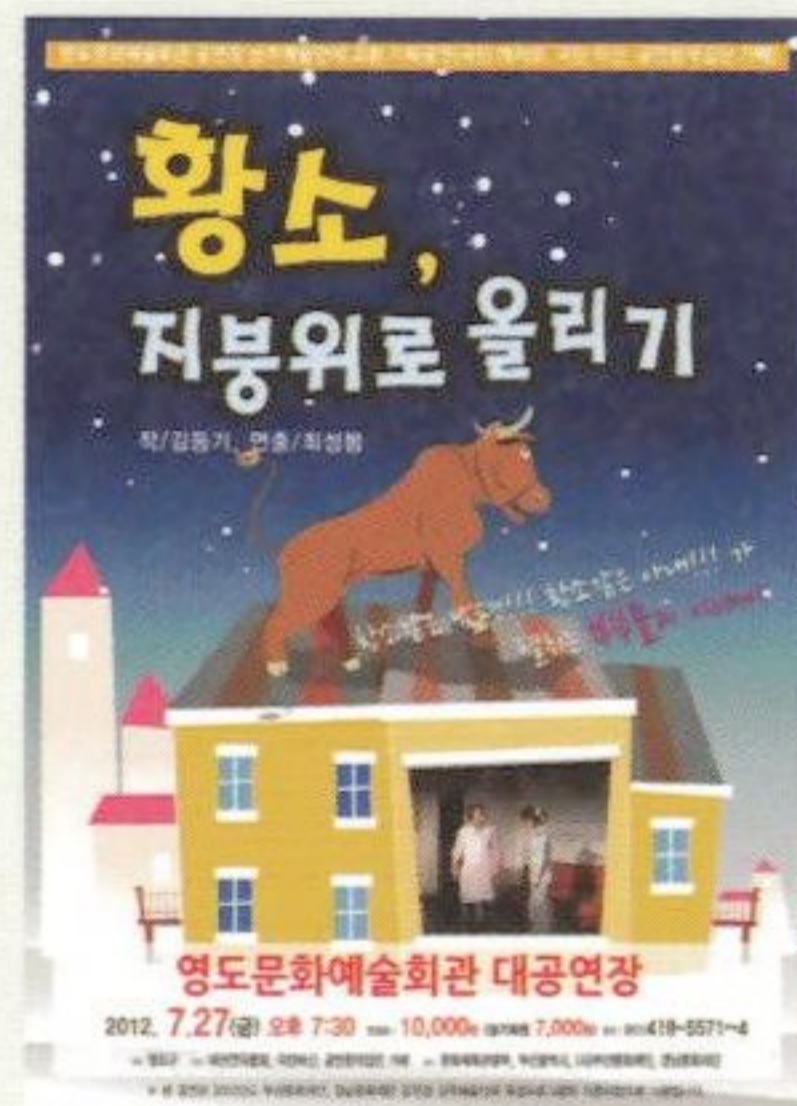


부산, 경남권 최초 뮤지컬 전문관으로 개관한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개관 기념공연 창작뮤지컬 '광화문연가'. 한국 팝 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작곡가 故 이영훈의 아름다운 명곡을 통해 세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이야기를 그린 '광화문연가'는 윤도현, 조성모, 송창의, 리사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원작/이영훈, 임영근 · 작사, 작곡/이영훈
· 각색, 연출/이지나 · 음악수퍼바이저/김문정
· 출연/윤도현, 조성모, 송창의, 리사, 박호산, 임병근 외

연극 '황소, 지붕위로 올리기'

7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결혼 8년차에 접어든 40대 부부의 일상의 애환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떠나게 된 여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창작극.
· 작/김동기 · 연출/최성봉

Dance

2012 한국춤 젊은 안무가전

7월 3일-5일 화-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5일은 연악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한국의 전통춤과 그 춤에 숨어있는 이미지들을 찾아가는 실험무대를 통해 전통의 다양한 면모와 창작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2012 한국춤 젊은 안무가전.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춤꾼 정지윤, 유선후, 안주현, 박연정이 전통춤 '춘앵전' '검무' '태평무' '봉산탈춤'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춤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고을사, 월하보(月下步) 김소매 바람이라(안무/정지윤, 출연/정지윤, 신하경)
해살(解煞) 나비가...검 위에 앉았다...(안무/유선후, 출연/유선후, 최주경, 김하나, 양한나, 이예은, 이슬)
청도란백도파(靑濤瀾魄濤波)(안무 및 출연/안주현)
망구-여든 한 살의 여행(안무/박연정, 출연/박연정, 이해민, 이동욱)

김옥련발레단 창작발레공연 '운수좋은 날'

7월 11일 수요일 오후 3:00,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문의 | 김옥련발레단
(626-9486, 010-2579-9486)

작가 이상의 대표작 '날개'를 창작발레로 선보여 호평받았던 김옥련발레단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문학과 창



작발레의 특별한 만남 '운수 좋은 날'. 1920년대 사실주의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되는 현진건 소설 '운수좋은 날'을 통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예술로 승화시킨 창작발레를 선보인다.

· 원작/현진건
· 연출/유상홀 · 안무/김옥련
· 출연/이승대, 박영진, 최연순, 김태윤, 임정인, 신준호, 정재준, 오상민, 최여경, 김옥련
· 현미밴드/전현미, 백상호, 김효진, 오설화, 엄준필

을숙도문화회관 '수요일은 춤'

7월 18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 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부산대학교 주수광, 민병수 교수가 이끄는 부산발레연구회, 민병수 발레단이 출연, 클래식에서부터 창작발레

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창작발레 '전설-그건 '사랑'이었네(안무/김하나)
한여름밤의 발레 콘서트/ '프레스코', 해적 중 '오달리스크', 알비노니 행진곡

Movie

2수영포럼 2012-영화, 혹은 정치의 기억

6월 22일(금)-7월 5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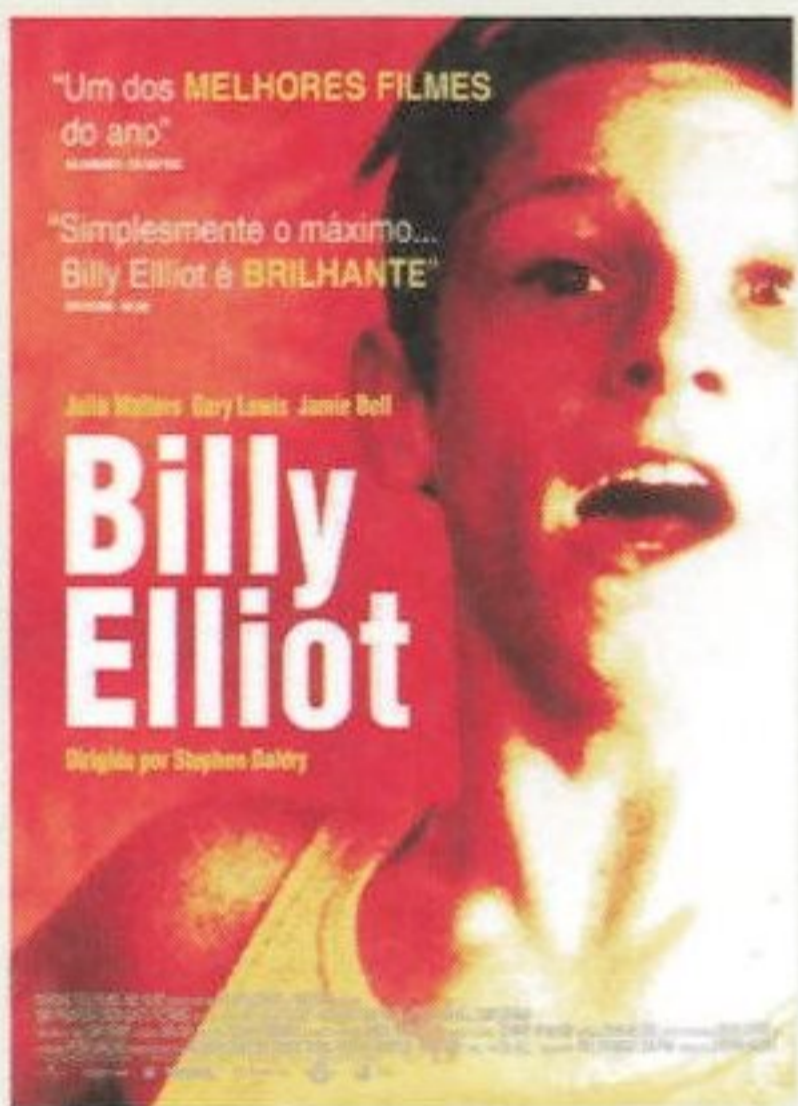


생활과 의식의 내면에 스며 있는 정치, 혹은 성과 폭력이라는 영화적 관습에 숨겨진 정치를 감지하고 성찰하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수영포럼 2012'.

'소돔의 120일'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 '시계태엽 오렌지' 등 당대에 스캔들을 일으켰던 문제적 성, 정치 영화들과 로망포르노라는 싸구려 장르에서 일본의 국가주의와 싸웠던 와카마츠 코지 감독의 대표작들이 상영된다.

시니어극장

7월 11일(수), 25일(수) 오전 10:00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만 60세 이상 시니어 무료(선착순 배부)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시니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의전당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시니어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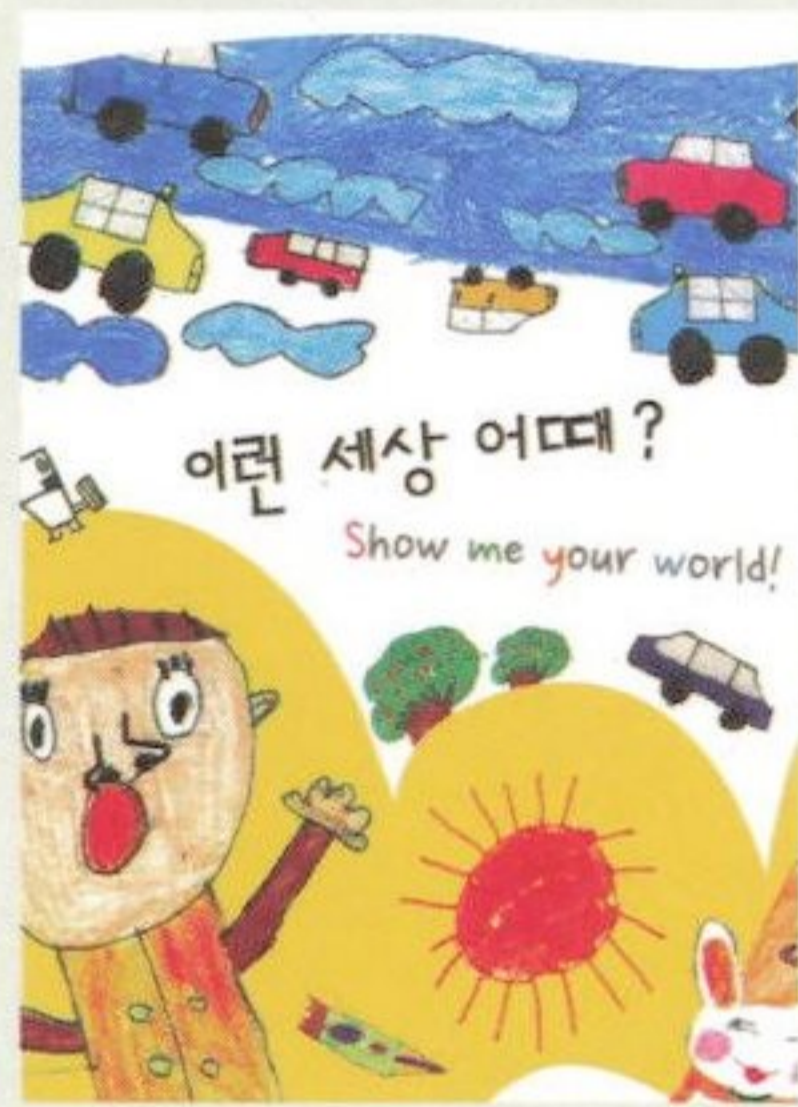
7월에는 발레리노를 꿈꾸는 탄광촌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빌리 엘리어트'와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상영한다.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세상 어때? Show me your world!

7월 20일(금)-24일(화)
 영화의전당,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입장료 | 개·폐막작 7천원 · 일반상영작 5천원
 문 의 |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743-7652, www.biki.or.kr)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제 제7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23개국 70여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덴마크 감독 에스벤 토프트 야콥슨의 '위대한



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꿈', 폐막작은 러시아 감독 가리 바딘의 '미운 오리 새끼'가 선정됐다.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영상 나눔마당, 포스터 공모전 작품전, 애니메이션 음악회, 비키 영화놀이터, Film&Fun, 시네마스포츠 등 다양한 부

Concert

그룹부활 2012 Live Tour Concert

7월 1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홀 부산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R석 20%, S·A석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가수 정훈희, 김태화 부부가 함께하는 7080 콘서트

7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재즈 와인에 빠지다 39th Concert

7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 5천원 · 2층 2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한달에 한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달콤한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 '고추장 국수'라는 이름처럼 재기넘치고 흥겨운 재즈를 들려주는 'Hot Pepper Pasta' 무대가 마련된다.

연주/안우성(트럼펫), 이병주(색소폰), 최수정(피아노), 최건식(베이스기타), 김정훈(드럼)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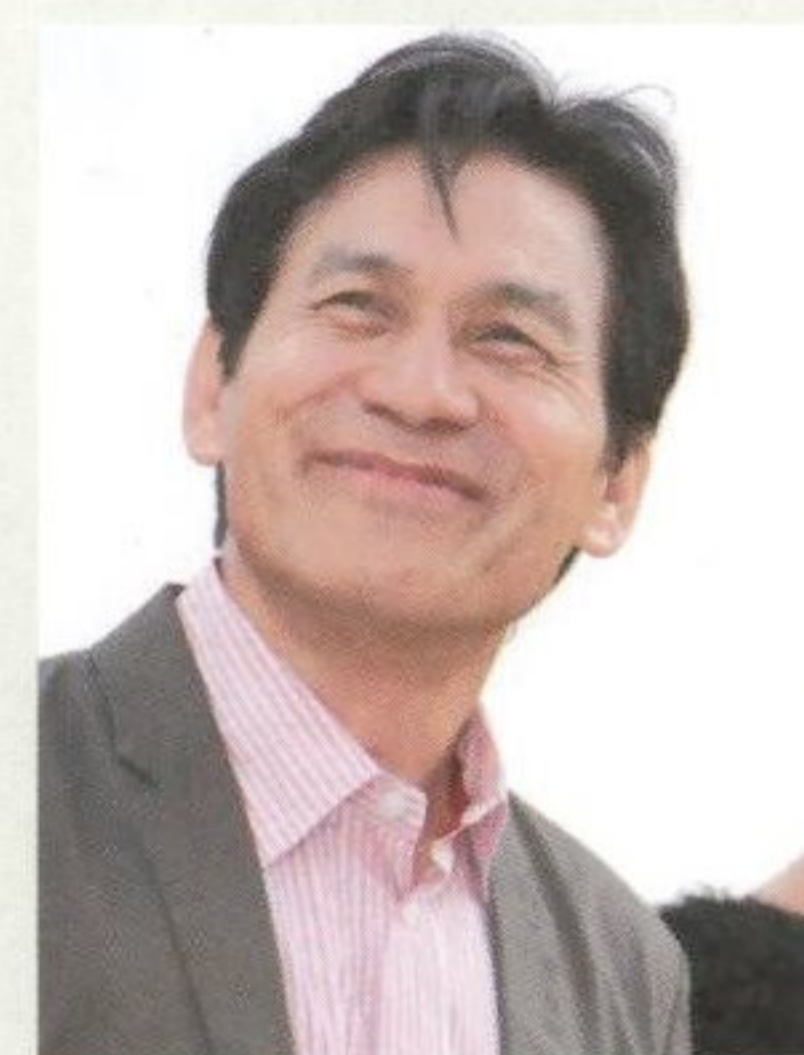
부산시울림시낭송회 제114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7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김길녀, 김혜영, 제만자, 우아지

영화의전당 시네클럽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www.dureraum.org)



안성기

영화의전당이 매월 영화인을 초청해 관객들과 친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클럽. 7월에는 국민배우 안성기와 미국에서 활약중인 한국계 배우 다니엘 대 킴을 초청, 관객들과 만난다.

· 진행/영화평론가 오동진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6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7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김옥군
 (010-6367-0149)

· 초대시인/최양숙, 백승록, 주순보, 이현주
 · 초청음악가/테너 김명재, 대금연주자 이종식
 · 사회/김근희 · 연출/김옥군

부산가야금연주단 교육프로그램 청홍당동이 무엇일까?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북구문화빙상센터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1~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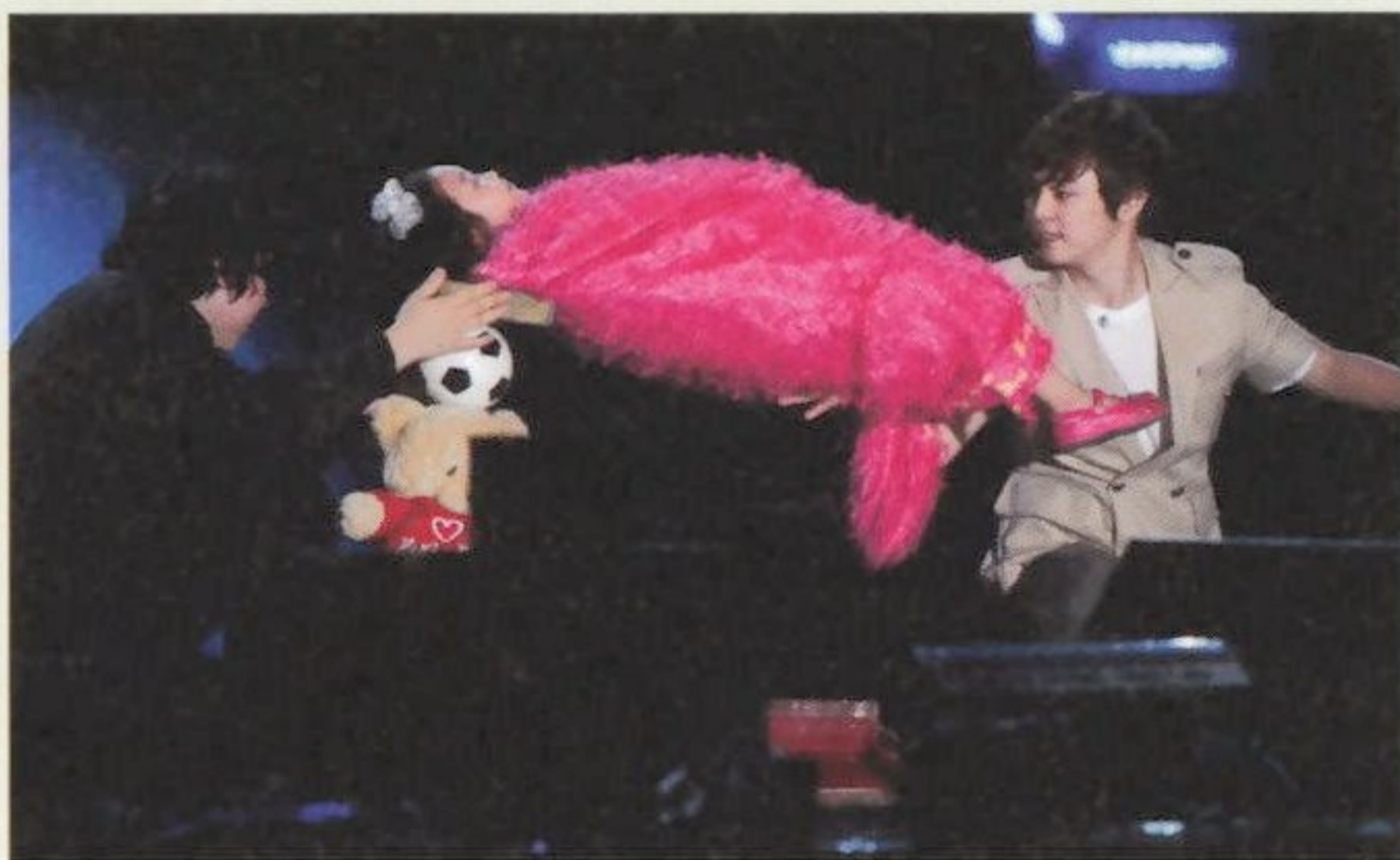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음악 복식체험, 가야금 역사 체험, 가야금 연주 체험, 가야금 제작과정 등을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장으로 있는 김남순 부산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환상이 숨을 쉬다!

201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2일(목)-5일(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영화의전당
문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국내 유일 세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인 2012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2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 내외 최정상 매지션들이 참가하는 매직 갈라쇼,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부산국제미술대회, 매직 매니아를 위한 해외 명인들의 수준 높은 미술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Gallery

어린이미술관 '그림이 톡talk톡talk'

3월 10일(토)-7월 18일(수)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한국의 자연풍경

-김환기, 박고석, 유영국, 이대원

4월 28일(토)-7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100선

5월 5일(토)-7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이 지금까지 구입과 기증을 통해 수집한 2,217점의 작품 중 미술사에서 거론되거나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주요한 작가의 작품 중 100점 선별해 미술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전.

광모 사진전

5월 25일(금)-7월 9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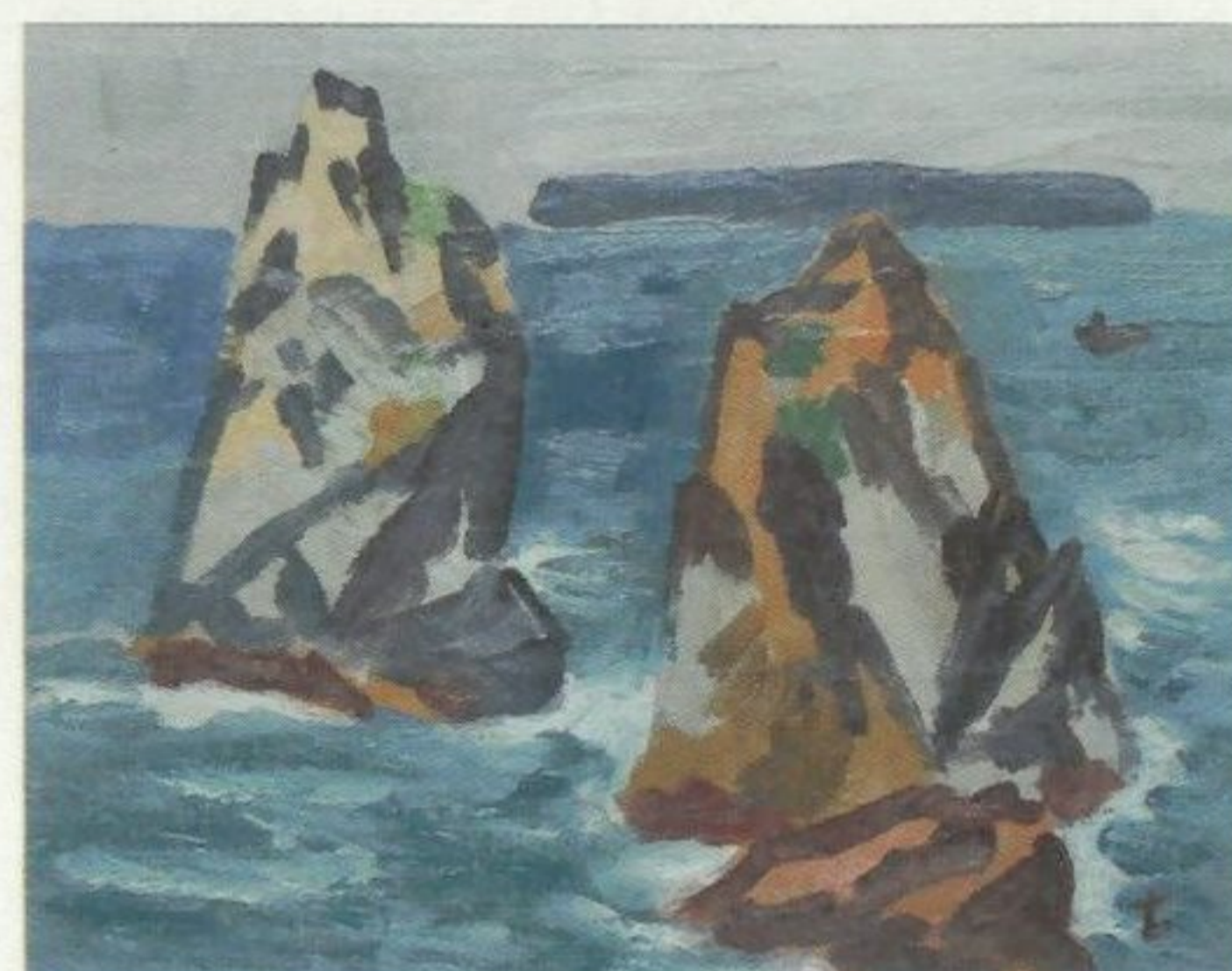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080-855-0007)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젊은사진작가 대상을 수상한 신진작가 광모 사진전.

부산시립미술관 신소장품 2011

6월 5일(화)-7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박고석 작
'오륙도'

부산시립미술관이 2011년도에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작품들을 공개하는 '신소장품 2011'.

임진왜란(壬辰倭亂)

6월 5일(화)-7월 29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쟁 이후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전쟁을 재조명하고 전쟁 이후 문화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전. 임진장초, 동래부 순절도, 동래읍성 해자 출토유물 등 임진왜란 관련 기록화 및 기록물, 무기류 등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사계절 중에서 <여름II>

6월 9일(토)-7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오영재 '태양의 꽃', 김영교 '부산항', 김원갑 '울릉도 풍경', 다자끼 히로슈케 '후지산', 라울 뒤피 '노르만디 해변' 등 한여름을 묘사한 작가 15인의 회화작품 16점이 전시된다.

고삼권展

6월 14일(목)-7월 15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의 |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부산시립미술관, 대전 이응노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영암군립 하(河)미술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순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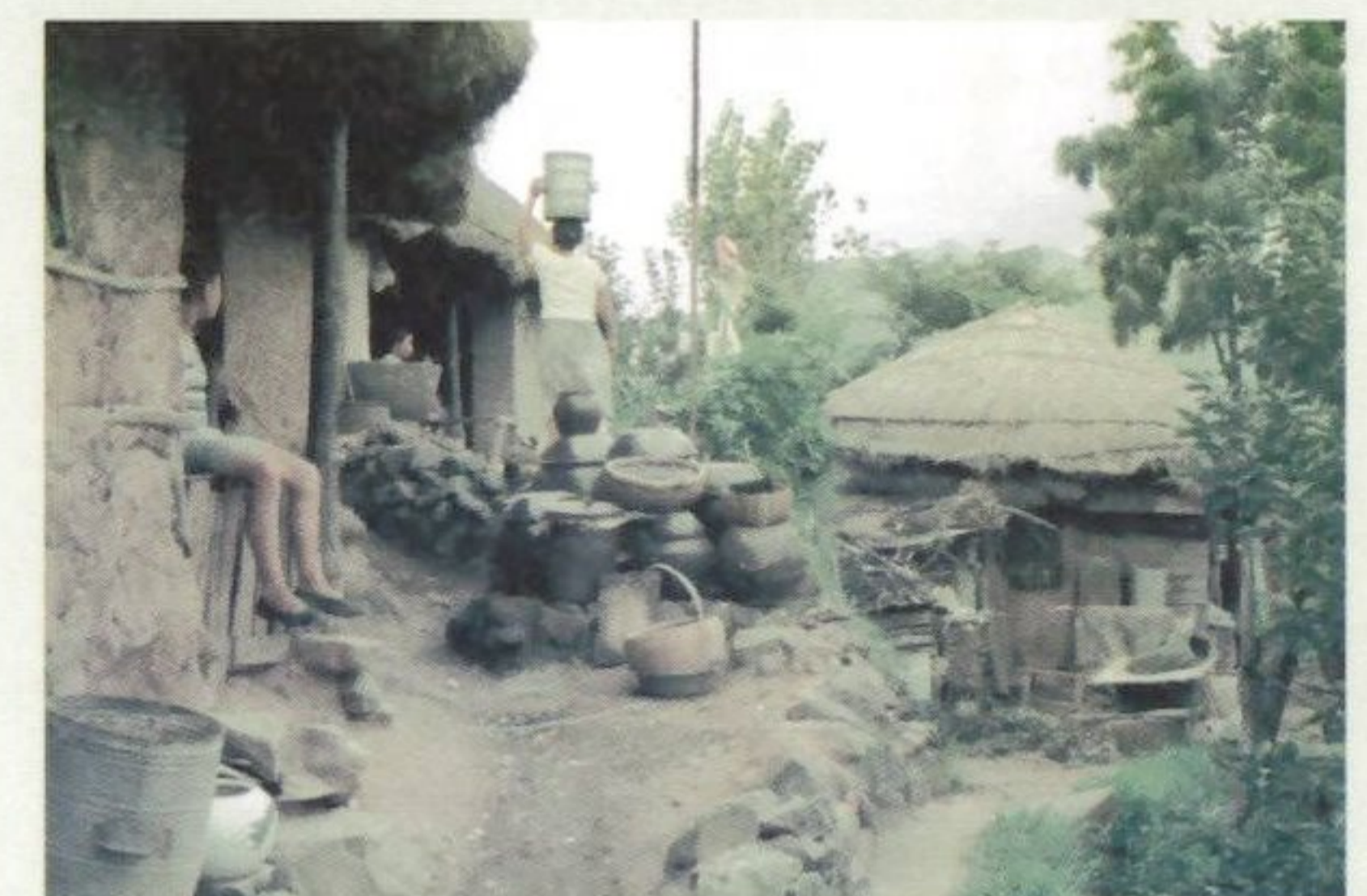
해방 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이 되고도 고향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작가 고삼권의 이산(離散)의 역사가 담긴 작품 40점이 전시된다.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

배동준, 근대적 풍경의 탐구

6월 16일(토)-9월 2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생활과 풍경을 결합함으로써 리얼리즘사진과 풍경사진의 경계를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로 풀어내어 자신만의 풍경으로 완성시킨 부산 사진 2세대 작가 배동준 사진전.

데이비드 라사펠 한국특별전 - 부산

6월 16일(토)-9월 16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입장료 | 균일 1만 2천원

문의 | (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02-566-0835,
www.dlcseoul.com)

파격적인 스타일과 사회적인 메시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팝 아트의 세계 데이비드 라사펠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오후 7:00 입장마감)

갈색참새와 파란물고기- 김영미, 이지우

6월 19일(화)-7월 9일(월) 갤러리 봄디
문의 | 갤러리 봄디(070-7720-6862)



이지우 작 '동백꽃, 참새'

김경경 '아니물라(animula)의 노래'

6월 22일(금)-7월 5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살아있는 미술관 특별전시-부산

6월 23일(토)-10월 14일(일)
오전 10:00-오후 7:00(오후 6:0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입장료 | 균일 1만 3천원(14세 미만 1만 1천원)
문의 | Knp엔터테인먼트(1544-0412)

이영길展

6월 25일(월)-7월 4일(수) 갤러리 몽마르트르
문의 | 갤러리 몽마르트르(746-4202)

갤러리 회 개관기념

진영섭 초대개인전

6월 25일(월)-8월 30일(목) 갤러리 회
문의 | 갤러리 회(055-383-1962)

홍용선의 꽃그림전

6월 25일(월)-7월 7일(토) 벽촌아트갤러리
문의 | 벽촌아트갤러리(582-1103)

남수정展

6월 27일(수)-7월 3(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최현자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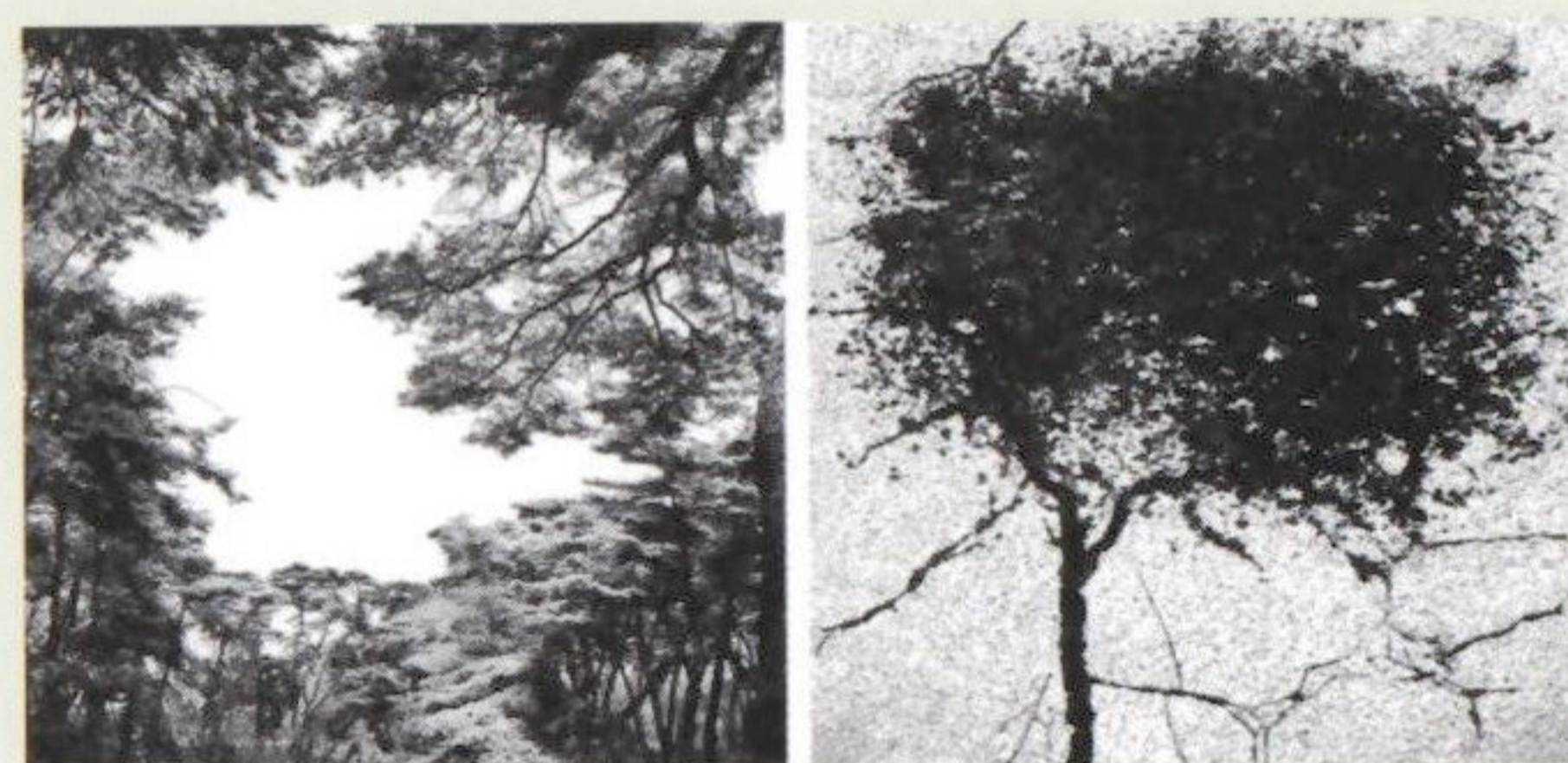
6월 27일(수)-7월 6일(금)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재밌는 매직아트

6월 29일(금)-7월 18일(수) 경성대학교 미술관
균일 1만 2천원
문의 | SM기획(1600-1602)

아트카페 움 '구주환 사진전:겹 혹은 결'

7월 2일(월)-7월 30일(월)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소나무 혹은 도로의 균열의 틈새를 사진을 찍어 독특한 시각적 울림을 주고 있는 작가 구주환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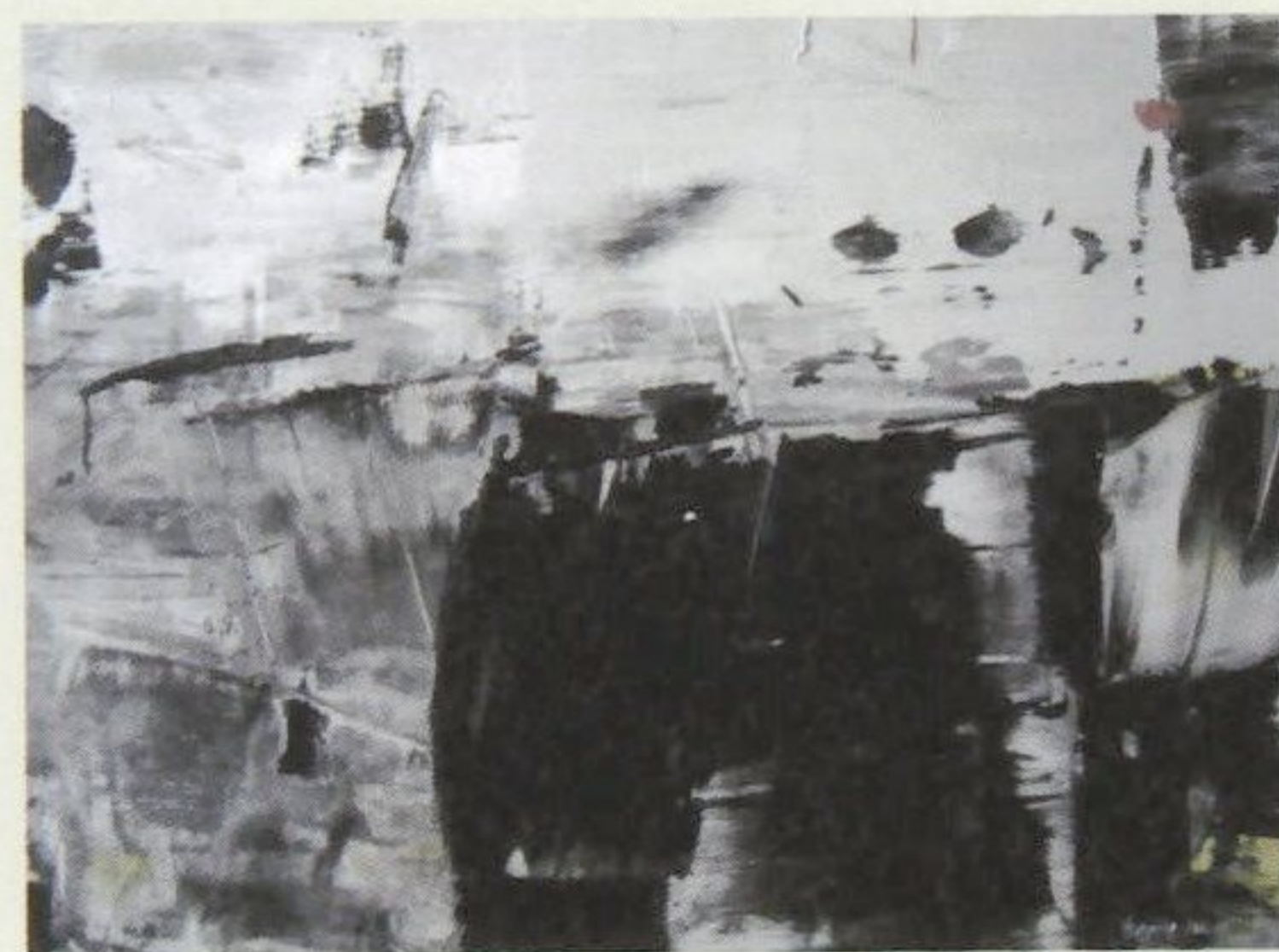
휴식- 이화전 전

7월 4일(수)-7월 31일(화)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아인(747-2612)

여러 겹으로 물고기를 그려 입체감을 더하면서 마치 연못 속에 한가로이 노니는 느낌을 주는 작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화전 작품전.

제3회 동아예술제

7월 6일(금)-7월 15일(일) BS부산은행 갤러리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



신성호 작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아대학교 동문 작가들의 평면작품 35점, 입체작품 18점이 전시된다.

무한도전 디자인展

7월 6일(금)-7월 19(목) 롯데갤러리 부산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점(810-2328)

시청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무한도전' 피규어와 디자인 상품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무한도전 디자인'展.

사계의 풍경전

7월 10일(화)-7월 19(목)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한국의 멋 부채 '선면 예술전'

7월 20일(금)-7월 29(일)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신동연 작
꽃

아프리카 현대미술작가 6인

하쿠나 마타타展

7월 20일(금)-8월 7일(화) 롯데갤러리 부산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점(810-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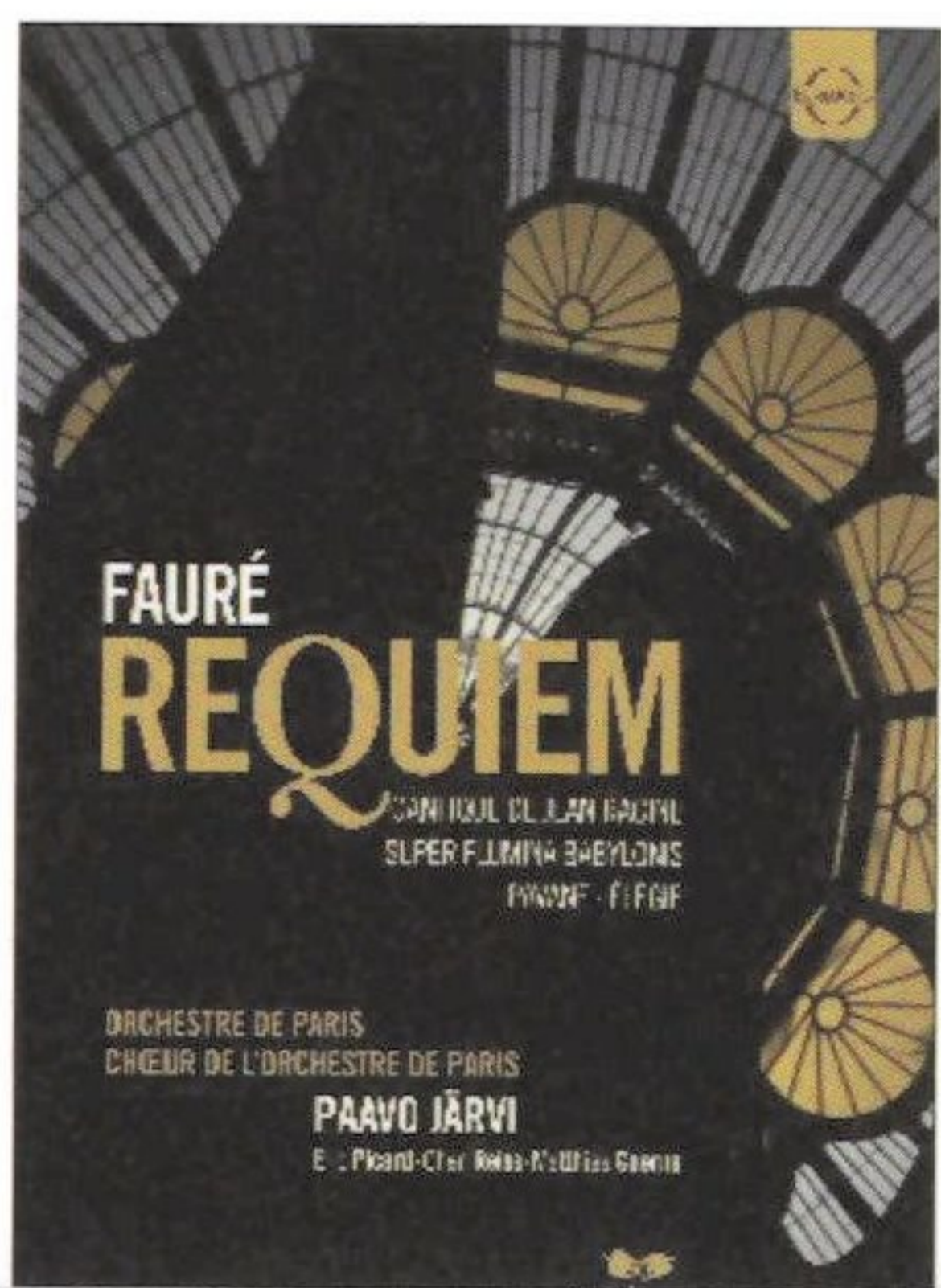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을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세계미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하쿠나 마타타'展

김성규 개인전

7월 26일(목)-8월 3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



쏟아지는 폭우로 매 순간순간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는 그 찰나적인 한순간을 화폭에 담은 작가 김성규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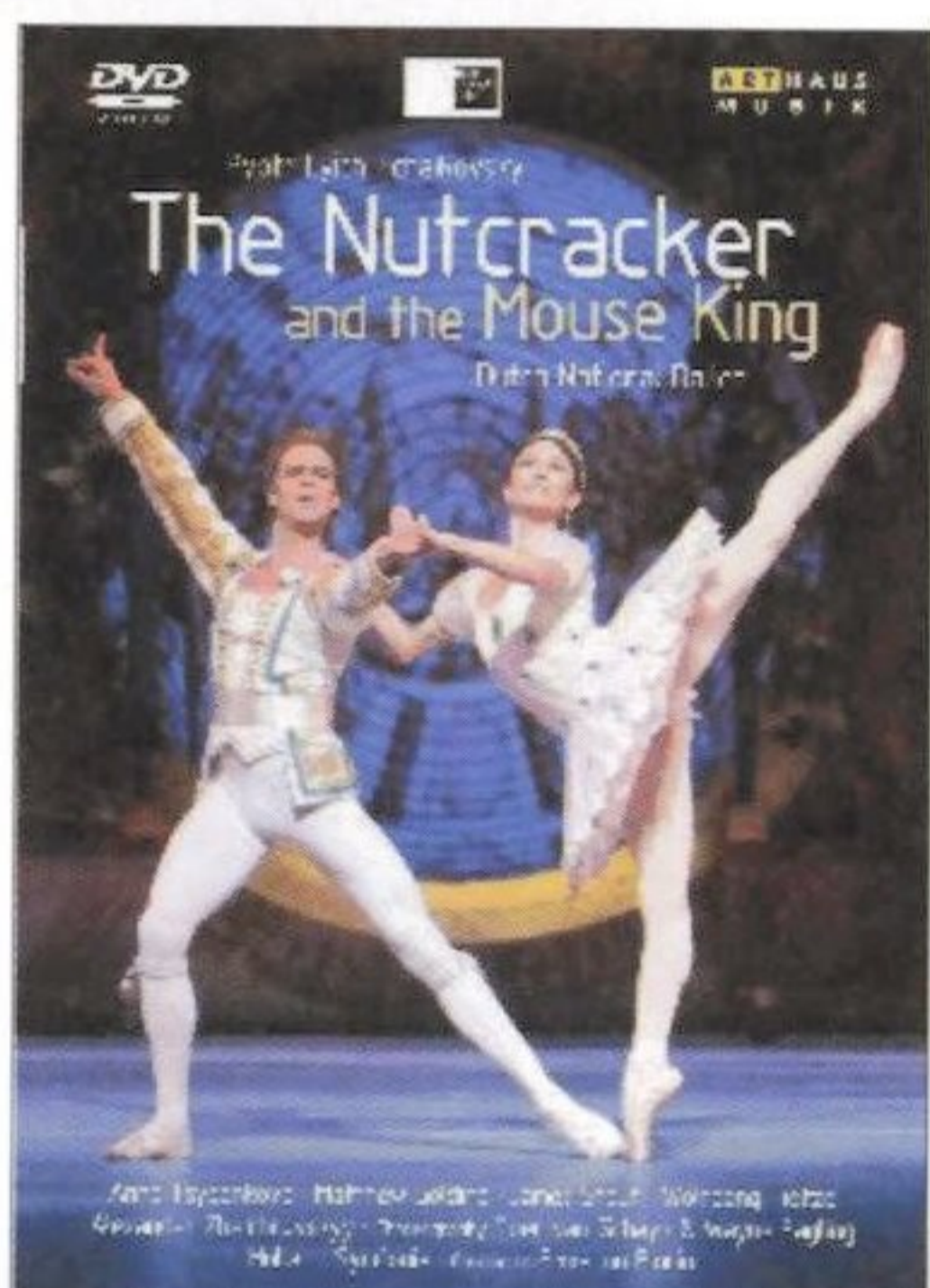


포레 : 레퀴엠, 파반느, 엘레지, 장 라신 찬가, 바빌론 강가에서

에릭 피카르(vc)/ 첸 레이스(sop)/ 마티아스 괴르네(br)/ 파보 예르비/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레퀴엠을 비롯한 대표걸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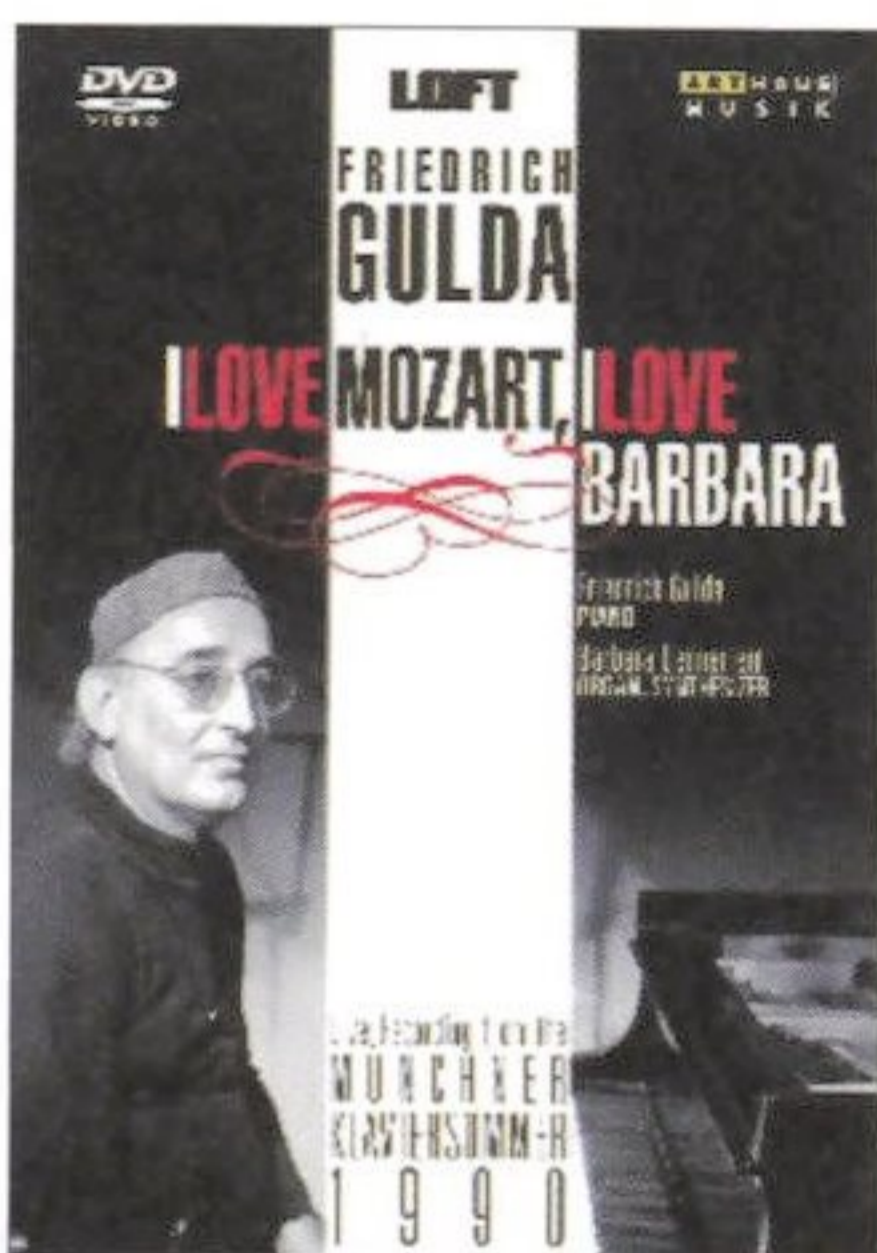
포레의 레퀴엠은 막대한 관현악 편성으로 심판의 공포를 강조했던 베를리오즈나 베르디의 그것과 달리, 망자의 영혼에 대한 잔잔한 위로라는 레퀴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작품이다. 포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미와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채워진 이 걸작을 뛰어난 화질의 최신 영상물로 감상하는 묘미가 각별하다. 파보 예르비가 이끄는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단아한 연주와 더불어 세계적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중후한 가창도 이 걸작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다양한 편곡들을 통해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한 작품인 파반느의 합창 버전, 단아한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또 다른 합창걸작인 '장 라신 찬가', 시편 137에 곡을 붙인 '바빌론 강가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첼로의 중저음을 통해 표현되는 애상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작곡가의 또 다른 인기작인 '엘레지'가 파리오케스트라 첼로수석인 에릭 피카르의 독주로 함께 수록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포레 앤솔로지 영상물이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차이코프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최고의 화질로 만나는 네덜란드 버전의 독특한 호두까기인형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3대 로맨틱 발레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11년 암스테르담 뮤직 시어터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최신 공연실황을 담았다. 프티파와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 이후 유수의 발레단들이 저마다의 개성적인 프로덕션을 내놓고 있는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이 공연 역시 1996년 처음 공개된 투르 판 사익과 웨인 이글링의 안무를 토대로 하였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 겨울 명절인 성 니콜라스 축일의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하는 이 프로덕션은 클라라의 남동생인 프리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생쥐 왕이 1막이 아닌 2막에 죽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 달라졌다. 볼쇼이 발레단과 빈 국립발레단을 거친 뒤 2007년부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약 중인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안나 치간코바가 클라라를 열연하였다.



프리드리히 굴다 & 바르바라 덴넬라인 | I Love Mozart & I Love Barbara

클래식 피아니스트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의 프리드리히 굴다의 두 모습

지난 2000년 1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프리드리히 굴다는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적인 성향과 클래식 연주회의 격식을 깨뜨린 파격적인 무대매너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던 기인 피아니스트였다. 1946년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비슷한 연배의 동향 피아니스트들인 외르크 데무스, 폴 바두라스코다와 더불어 빈의 삼총사로 큰 인기를 누렸던 그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와 같은 정통 클래식 레퍼트와는 물론, 재즈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경지를 구축했으며, 두 장르의 특성을 교묘하게 조합한 자신의 창작곡들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었다. 1990년 뮌헨에서의 연주회를 담은 본 DVD는 굴다의 이런 유일무이한 개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인다. 연주회의 전반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굴다의 가장 큰 애정을 쏟았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독주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재즈 건반연주자인 바르바라 덴넬라인의 신서사이즈와 더불어 자신의 창작곡을 비롯한 크로스오버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강명관 지음 / 휴머니스트 / 148p / 2만3천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가리켜 흔히 전통적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성적 욕망이 담겨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성을 종속되는 존재로 얽매고자 했던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그림을 통해 사대부 남성의 이율배반적인 욕망을 관철시키려 했는지, 그 은밀한 역사의 기록을 추적한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의 많은 그림들은 대부분 남성에게 의해 그려졌다. 예술 조직인 '화원'은 남성으로만 구성됐고, 민간의 화가 역시 대개 남성이었다. 그들은 당대의 권력과 무관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저자는 조선시대 그림 속의 여성 형상에 주목한다. 150여 점의 그림 속 여성들의 모습에는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조건들이 스며들어 있다. 저자는 그림의 대상 위에 드리워져 있는 사대부 남성의 시선과 욕망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걷어냈을 때 마치 풍경처럼 숨어 있던 조선 여성의 진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조선시대의 '여성상'은 바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던가를 밝히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자크 보세 지음, 이שמ민 옮김 / 다빈치 / 248p / 5만5천원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곳일 것이다." 구조주의 철학의 창시자이며 문학비평가로 소르본 대학의 교수였던 가스통 비슐라르는 도서관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인류 문명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왜 도서관이란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를 표현한 말이다. 건축, 디자인, 정원 예술에 각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자크 보세가 오랜 역사와 훌륭한 건축미를 지닌 아름다운 도서관 스물세 곳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인류의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축물들이다. 바로크의 찬란함이 압도하는 비블링겐 수도원 도서관, 르네상스의 보고 피렌체 리카르디 도서관, 고틀의 손길이 남아 있는 바이마르의 안나 아말리아 공작부인 도서관, 에스파냐 엘에스코리알의 장엄한 왕립 도서관, 성스러운 흠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보들리 도서관 등 사진작가 기욤 드 로비에의 눈부신 컬러사진 2백여 컷으로 보는 도서관들은 정신문화를 갈무리하고 있는 불멸의 세계 도서관이며 인류 문화의 불빛같은 곳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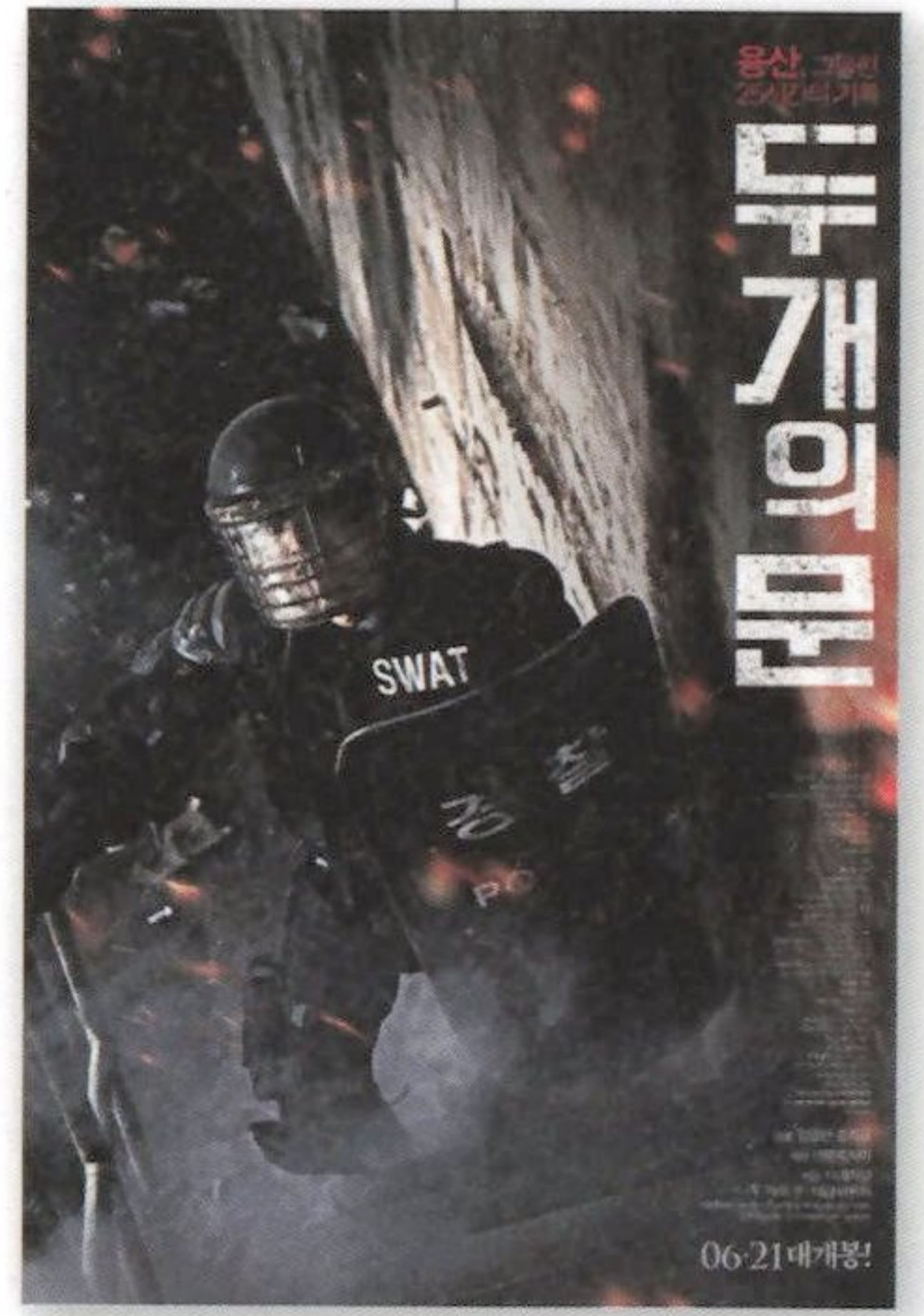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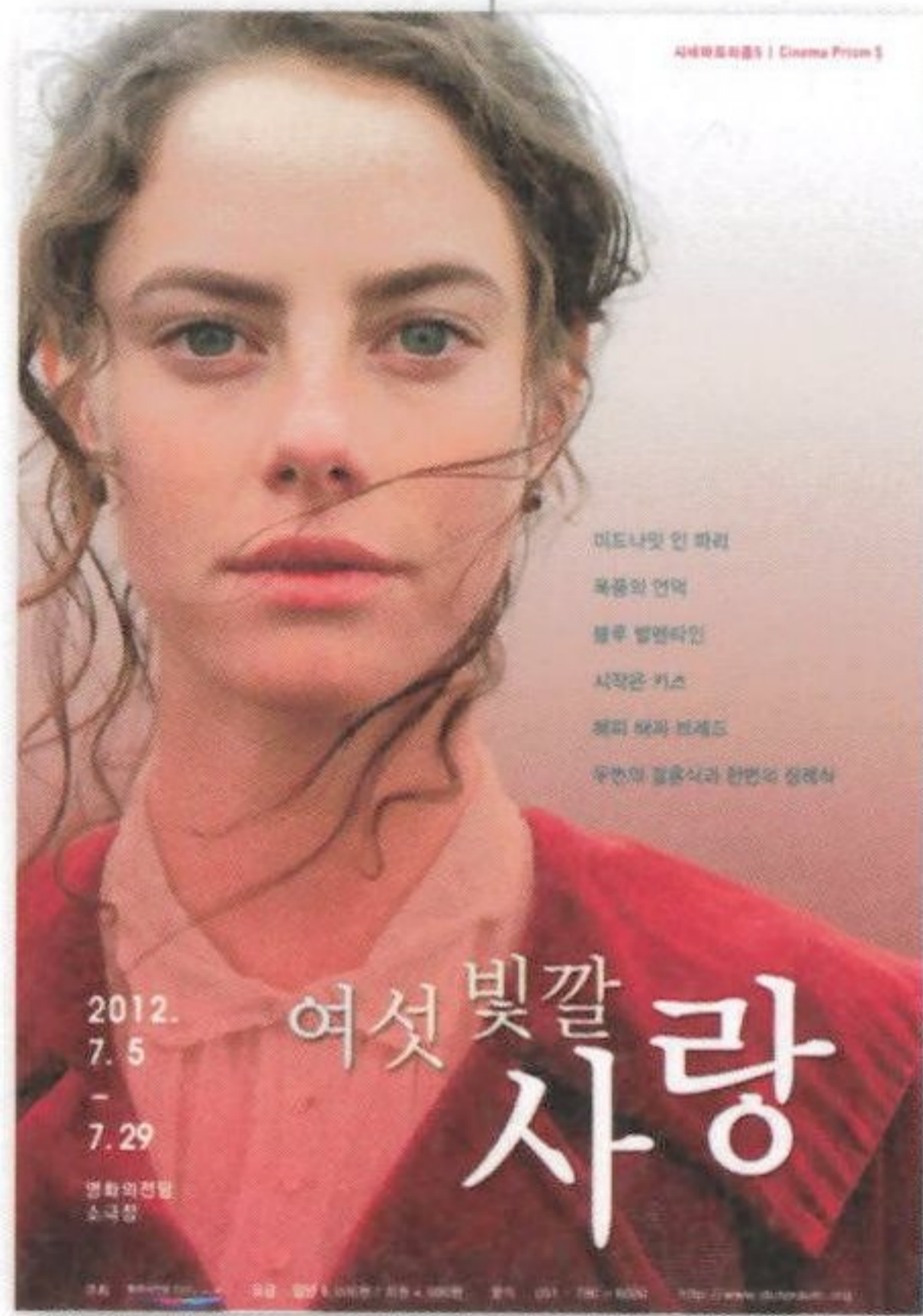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

류준하 지음 / 현암사 / 470p / 2만2천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두루마리. 1966년에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두루마리의 지질은 닥종이였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200여 년의 세월을 탐 속에서 보내고도 좀먹기는커녕 두루마리 일부가 닳아 떨어졌을 뿐 그 형체를 오히려 보존하고 있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지의 우수성은 세계적이다. 자연 염색·염료·먹 등 우리 고유의 미술 재료를 꾸준히 연구해 온 이승철 교수(동덕여대 미술학과 회화전공 교수, 간송미술관 상임연구원)가 20년 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우리 종이 한지의 글을 집대성하였다. 저자는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한지에 매료됐다. '한지 박사' '종이 연구가'로 활동하는 저자의 관심은 '한지'의 우수성을 현대에 되살리는 일이다. 저자는 한지의 인열 강도(종이를 옆으로 찢었을 때 견디는 힘), 인장 강도(종이를 위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버티는 힘), 방향성(섬유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먹의 흡수성과 번짐성, 통기성, 방음성, 단열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이 책은 인간문화재 장용훈 선생이 직접 만든 우리 한지 11종의 샘플을 수록해 독자가 직접 보고 만지면서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네마프리즘 5 - 여섯빛깔 사랑

7월 5일(목)-29일(일)
영화의전당 소극장

최근 개봉작을 중심으로 주제별, 장르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화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시네마프리즘' 다섯 번째 상영전이 열린다. 이번 상영전의 주제는 '여섯 빛깔 사랑'. 그 첫 번째 영화는 2012 칸 영화제 개막작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1920년대 파리로 시간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스코트 피처 제럴드와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과 조우한다는 내용으로 아름다운 파리의 풍광이 관객들에게 낭만을 선사한다. 세계문학의 고전 '폭풍의 언덕'은 안드레아 이놀드 감독의 작품으로 관객을 찾는다. '폭풍의 언덕'은 사랑의 열정과 고통, 황홀과 비극이 담긴 불멸의 로맨스로, 지난해 베니스영화제, 토론토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등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호평받았다. 그 외 우리나라 장편영화에서는 처음 다뤄지는 쿼어 로맨틱 코미디극인 김조광수 감독의 '두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이별을 예감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데릭 시엔프랜스 감독의 '블루 발렌타인', 유쾌하면서도 섬세한 사랑을 그린 프랑스 영화 '시작은 키스', 훗카이도 츠키우라에 '카페 마니'를 오픈한 젊은 부부의 일상을 그린 일본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 등 6편이 상영된다.

한여름밤의 야외상영회

7월 3일(화)-9월 11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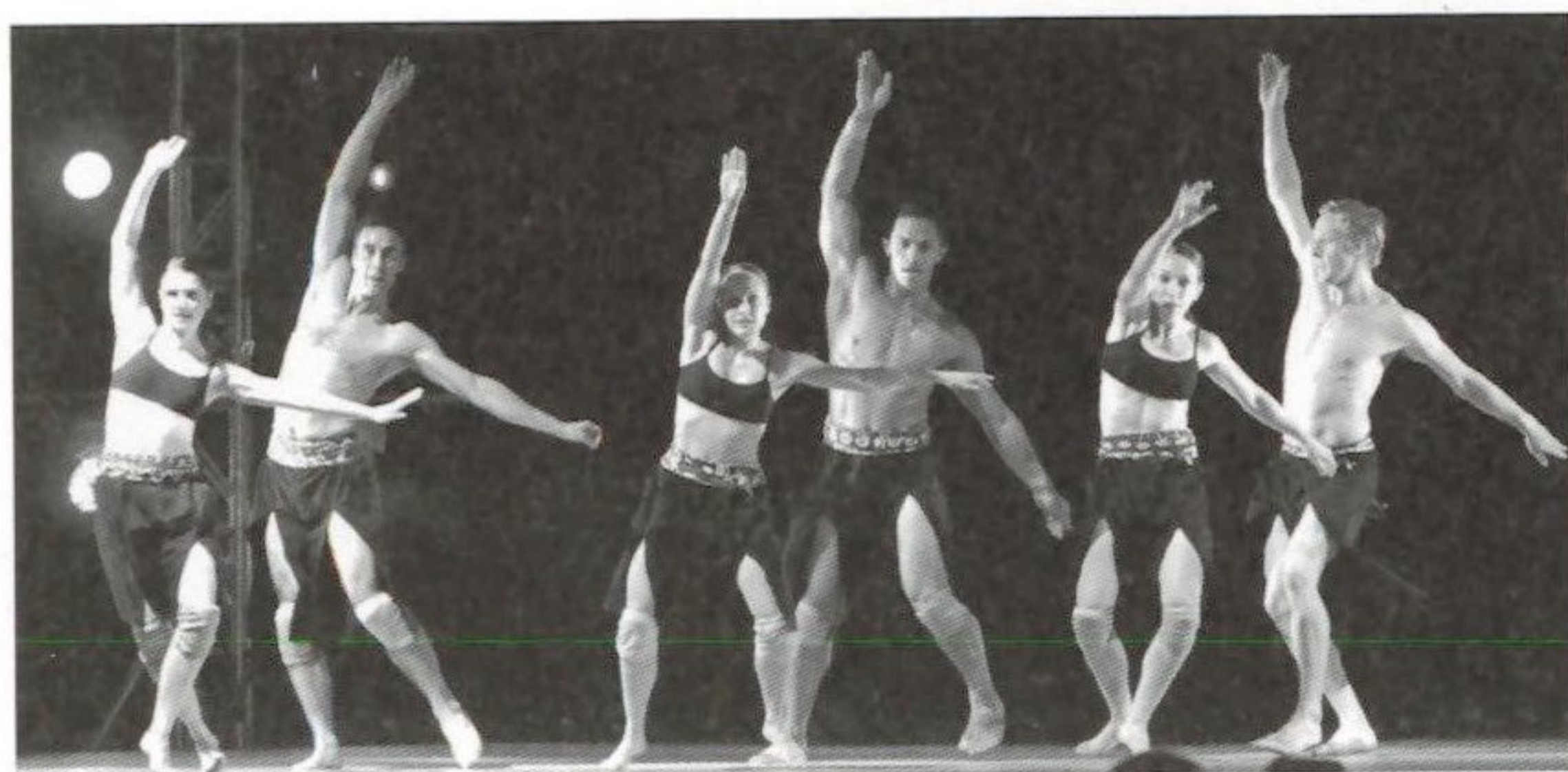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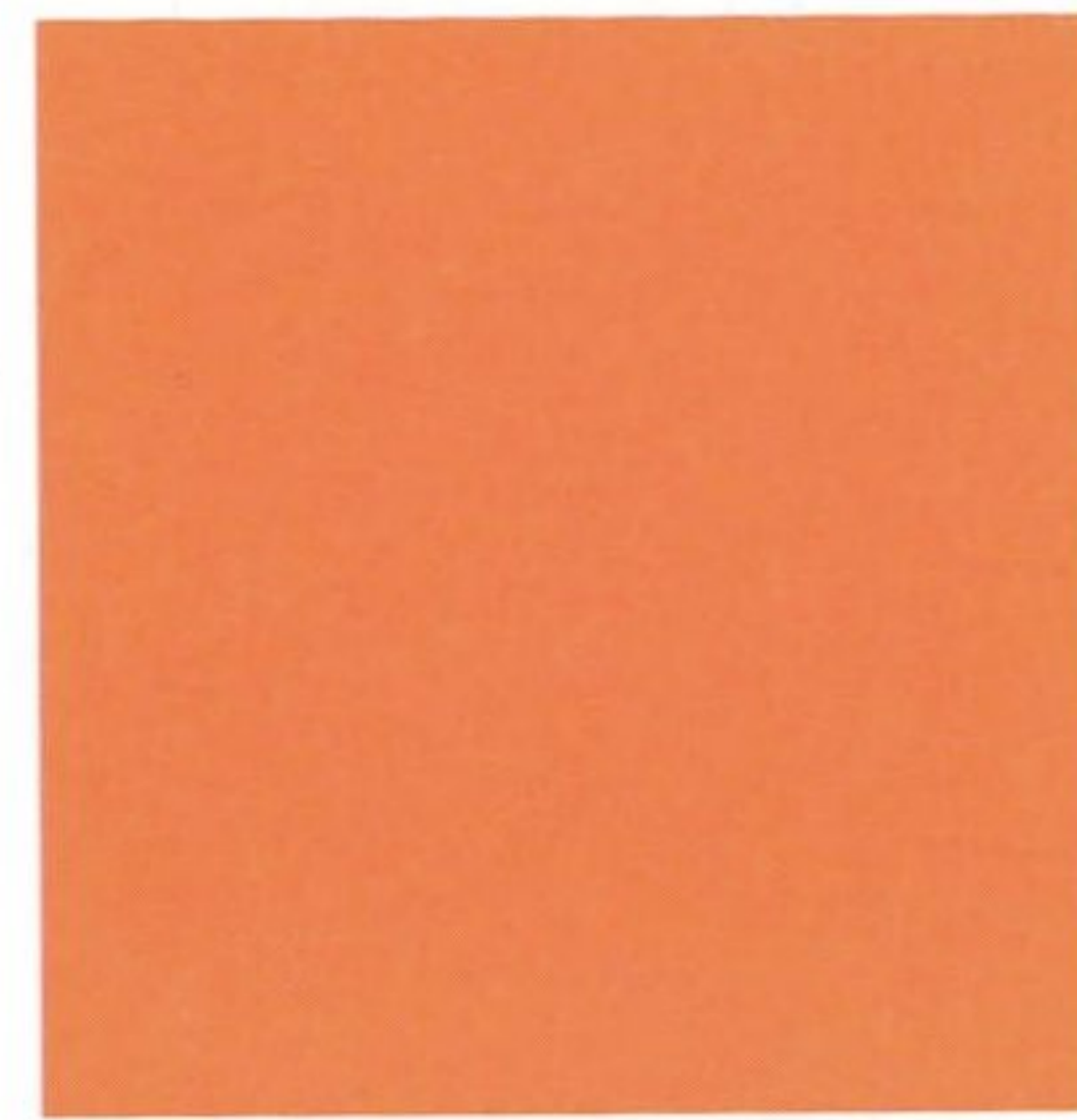
여름철을 맞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시원한 야외상영회가 펼쳐진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전영화에서부터 최신영화까지 총 10편의 작품을 선정, 무료로 상영한다. 야외상영회 첫날인 7월 3일에는 오드리 헵번을 단숨에 세기의 여인으로 탄생시킨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 10일에는 엔리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선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 '미션', 17일에는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의 명연기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 '바베용', '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흐르던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7월의 마지막 화요일밤을 장식한다. 8월에는 뮤지컬 영화의 최고 걸작 '사랑은 비를 타고(8월 7일)'를 시작으로 2007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벤쿠버 국제영화제 인기상, 뉴욕비평가협회상 등 유명 영화제를 휩쓸었던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8월 14일)', 클래식음악을 소재로 한 동명의 만화를 스크린에 옮긴 '피아노의 숲(8월 21일)',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로맨스영화 '애수(8월 28일)'를 상영한다. 9월에는 핀란드 헬싱키 길모퉁이에 생긴 일식당을 배경으로 한 '카모메식당(9월 4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비닷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이야기 '안경' 등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해온 일본감독 오기카미 나오코의 대표작 두 편을 상영한다.

두 개의 문

7월 상영, CGV서면 무비폴라쥬, 부산국도예술관, 아트씨어터 씨엔씨

두 개의 문은 '용산 다큐멘터리'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두 개의 문(김일란, 홍지유 연출)'은 2009년 1월 20일, 경찰 특공대원 1명,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광주민주항쟁,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 낸 '용산(문정현 연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철거민 3명의 삶을 통해 국가 폭력의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준 '마이 스위트 홈 - 국가는 폭력이다(김청승 연출)', 사건 이후 355일간의 투쟁을 기록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끝나지 않은 이야기(장호경 연출)' 등 용산참사에 관한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지만, 정식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은 '두 개의 문'이 처음이다.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두 개의 문은 2010년 8월부터 진행된 법정 재판과정을 충실히 담아냄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용산참사를 바라본다. 서늘할 정도로 냉철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통해 섬뜩한 진실 은폐 과정을 목격함은 물론, 고통스러운 정도로 생생한 국가 폭력의 현장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자살자 Season 2'

면을 바라보는 것과 공간을 바라보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영화에 익숙해있다가 그들의 몸짓을 바라보니 생동감이 넘친다. 배우들의 무언의 몸짓과 땀방울에서 무한한 기운과 열정이 묻어나온다. 무기력해진 나 날에 모처럼 활기가 생긴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비오는 유월의 어느날,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미경(남구 우암1동)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부산에 살면서 지역행사에는 정말 무감했던 것 같다. 6월 첫 주말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듣고 해운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산국제무용제를 만났다. 시원한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무용제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춤 축제라고 한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머나먼 나라 춤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열정 넘치는, 자랑스러운 부산국제무용제를 소개하고 싶다. 정미란(금정구 구서동)

유 콘서트

아이들과 함께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나면 한동안 공허감을 주체할 수 없다. 우연한 기회에 나에게 찾아온 음악선물 '유 콘서트'. 평소 뮤지컬 공연을 보고 싶어도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료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최고의 뮤지컬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루가 유쾌, 상쾌했다. 다음에는 클래식 음악에 도전해보고 싶다. 박은정(연제구 양정4동)

죽여주는 이야기

최근 자살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자살을 풍자한 연극이라는 공연 소개가 눈에 띄어 큰 맘 먹고 극장으로 향했다. 세상에는 정말 놀랍게도 자살할 수 방법들이 많았다. 죽기 위해 고달픈 노력을 계속하는 그들을 지켜보며 많이 웃었지만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세상에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전현준(사상구 주례동)

돌아온 여제,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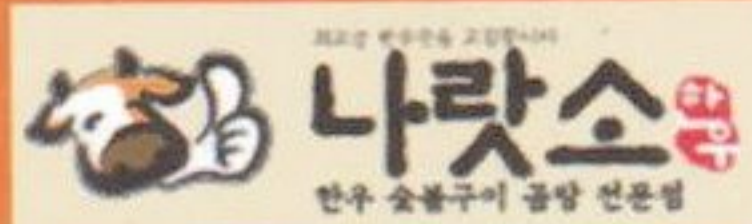
바이올린을,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정경화는 최고의 우상이다. 부산에서 실로 오랜만에 정경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일찌감치 서둘러 공연장으로 향했다. 부상으로 잠시 무대를 떠났다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대로 돌아온 거장의 면모는 변함없이 빛났다. 윤정미(기장군 정관면)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New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 | 연주회 개요 |** 일 시 2012. 9. 21 (금) 19:30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 모집 개요 |** 응시자격 원서접수시 부산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제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
※ 단, 2009년 9월(제6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후 협연한 자는 응시 불가
- 모집부문 피아노, 현·관·타악기(협주 가능한 악기)
모집인원 부문에 관계없이 5~8명
(초·중학생 1~6명 / 고·대학생 1~6명)
-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2012. 7. 4 (수) ~ 7. 11 (수) 10:00 ~ 17: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사진 2매(3×4cm 동일사진, 원서부착용)
※ 응시원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 전형 개요 |** 전형일시 2012. 7. 13 (금) 10:00~18:00
▶ 세부일정 7. 12 (목)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장 소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전형과목 협주곡 단악장(자유곡/단, 교향악단과 협연이 가능한 곡목)
※ 전 파트 반주자 대동
- | 기 타 |** 합격자 발표 2012. 7. 17 (화) 10: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
(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 (T. 607-3111~4)
※전형 과정에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함



Busan Cultural Center

우리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산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제38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2012. 7. 23(월) ~ 7. 26(목), 4일간
강습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강습내용 소고춤(13:00~15:30), 부채춤(솔로작품)(15:30~18:00)
대 상 일반 시민 및 교사 (각 반 30명 내외)
준 비 물 소고와 채, 부채 1쌍(각자 준비)
수 강 료 20,000원 ※방문 접수만 가능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3(월)	13:00~15:30	소고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안주희	문화회관 중극장
~25(수)	15:30~18:00	부채춤	서정숙(훈련지도자), 이현주	
7/26(목)	13:00~14:30	강습 발표회		

제27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기간** 2012. 7. 23(월) ~ 7. 26(목), 4일간 **강습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강습내용 꼭두각시춤(10:00~11:30), 어린이 소고춤(11:30~13:00)
대 상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20명 내외)
준 비 물 소고(각자 준비)
수 강 료 10,000원 ※전화 접수 가능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3(월)	10:00~11:30	꼭두각시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안주희	문화회관 중극장
~25(수)	11:30~13:00	어린이 소고춤	서정숙(훈련지도자), 이현주	
7/26(목)	13:00~14:30	강습 발표회		

접수기간 2012. 7. 2(월) ~ 7. 5(목), 4일간, 평일 9:30~18:00

전화접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선착순 마감 (마감 후 3일 이내 환불 가능/ 수수료 공제)

※입금계좌 : 부산은행/ 부산시립무용단 김태훈/ 036-01-036084-9

(※접수 후 입금 바람, 먼저 입금 시 수강 인정 안됨)

2012 제6기 풍류 선발



강습자격 최근 3년간 부산시립무용단 시민무용교실을 2강좌(2기)를 이수한 재(수료 공연 참여자)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열정넘치는 아마추어 춤꾼

강습작품 소고춤, 부채춤(솔로)

신청기간 2012년 7월 23일(월)~25일(수)

강습기간 2012년 9월~12월(총 30회)

공연일자 2012년 12월 7일(금) 19:30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신청방법 부산시립무용단 사무실 방문접수 (증명사진 1매 첨부×증명사진만 가능)

선정결과 추후 개별연락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 1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고전발레의 최고 걸작. 7월 13일과 14일 국립발레단이 이 작품으로 부산을 찾는다.
- 4 정선과 영월 일대를 흐르는 동강(東江)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으로, 예로부터 물고기가 많아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 7 슈베르트가 그의 나이 18살인 1815년에 괴테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가곡. 아버지, 아들, 마왕, 해설자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한 사람이 독창으로 엮어가는 극적인 기교가 있는 독창곡이다.
- 8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한자로는 '양수리(兩水里)'. 강가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영화와 광고,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 9 고기가 한창 잡힐 때에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황해도 연평의 조기, 전라북도 위도의 조기, 거문도 및 청산도의 고등어, 추자도의 멸치 OO 등이 특히 유명하다.
- 10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시조. <삼국지연의>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악인으로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환관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시대를 선도한 풍운아라는 재평가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 11 동양 현악기의 하나. 몸체는 길이 60~90cm의 둥글고 긴 타원형이며, 자루는 곧고 짧다. 인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줄의 당OO와 다섯 줄의 향OO가 있다.
- 12 제주 지역에 있는 기생화산을 이르는 말로, 작은 산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다.
- 14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대표곡으로 '볼레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물의 장난' 등이 있다.
- 15 명탐정의 대명사로 꼽히는, 영국의 추리소설가 AC.도일의 작품에 등장하는 명탐정.
- 16 1952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지난 60년간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사랑받아 온 실내악의 전설.
- 18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아장아장, 엉금엉금, 번쩍번쩍 등이 있다.
- 20 옥이나 돌 등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21 에스파냐의 호색 귀족 돈 후안을 주인공으로 한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 23 일본의 수도.
- 24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함께 그린 그림을 말한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많이 나타난다.



[세로열쇠]

- 2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 국보 제151호.
- 3 포르투갈 출신의 축구 선수로, 현재 레알 마드리드 CF 소속이자 포르투갈의 주장. 현재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레알 마드리드 CF로 이적하며 발생한 이적료 8,000만 파운드(한화 약 1,500억)로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로 기록되어 있다.
- 4 운영 체제위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뜻한다.
- 5 수서곤충류에 기생하는 몸길이 90cm 가량, 실갈이 가늘고 몸빛은 검은 유선형동물. 감염된 곤충은 생식능력을 잃으며, 뇌와 신경절이 조종된다. 원래 사람은 감염되지 않지만,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변종 '이것'의 출현을 소재로 한 재난영화가 7월 개봉될 예정이다.
- 6 큰 아들 전태일의 죽음 이후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전쟁 같은 삶을 늘 함께했던 이소선 여사의 마지막 2년을 담은 태준식 감독의 다큐멘터리.
- 9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근접해서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신문사의 카메라맨에서 유래했는데,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뱅뱅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말한다.
- 12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라는 마술나라로 가게된 소녀 도로시의 환상과 모험을 그린 뮤지컬영화.
- 13 칼춤. 원래 민간에서 가면무(假面舞)로 행해지던 것을 조선 순조 때 궁중정재(宮中呈才)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춤이다.
- 16 이데올로기와 독재체제의 금제(禁制)에 맞서 문학이 저항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여 '저항의 문학'을 기치로 한 전후세대의 이론적 기수로 등장했던 평론가 겸 수필가. 우리나라 최초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 17 영화배우 이병헌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할리우드 액션영화.
- 19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공지영 소설.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20 세계적인 쿵푸스타 이소룡이 창시한 무술. 자신이 배웠던 영춘권(詠春拳)과 홍가권(洪家拳), 공력권(功力拳), 복싱, 태권도에 펜싱의 스텝을 차용하여 만든 종합무술이다.
- 22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으로 시작하는 윤극영 작사, 작곡의 동요.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곡이다.

지 / 난 / 호 / 정 / 답

정	경	화	양	톨	이	이
크	차	이	코	프	스	키
아			르	토	미	수
트	로	트	와	이	이	액
	코		트		자	반
코	코	샤	넬	무	소	록
리		갈	감	언	이	설
아	바		이	극		주
	그		집	시	후	산
토	너	먼	트	스	크	루
					지	

6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강선희(사하구 당리동)
초대권 김다빈(기장군 일광면)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정지은(김해시 지내동)
황선영(북구 만덕3동)

나랏소 강주찬(연제구 거제3동)
식사권 김종만(금정구 남산동)
박현정(양산시 물금읍)
윤인영(해운대구 재송2동)
전미경(사상구 감전2동)

조은극장 박정숙(사하구 하단동)
초대권 방미희(사하구 당리동)
장민정(서구 토성동)
정은지(양산시 물금읍)
황선희(부산진구 연지동)

큰집 광시영(영도구 동삼3동)
식사권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김정숙(사하구 다대2동)
윤은주(부산진구 가야2동)
이하나(사하구 구평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July 2012 Program Guide

2012
July 7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 AGAIN Blockbuster Magic show of Lee Eun-Geol 'The Illusion' 14:00, 18:30 80,000/60,000/You&I(1588-8477)	02	03 Ⓜ The 481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 Ⓜ The 18th Regular Performance of Dong-A Ballet Company 19:30 10,000/5,000 Dong-A Ballet Company (200-7823, 010-8554-1452)	04	05 Ⓜ Soprano Kim Eunhee Recital 19:30 20,000/10,000/Artbank Korea(442-1941)	06 Ⓜ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19:30 2,000/B.Y.P.O(607-3111-4)	07 Ⓜ Pianist Kim Kanghee's Lecture Recital 'I Love Piano Ensembles II' 19:30 20,00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iano (612-0369, 010-5245-4366)
08	09 Ⓜ 2012 Pianist Maksim Mrvica Korea Tour 19:30 99,000/88,000/66,000/55,000/ Inroduction(02-6292-9370)	10 Ⓜ The Winner Concert of Busan Music Competition 19:00 Free/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	11	12	13 Ⓜ Korean National Ballet 'Swan Lake' 19:30 70,000/50,000/30,000/20,000/B.C.C(607-6058) Ⓜ The 163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Harmonizing Together with Continuing Friend II' 19:30 10,000/7,000/5,000/B.M.T.O(607-3121)	14 Ⓜ Korean National Ballet 'Swan Lake' 17:00 70,000/50,000/30,000/20,000/B.C.C(607-6058) Ⓜ The 7th Regular Concert of Mukle Chorus 19:30 5,000/Mukle Chorus(010-2307-6922)
15	16	17 Ⓜ 2012 The 25th Regular Dance Performance of Busan High School of Arts 19:00 Free/Busan High of Arts(011-9147-2733)	18	19 Ⓜ The Concert for Children, 2012 Musical Instrument Family's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ummer Outdoor Dancing Performance 'The Faring Lady' 20:00 Free/B.M.D.C(607-3131-2)	20 Ⓜ The Concert for Children, 2012 Musical Instrument Family's Story 10:30, 15:30 2,000/B.P.O(607-3111-3)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Summer Outdoor Dancing Performance 'The Faring Lady' 20:00 Free/B.M.D.C(607-3131-2)	21 Ⓜ The 8th Korea Teenager Choral Competition 12: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32-0176) Ⓜ Lee Kyungeun Piano Recital. 19:00 20,000/10,000/ Artbank Korea(442-1941)
22	23	24 Ⓜ The Concert Summer Fantasy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7,000/5,000/ B.H.C(607-3141-2)	25 Ⓜ The 10th Regular Concert Busan Accord Youth Orchestra 19:00 Free/B.A.Y.O(010-6662-4123)	26	27 Ⓜ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17:00 Free/B.M.B.C(607-3161-2)	28 Ⓜ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Boys and Girls Chorus 17:00 Free/B.M.B.C(607-3161-2)
29	30 Ⓜ A Midsummer Night's Concert 19:30 20,000/5,000/Busan Arts Production (016-9317-4728) Ⓜ The 17th Regular Concert of Busan Youth Orchestra 'Let's Sing Dream and Hope' 19:30 Free/Busan Youth Orchestra (010-2980-0115)	31 Ⓜ The 482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	Exhibition Hall KOR-CHN-JPN The Excellent 500 Artist's Private View 7.4(Wed.)-7.8(Su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Korea Modern Art Association (010-5488-3375) The 18th Busan Calligraphy Compet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7.9(Mon.)-7.14(Sat.) Busan Fine Arts Association(632-2400) International Calligraphy - Art Exhibition Main, Middle Exhibition Hall 7.15(Mon.)-7.18(Wed.) Korea International Exchange Calligraphy art Association(010-4448-9653) The 22th Calligraphy Competition Main Exhibition Hall 7.19(Thu.)-7.21(Sat.) Korea Calligraphy Culture Association (010-3920-6104) The 38th Busan Arts Competition Invited Artist Exhibit -Main Exhibition Hall 7.23(Mon.)-7.28(Sat.) Busan Arts Association(632-2400)			

2012년 7월 공연일정

2012
July
7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7월 1일~6월 14일 기간 중 소극장 시설공사로 인하여 토요일상설무대 공연이 없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01</p> <p>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14:00, 18:30 8만원 · 6만원/유엔아이(1588-8477)</p>	<p>02</p>	<p>03</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1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p> <p>제18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19:30 1만원 · 5천원/동아발레단(200-7823, 010-8554-1452)</p>	<p>04</p>	<p>05</p> <p>소프라노 김은희 독창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06</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1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1~3)</p>	<p>07</p> <p>피아니스트 김강희의 럭셔리 리사이틀 'I Love Piano Ensembles IV' 부산콘서트 19:30 균일 2만원/한국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소 (612-0369, 010-5245-4366)</p>
<p>08</p>	<p>09</p> <p>2012 막심 크라비차 내한공연 19:30 9만 9천원 · 8만 8천원 · 6만 6천원 · 5만 5천원 인프로덕션(02-6292-9370)</p>	<p>10</p> <p>부산음악콩쿠르 입상자 축하연주회 19:00 무료/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1</p>	<p>12</p>	<p>13</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3회 정기연주회 '이어지는 빗들의 어우러짐 I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p>	<p>14</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7:0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p> <p>뮤클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뮤클합창단(010-2307-6922)</p>
<p>15</p>	<p>16</p>	<p>17</p> <p>2012 부산예술고등학교 예술제 제25회 무용정기공연 19:0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011-9147-2733)</p>	<p>18</p>	<p>19</p> <p>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여름마당출판 '방귀쟁이 며느리'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우천시 대극장</p>	<p>20</p> <p>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악기가족이야기 종합편 -악기마을 한마음 음악회 10:30, 15: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여름마당출판 '방귀쟁이 며느리'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우천시 대극장</p>	<p>21</p> <p>제8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12:00 무료/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p> <p>이정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0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2</p>	<p>23</p>	<p>24</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콘서트 씬머 환타지'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25</p> <p>이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이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010-6662-4123)</p>	<p>26</p>	<p>27</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 해설 음악회'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28</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 해설 음악회'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29</p>	<p>30</p> <p>한여름 밤의 콘서트 19:30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p> <p>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 19:30 초대/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010-2980-0115)</p>	<p>31</p> <p>창단 5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2012 중국순회연주회 성공기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2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p>	<p>전시일정</p> <p>한·중·일 우수작가 500인 특별초대전 -대, 중전시실 7월 4일(수)-8일(일) (사)한국현대미술협회(010-5488-3375)</p> <p>제18회 부산 서예대전-대, 중전시실 7월 9일(월)-14일(일) (사)한국서예협회(010-7599-6044)</p> <p>국제서화예술전-대, 중전시실 7월 15일(월)-18일(수) 김종관(010-4448-9553)</p> <p>제22회 전국서예공모대전-대전시실 7월 19일(목)-21일(토) (사)대한민국서예문화협회(010-3920-6104)</p> <p>제38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실 7월 23일(월)-28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p>			

콘서트
Concert Summer Fantasy
썸머판타지

2012. **7.24/TUE**/PM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연출 박흥영(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
무대영상 공하얀마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김천

2012년 8월 10일(금)

고찰 직지사와 서원·향교 등의 문화유적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김천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한국관광공사 추천 상품, 경상북도 우수 야간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길을 따라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과일의 도시 김천의 매력을 느껴 본다.

- 12: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5:00 김천 도착, 여름 과일따기 체험
- 17:30 저녁식사(바루공양)
- 18:30 꼬마연등 만들기 체험 및 탑돌이
- 19:00 직지사 이야기 여행,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20:00 세계도자기박물관, 춤추는 음악분수,
직지문화공원 공연감상
- 21:00 부산으로 출발

영천

2012년 9월 14일(금)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 하는 오감 여행을 시작으로 영천의 정신적 지주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임고서원, 문화유산과 자연풍광, 주민의 일상을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새롭게 조성한 영천 별별 미술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를 즐긴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영천 도착, 포도따기 및 와이너리 체험
- 12:30 중식
- 13:00 임고서원 탐방
- 14:00 영천 별별 미술마을 탐방,
'신 몽유도원-다섯 갈래 행복길' 걷기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July Vol.24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

2012. 8.23(목)~25(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사무엘 베케트 작 서정철 번역 이성규 연출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늬동기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연극
2012
죽여주는 이야기



20%
Discount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여주는 이야기

2012.4.20(금)-7.22(일) 화-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5시,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2012.6.29(금)-7.2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6시 30분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 5천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8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2012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3rd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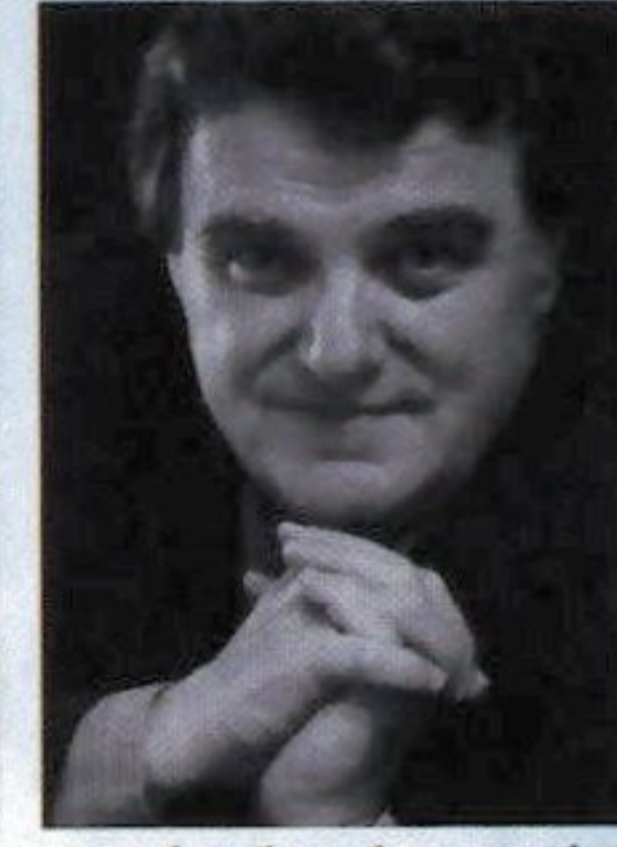
음악고문 강동석



프라하챔버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장-베르나르 포미에



PI. 피터 아블론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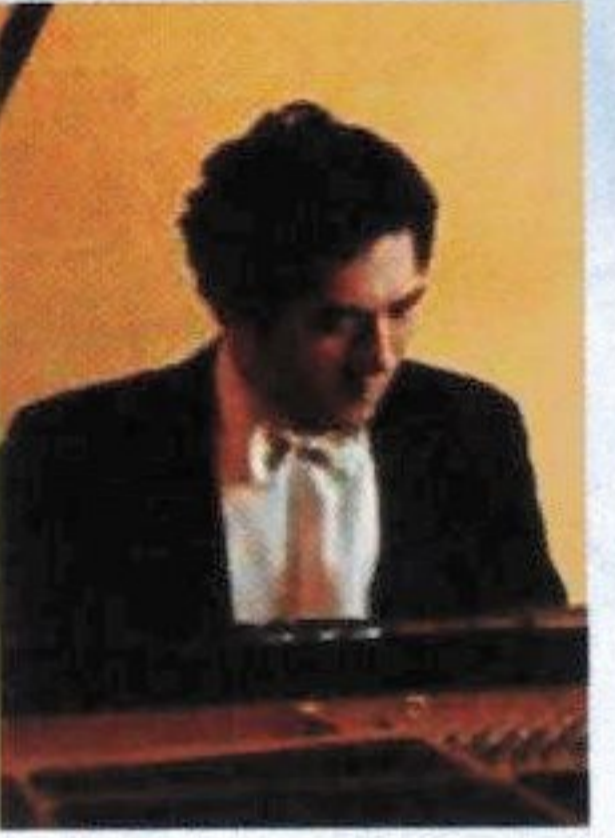
Hrp. 이자벨 모레티



Cla. 찰스 나이드



Vc. 조영창



PI. 유영욱



조이 오브 스트링스

로맨틱 부산 Romantic Busan

메인콘서트 2012. 9. 11(화) ~ 15(토) 5일간 음악고문 강동석(Vn.)

Openig concert

. 로맨틱 피터 아블론스키 2012. 9. 11(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장-베르나르 포미에) 협연 피터 아블론스키(PI.)

. 조이 오브 스트링스 2012. 9. 12(수) 19: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조이오브스트링스 협연 강동석(Vn.)

. 앙상블... 거장들과 함께 2012. 9. 13(목) 19:30 영화역전당 하늘연극장 이자벨 모레티(Hrp), 찰스 나이드(Cla), 강동석(Vn), 조영창(Vc), 유영욱(PI.)

. 하프... 그 천상의 멜로디 2012. 9. 14(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라하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이자벨 모레티(Hrp), 조영창(Vc.)

Finale Concert

. 프라하의 향기 2012. 9. 15(토)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라하챔버오케스트라 협연 찰스 나이드(Cla.)

프린지콘서트

2012. 9. 1(토), 2(일), 8(토), 9(일) 4일간 부산시내 야외공연 및 지하철 역사 내 공연

2010(1회)·2011(2회) 문예진흥기금예술평가에서 전국 국제음악제 중 우수등급 판정!!

세계적인 음악가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상시 연주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일보사 K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KNN

협찬 BS 부산은행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신세계 대동아건설(주) KB국민카드 김영사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문의 음악춘추 (주)코스모스악기 DaehanSteel 음악자료창고 (주)한수산업개발 케일국제물류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 070-7687-8291~2 Fax 051-513-8252
홈페이지 www.bmimf.co.kr 이메일 bmimf@hanmail.net

아크로스후쿠오카

ACROS

String

초청공연

Ensemble

2012. 8.16 Thu

19: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로시니 Rossini
현을 위한 6개의 소나타 6번
6 Sonatas for Strings No.6

바하 Bach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
Concerto for 2 Violins d minor BWV1043


비발디 Vivaldi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553
Concerto for 4 Violins B^b Major RV553

그리그 Grieg
두개의 슬픈 멜로디 op.34
Two Elegiac Melodies op.34 (tutti Vn 1st)

수크 Suk
현을위한 세레나데
Serenade for Strings (Tutti Vn 1st)

모짜르트 Mozart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뮤직 K.525
Eine Kleine Nachtmusik K.525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アクロス福岡

입장권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학생 50% 할인 / 정기회원 20% 할인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8

